

第23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會 議 錄

(2010.3.22. ~ 3.2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3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개회식 .....	209
II.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11
III.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	221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	229
2.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31
3.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43
4.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	249
5.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57
6.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69
7.	조례심사보고서 .....	271
8.	심사보고서 .....	275
9.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	29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11시 00분

## 開會式順(第238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객종수)

(11시 00분 개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 객종수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11시 02분

## 議事日程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3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0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6.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
9.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3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2010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의장 제의)
4.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7.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8.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9.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0.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경과보고

● 의장대리 김부웅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김석환

의사과장 김석환입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와 안건 접수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2월 3일 제28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10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제23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03분)

● 의장대리 김부웅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본회의 산회 후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3월 23일은 2010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3월 24일은 의안관련 현장방문, 3월 25일은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3월 2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2010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1일간 2010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기관 현황 파악과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별첨 9)

(끝에 실음)

- 4.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11시 08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발전적 대안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부웅 부의장님과 교육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줌으로써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확

보하고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장학금을 지급 받는 기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 조 :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원의 심야 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치원

생, 초등학생,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모두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실시한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 총 2만 1,56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이 67.7%, 반대가 32.3%로 나타났으며 그중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찬성이 71.9%, 반대가 28.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관련 단체인 충청북도학원연합회에서는 반대의견을,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조합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전교조 충북지부에서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3)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은 유아교육 전담기관 설치로 유아교육 진흥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

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공교육 체제 확립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은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사도관 옆에 위치한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254 외 7필지 1만 2,667㎡의 부지에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2,580㎡ 규모로 약 79억 9,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유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실내체험실 9개 실과 실외 체험장 2개소,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시설 3개실, 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실과 자원봉사자실, 관리실로 교사 및 유아,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유아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유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이 건립되면 교사들에게 지식기반사회의 유아 지도를 위한 21세기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재 교구 개발 보급을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유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 유아교육이 타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선진 유아교육의 산실이 될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건립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 조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  
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부웅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의안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교육활동 부지 매입을 위하여 12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청명학교교육원 활동 부지 1만 9,124㎡, 유리체육공원 활동 부지 5,507㎡를 취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물 취득을 위하여 259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장애 학생 전용 체육관 950㎡, 유아교육진흥원 2,580㎡를 신축하고 학생 기숙사와 급식소 증축을 위하여 제천제일고등학교의 기숙형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기숙사 추가 증축분 807㎡와 경덕중학교 급식소 및 연결복도 증축 1,062㎡와 충주여자중학교 급식소와 다목적교실 증축 1,633㎡, 원남중학교 기숙형중학교 지정에 따른 기숙사 외 2동으로 4,250㎡를 증축하는 등 토지와 건물 취득을 위해 271억 6,9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 2만 4,631㎡, 건물 1만 1,28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사회에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입 현황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 학교신설사업 국고부담금 지방채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지원에 따라 기 승인한 지방채 규모를 감액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출 현황은 정부시책 사업과 연계한 대응투자 사업 추진,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신장 사업,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학비 및 급식비 지원과 농촌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격차 해소 사업,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학교운영비 지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05억원에서 1,652억원이 증액된 1조 7,1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8억원, 자체수입 16억원, 차입 감소 27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수입 989억원으로 1,6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154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67억원, 교육격차해소 224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07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1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30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8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52억원, 기관운영관리 43억원, 지방채상환 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원으로 1,6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참 조 :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끝에 실음)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1)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과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 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3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24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소 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정무 위원님과 김병우 위원님께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웅,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정일용,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3)
-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별첨 4)
- ▶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별첨 5)
- ▶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별 책 부 록

- ▶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3월 26일 (금요일) 11시 00분

## 議事日程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4.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附議된 案件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시 개의)

###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시·도교육청 국·과장 맞춤 정책 연수 관계로 이주

철 교육국장과 교육국 과장 5명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1분)

● 의장대리 김부웅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청주교육대학교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3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던 바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

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수한 초등교사 확보와 안정적인 교사수급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게 우수한 초등교사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3.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5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협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서수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서수웅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04억 3,296만 5,000원 대비 10.7%인 1,651억 8,082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156억 1,37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중앙정

부이전수입이 78.1%인 1조 3,403억 9,154만 6,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2%인 1,407억 4,758만 9,000원, 자체수입이 3.2%인 545억 2,439만 8,000원, 차입금이 0.1%인 17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가 10.4%인 1,782억 2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3.7%인 1조 6,082억 677만 4,000원, 평생 직업교육이 0.1%인 34억 2,444만 2,000원, 교육 일반이 6.1%인 1,039억 8,2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별 및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중기 충북교육재정 계획 및 충북교육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 추계액을 재원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유아 특수교육 투자 확대,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전문계 고교 지원 확대, 체육 교육 내실화 및 특별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확대와 저소득

층 학비 및 급식비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등을 통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초 예산 대비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67.7% 증가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 학교신설사업 국고부담 지방채는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기 지원에 따라 기 승인한 지방채 규모를 감액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 것은 건전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기까지 수고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심사보고서(별첨 8)

(끝에 실음)

● 의장대리 김부웅

서수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안전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

[제238회-제2차 본회의]

---

하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폐회)

---

○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서수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정일용,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공보감사담당관 홍준기, 총무과장 황익상,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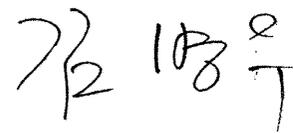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7)
- ▶ 심사보고서(별첨 8)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10. 3.

부 의 장      김 부 응      

위      원      정      무      

위      원      김 병 우      

의사국장      구 명 화      



(별첨 1)

# 의 사 일 정 (안)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10. 3. 22. ~ 3. 26.(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3월22일(월) 11:00</p> <p>본회의 종료 후 15:00</p>	<p><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p> <p>[ 제1차 본회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3. 22. ~ 3. 26. (5일간)</li> <li>2010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li> <li>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li> <li>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li> <li>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li> <li>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li> <li>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li> </ol> <p><input type="checkbox"/> 산 회</p> <p><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심사소위원회</li> <li>-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li> </ul>	<p>의장제의</p> <p>의장제의 제안설명</p> <p>제안설명</p> <p>제안설명 제안설명</p> <p>제안설명 제안설명</p>
<p>3월23일(화) 10:00</p>	<p><input type="checkbox"/> 2010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전 :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li> <li>- 오후 : 충주, 제천,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li> </ul>	<p>본회의휴회</p>
<p>3월24일(수) 10:00</p>	<p><input type="checkbox"/> 현장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li> </ul>	<p>본회의휴회</p>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3월25일(목) 10:00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 활동 -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휴회
3월26일(금) 11:00	<b>[ 제2차 본회의 ]</b> 1.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 4.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의 결

(별첨 2)

의안번호	제 /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228 회)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12일

#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 - 1
----------	---------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 기한을 5년 연장함(현행 조례 부칙 제2항 단서)
- 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 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
- 라.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규칙의 면제근거 마련(안 제10조 단서)
- 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10년도 추경에 반영 예정

나.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11.2. ~ 11.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를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를 "청주교육대학교"로, 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이하 "공립초등학교"라 한다)"를 "충청북도립초등학교"로, "초등교사"를 "우수한 초등교사"로 각각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청주교대"를 "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로, "공립초등학교"를 "충청북도립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로,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각각 한다.

제3조 중 "공립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5조 중 "공립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6조 중 "2년간"을 "4년간"으로, "다만"을 "다만,"으로 각각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재학생 1학년, 2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4년

2. 재학생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 "다음 각호의 1" 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장학금의 반납)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때

부칙 제2항 중 "2007학년도"를 "2012학년도"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u>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u></p>	<p><u>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u>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u>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u>충청북도공립초등학교(이하 “공립초등학교”라 한다)</u>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u>초등교사를</u>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u>청주교대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공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u> 정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 <u>청주교육대학교</u>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u>충청북도립초등학교</u>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u>우수한 초등교사를</u>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u>청주교육대학교(이하 “청주교대”라 한다)</u>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u>충청북도립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u>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청주교대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u>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이 정한다.</p>

제3조(장학생 수)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공립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장학금)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지급기간을 이유로 제7조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제5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2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장학생 수) 장학생의 수는 학년당 50명 이내에서 매년 초등학교 교사의 수급전망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장학금) ① 제2조에 따른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장래 초등학교 교사가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이 청주교대를 졸업한 때에는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자는 계속하여 4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공립초등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과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복무의무) ①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교사로 임용된 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재학생 1학년, 2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4년
2. 재학생 3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 3년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
2. 병역복무와 해외유학,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된 기간

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 5. (생략)

제10조(장학금의 반납)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제8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학금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장학금의 반납)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

<p>1. <u>제6조의 규정에 의한</u>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p> <p>2. <u>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3. <u>제9조제2호 내지 제5호에</u> 해당하는 때</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지급기간은 <b>2007학년도</b>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p>	<p><u>금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이 이의 반납을 연기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u></p> <p>1. <u>제6조에 따른</u>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내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p> <p>2. <u>제7조제1항에 따른</u>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3. <u>제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u> 해당하는 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지급은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200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지급기간은 <b>2012학년도</b>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p>
---	---



(별첨 3)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238 회)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12일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8-2
----------	-------

제출연월일 : 2010.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1. 제안이유

학원의 심야 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유치원생·초등학생·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여 통일시키고자 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나. 자체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 원안통과

라. 입법예고('09.12.31~'10.1.20)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반영결과

- 1) 충청북도학원연합회 : 생존권 문제로 단축반대 ⇒ 반영 안함
- 2)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 :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축찬성
- 3) 대한민국교원조합충북지부 : 단축찬성(초등 21:00, 중등 22:00)
- 4) 전교조 충북지부 : 무응답

마. 기타

※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기간 : '09. 10. 23 ~ 11. 5.
- 2) 설문대상 : 도내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교원, 운영위원 등  
총 21,560명
- 3) 설문결과 : 전체평균 찬성 67.7% > 반대 32.3%
  - 학생 : 찬성 62.4% > 반대 37.6%
  - 학부모 : 찬성 71.9% > 반대 28.1%
  - 교원 : 찬성 81.1% > 반대 18.9%
  - 운영위원 : 찬성 81.8% > 반대 18.2%

##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b>23:00</b>까지로 한다. <b>다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00까지로 하며,</b>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p>② 삭제</p>	<p>제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b>22:00</b>까지로 한다. <b>다만,</b>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00부터 04: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p>
---	--

## 관계법령 발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16조 (지도·감독 등)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첨 4)

의안 번호	제 3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03월 일 (제 회)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12일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

의안 번호	238-3
----------	-------

제출년월일 : 2010. 3. 1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 제안 이유

유아교육 진흥,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 구현, 유아교육 지원 체제 구축으로 공교육 체계 확립을 위한 유아 교육 전담기관인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 (안)에 대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심사·의결을 얻고자 함.

## □ 주요 골자

- 명칭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가칭)
-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254외 7필지
- 시설 규모
  - 부지 면적 : 12,667m<sup>2</sup>
  - 건축 규모 : 지상 4층
  - 건축 연면적 : 2,580m<sup>2</sup> (공용 면적, 기계실 포함)
- 소요 예산 : 7,999,640천원
- 이용 대상 :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연인원 20,000명)
- 업무 내용 : 충청북도 유아교육 지원

##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 : 붙임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

## 1. 설립 목적

- 유아교육 연구, 교원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평가 등 유아교육 전담 기관 설치로 유아교육 진흥
- 유아 발달에 적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
- 유아, 교사, 학부모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공교육 체제 확립
- 저출산, 다문화 가정 자녀, 저소득층 자녀, 발달지연아 등 현재 사회적으로 부각 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여 교육복지 구현

## 2. 시설 개요

-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254외 7필지
- 사업량 :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지상 4층
- 사업기간 : 2010. 03 ~ 2012. 05
- 총사업비 : 7,999,640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비고
2010. 1차 추정	시설비	6,166,440	
	비품비	950,000	
	설계용역 및 감리비	365,200	
	실외체험 교육장 시설	518,000	
	총 계	7,999,640	

### 3. 시설배치계획

- 부지 면적 : 12,667m<sup>2</sup>
- 건축 규모 : 지상 4층
- 건축 연면적 : 2,580m<sup>2</sup> (공용 면적, 기계실 포함)
- 주요 시설 현황

구분	주요 시설 설명	연면적(㎡)	주요 기구/장비
유아 실내 체험 시설	유아체험1관-건강체험(건강)	100	인체체험 및 신체검사실
	유아체험2관-재난재해 안전	100	유아 재난재해 안전체험
	유아체험3관-언어체험(언어)	100	체험실,
	유아체험4관-영상체험(언어)	120	체험실, 준비실, 영상기자재
	유아체험5관-요리체험(탐구)	120	요리실, 준비실, 수도, 배수로
	유아체험6관-조형체험(표현)	100	체험실, 준비실,
	유아체험7관-음악체험(표현)	100	체험실, 준비실, 무대
	유아체험8관-세계여행(사회)	100	체험실, 준비실, 무대
	유아체험9관-과학체험(탐구)	220	체험실, 준비실, 3D입체영상
		유아용 휴게실	100
연구 시설	교수 학습 자료실	120	정리장, 케이스
	교재 교구 제작·전시실	100	책, 책상, 컴퓨터, 책상, 의자
	교사연구지원실	135	정리장, 책상, 케이스

구분	주요 시설명	면적(㎡)	주요 용도
관리 및 기타 시설	방송실 및 안내실	35	방송 및 특별활동, 방송시설
	보건실	35	건강관리 보건업무, 의료시설
	사무실(행정)	60	행정업무, 서고, 집기
	자원봉사자실	50	유아용
	사무실(원장실)	50	원장업무, 각종협의회, 집기
	사무실(부장실)	50	부장업무, 각종협의, 집기
	사무실(연구실)	60	연구협의 및 업무수행, 집기
	접견 및 교직원 휴게실	30	건물, 책장, 테이블, 의자, 기타
	관리실(창고)	80	
	화장실(유아용)	6실	2동*3층(102,000*6실)
	화장실(성인용)	4실	1동*4층(102,000*4실)
계		2,065	
공용면적		515	연면적의 약 25%
실외체험	친환경 체험교육장	3,300	
	실외놀이 종합유원장	3,300	

#### 4.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계획

- 유치원 교원 연수
-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아교육 정보 제공
- 유아교육기관 평가
- 유치원 홍보 자료 제작 지원
- 유아교육연구회 운영
-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교육과정 개발·보급
-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 유치원 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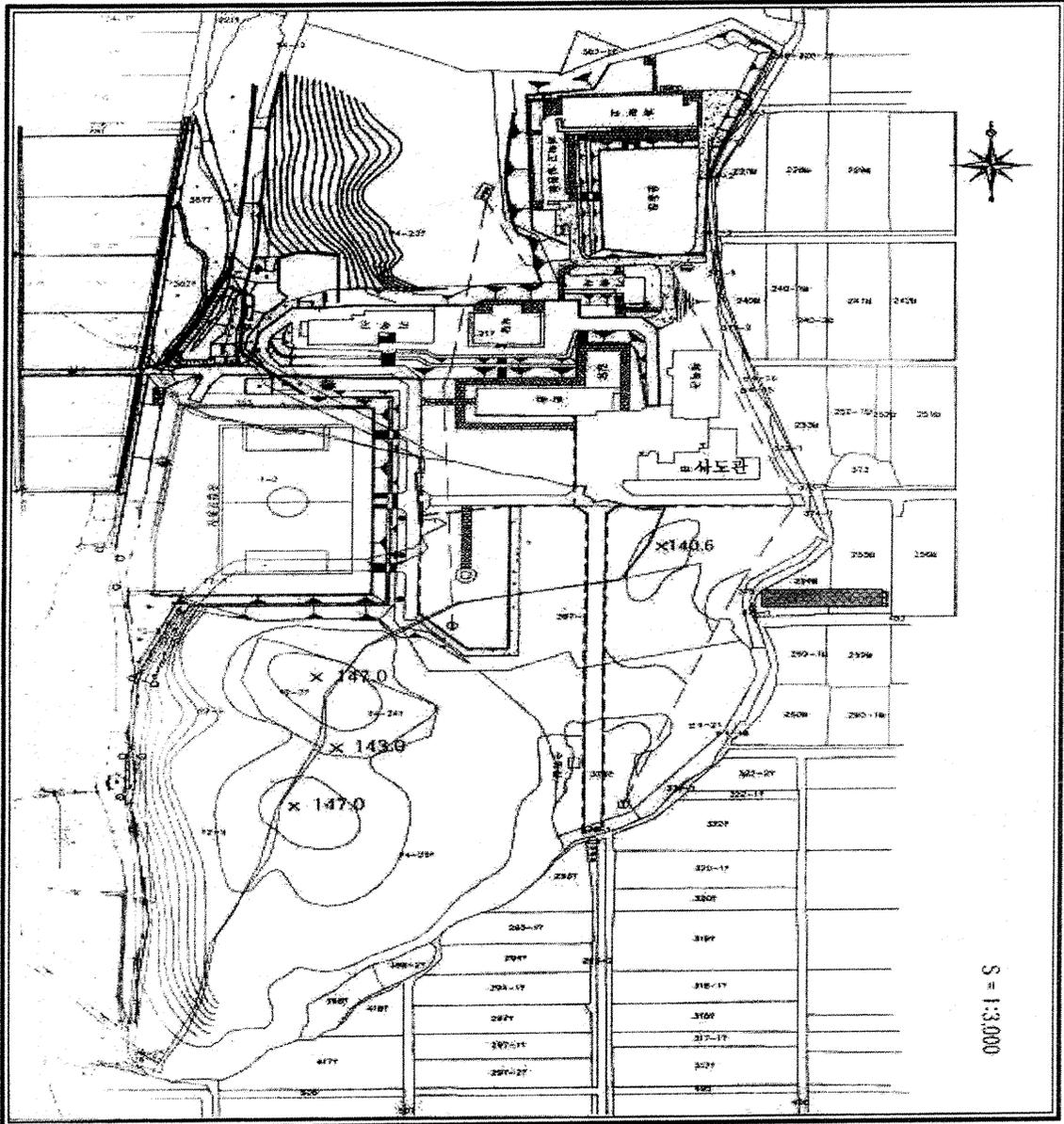
#### 5. 유아교육진흥원 조직 구성(안)

##### 1) 직원 조직 현황

직명	원장 (연구직)	부원장 (연구직)	연구지원 (연구지원)	연구실장 (연구실장)	연구실장 (연구실장)	연구실장 (연구실장)	행정 (행정)	총계
정원	1	1	2 (연구지원)	4 (체험학습)	4 (체험학습)	행정1/사무보조2/조무2 (체험학습, 운전, 전기, 간호)	17	

## 6.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예정지 위치도

설립 예정 부지 : 충북 청원군 가덕면 상아리 산 4-23 단재교육연수원내 사도관 옆



## 7. 타 시도 설립 현황

2010. 3 현재

	시·도명	명칭	개원일	설립 형태	수용 인원	부지	연면적	예산	조직	비고
1	서울	서울특별시 유아교육진흥원	08.06.16	폐교 리모델링	300명	7,478m <sup>2</sup>	4,723m <sup>2</sup>	100억	22명	완공
2	부산	부산유아교육원	07.03.01	폐교 리모델링	200명	7,811m <sup>2</sup>	7,630m <sup>2</sup>	73억	10명	완공
3	울산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10. 09.	폐교 리모델링	200명	11,901m <sup>2</sup>	4,739m <sup>2</sup>	125억		설립중
4	경기도	경기도 유아체험교육원	04.09.01	단독 설립	210명	3,832m <sup>2</sup>	1,286m <sup>2</sup>	70억	14명	완공
		12,503m <sup>2</sup>					27억			
5	경남	경남유아교육원	02.09.01	단독 설립	300명	3,201m <sup>2</sup>	3,795m <sup>2</sup>	85억	31명	완공
		경남유아 체험교육원	09.03.01	기존건물 개보수 2층 추가 증축		12,503m <sup>2</sup>	4,602m <sup>2</sup>			
6	전북	전북석교유아 종합학습분원	98.07.15		120명	28,198m <sup>2</sup>	1,306m <sup>2</sup>	48억	6명	완공
7	강원도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0.03.	폐교 리모델링	200명	9,468m <sup>2</sup>	4,950m <sup>2</sup>	60억	10명	완공
8	인천	인천유아 체험학습장		단독 설립	100명	11,729m <sup>2</sup>		61억		
9	광주	광주유아 교육진흥원			200명	7,687m <sup>2</sup>	4,709m <sup>2</sup>	93억		

(별첨 5)

의안번호	제 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3월 일 (제 238 회)

##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일

#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238-4

제출연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 취 득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기관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충청북도학생 종합수련원	청명학생교육원 활동부지 매입	19,124	764,960
	충청북도교육청	유리체육공원 활동부지 매입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	5,507	440,560
	소 계	2건	24,631	1,205,520
건 물	충청북도교육청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	950	1,875,490
	충청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2,580	7,999,640
	제천제일고	기숙사 증축(변경)	807	772,870
	경 덕 중	급식소 및 연결복도 증축	1,062	2,182,760
	충 주 여 중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1,633	2,188,200
	원 남 중	기숙사의 2동 증축	4,250	10,945,493
	소 계	6건	11,282	25,964,453
합 계		8건	35,913	27,169,973

##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

붙임 : 배치도면 8부.

# 201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2010년도 당초계획			2010년도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 득	취득합계	9	162,468.5	64,078,648	8	35,913	27,169,973	17	198,381.5	91,248,621	
	계	토지	5	142,179.0	29,625,073	2	24,631	1,205,520	7	166,810.0	30,830,593
		건물	4	20,289.5	34,453,575	6	11,282	25,964,453	10	31,571.5	60,418,028
		기타									
	1. 매입	토지	5	142,179.0	29,625,073	2	24,631	1,205,520	7	166,810.0	30,830,593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4	20,289.5	34,453,575	6	11,282	25,964,453	10	31,571.5	60,418,028
기타											
처 분	처분합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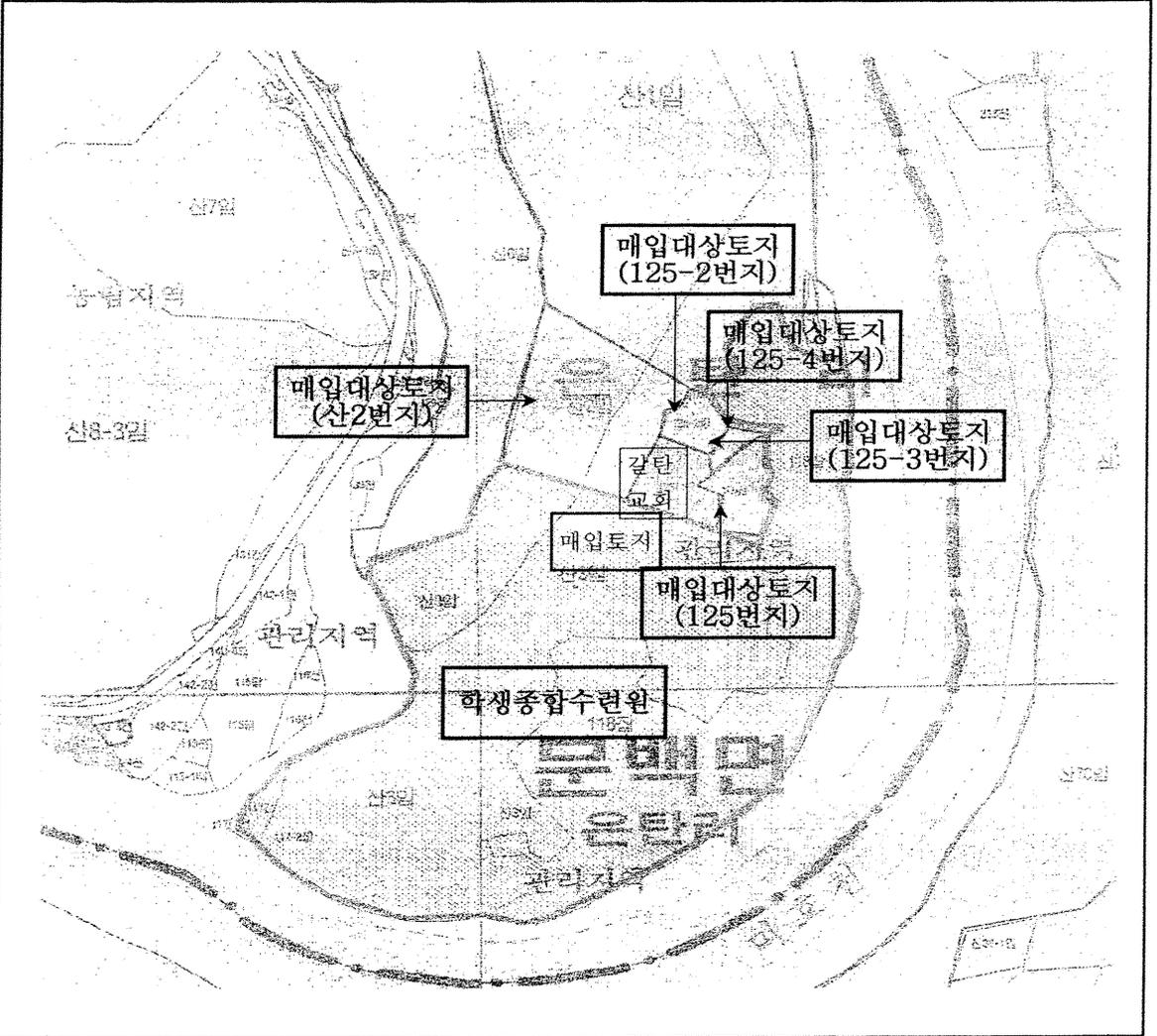
##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 유 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					
충청북도 학생종합 수련원	토지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25외 4	19,124	764,960	상반기	- 청명학생교육원 활동 부지 매입	교육감	도면 1
충청북도 교육청	토지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1외 2	5,507	440,560	상반기	- 유리체육공원 활동 부지 매입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신축)	교육감	도면 2
토지 소계		2건	24,631	1,205,520				
충청북도 교육청	건물	청원군 오창면 유리 391외 2	950	1,875,490	상반기	-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신축	교육감	도면 3
충청북도 교육청	건물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253외 7	2,580	7,999,640	상반기	-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교육감	도면 4
제천제일고	건물	제천시 동현동 15-3	807	772,870	상반기	- 기숙형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증축 ▪ 수량 · 당초 : 1,420m <sup>2</sup> · 변경 : 2,227m <sup>2</sup> ▪ 금액 · 당초 : 2,572,510천원 · 변경 : 3,345,380천원	교육감	30% 이상 변동 (도면 5)
경 덕 중	건물	홍덕구 가경동 1500	1,062	2,182,760	상반기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 및 연결복도 증축 ▪ 당초예산 : 622,220천원 ▪ 1회추경 : 1,560,540천원	교육감	도면 6
충주여중	건물	충주시 교현2동 369-1	1,633	2,188,200	상반기	- 급식소 및 다목적교실 증축 ▪ 급 식 소 : 675m <sup>2</sup> ▪ 다목적교실 : 958m <sup>2</sup>	교육감	도면 7
원 남 중	건물	보은군 삼송면 내망리 653	4,250	10,945,493	상반기	- 기숙형 중학교 증축 ▪ 교 사 : 762m <sup>2</sup> ▪ 기숙사 : 2,538m <sup>2</sup> ▪ 다목적교실 : 950m <sup>2</sup>	교육감	도면 8
건물 소계		6건	11,282	25,964,453				
합 계			35,913	27,169,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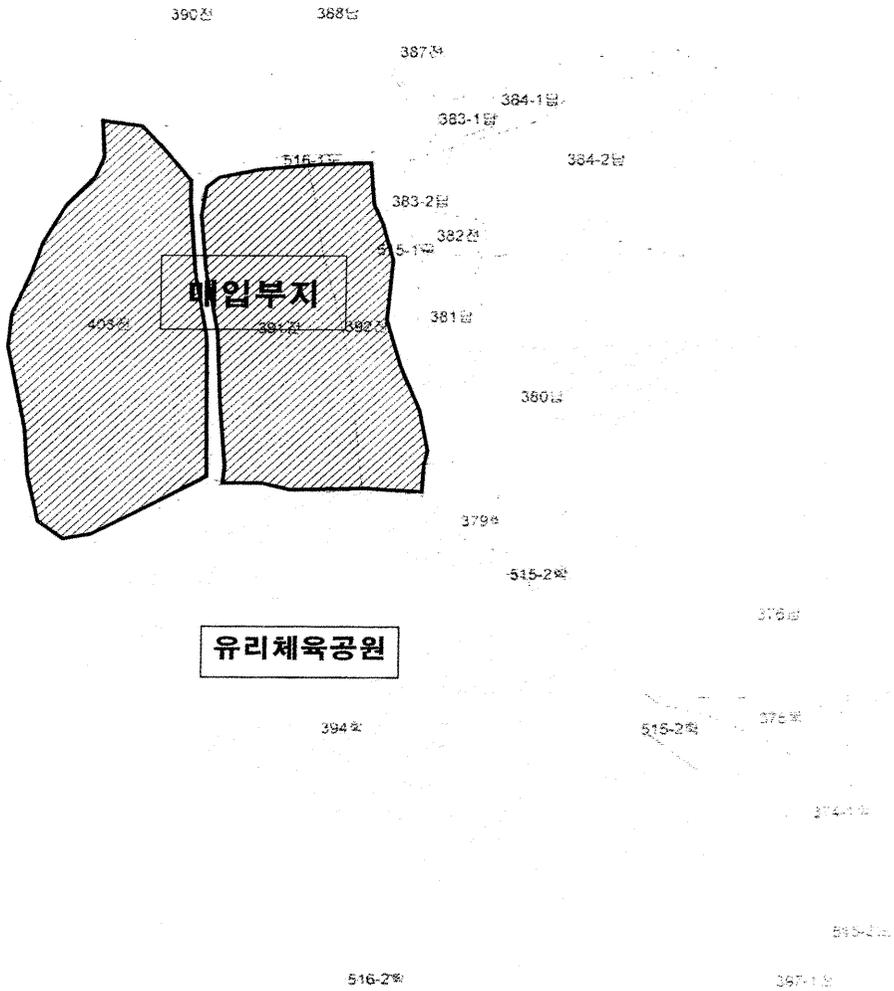
# 「도면 1」: 충북학생종합수련원 토지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청명학생교육원 학생종합수련원 활동부지매입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125	전	2,841	284,100	- 청명학생교육원 및 학생종합수련원 활동부지매입
		125-2	종교용지	1,688	219,440	
		125-3	임야	756	75,600	
		125-4	도로	208	4,160	
	합계	5필지		19,124	764,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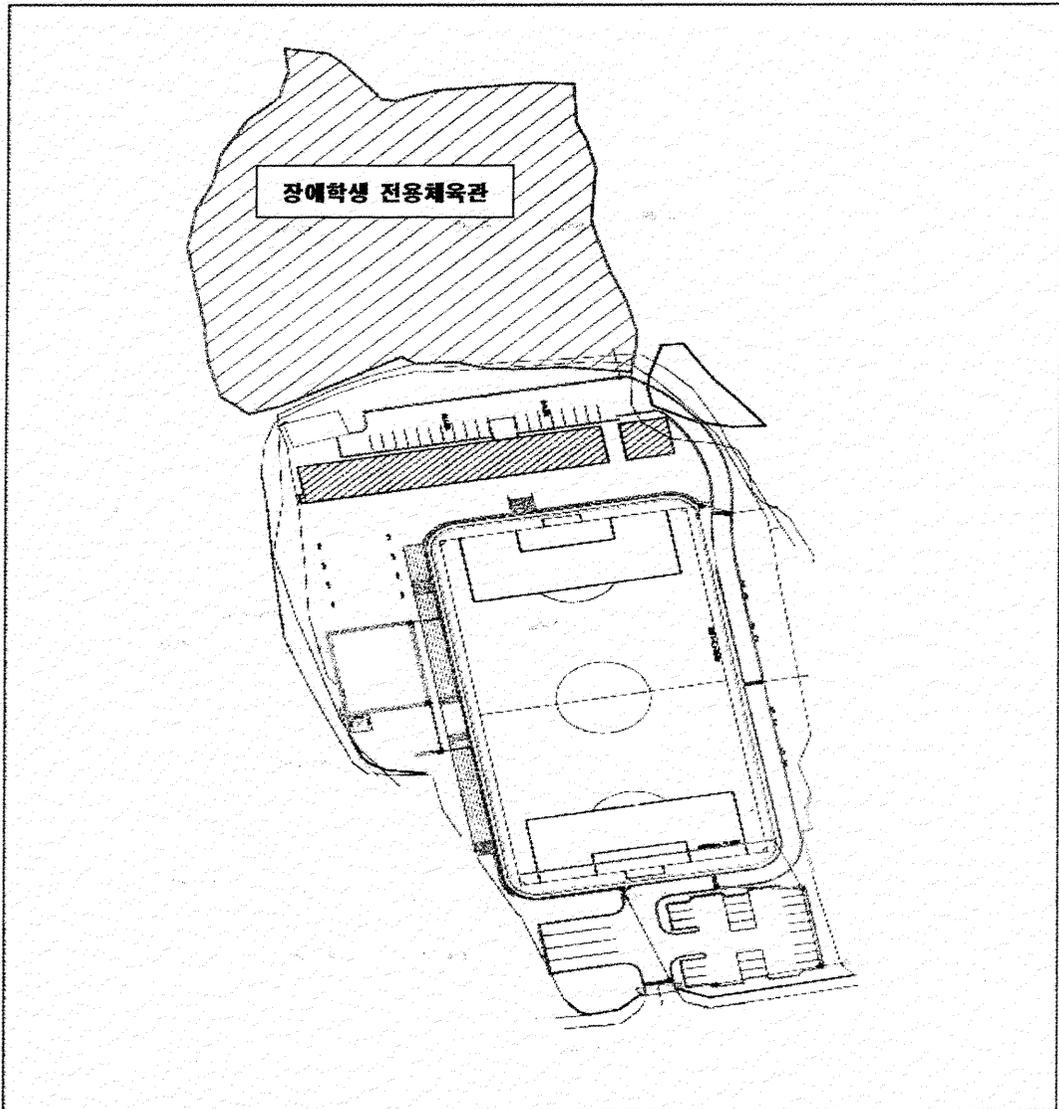
## 「도면 2」 : 유리체육공원 토지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유리체육 공원 부지확장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1	전	1,798	143,840	유리체육공원 활동부지 매입 및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신축
		392	전	889	71,120	
		403	전	2,820	225,600	
	합계	3필지		5,507	440,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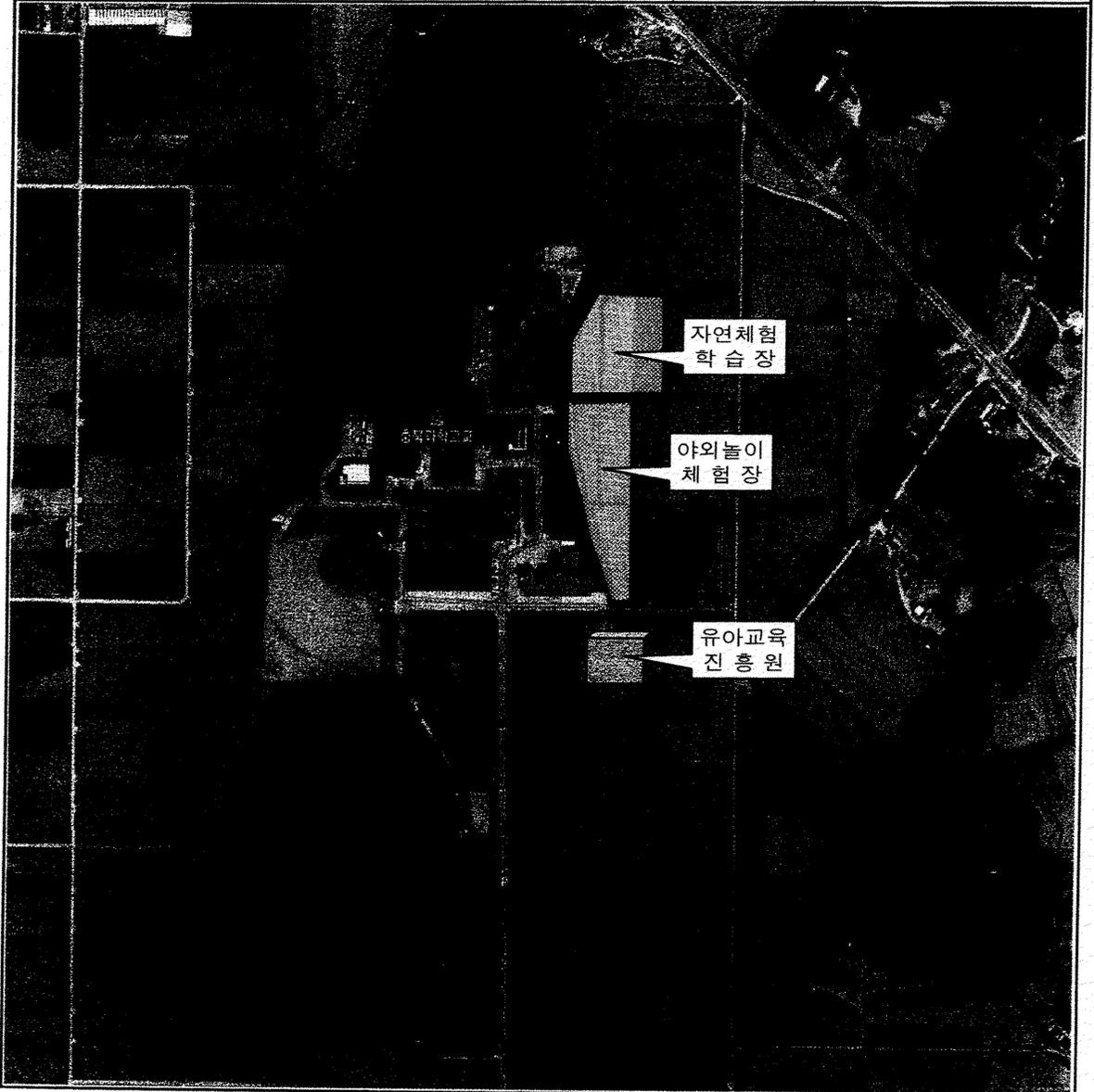
### 「도면 3」 : 장애학생 전용 체육관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유
장애학생 전용체육관	오창읍 유리	391외2	철근 콘크리트	950	1,875,490	장애인 체육관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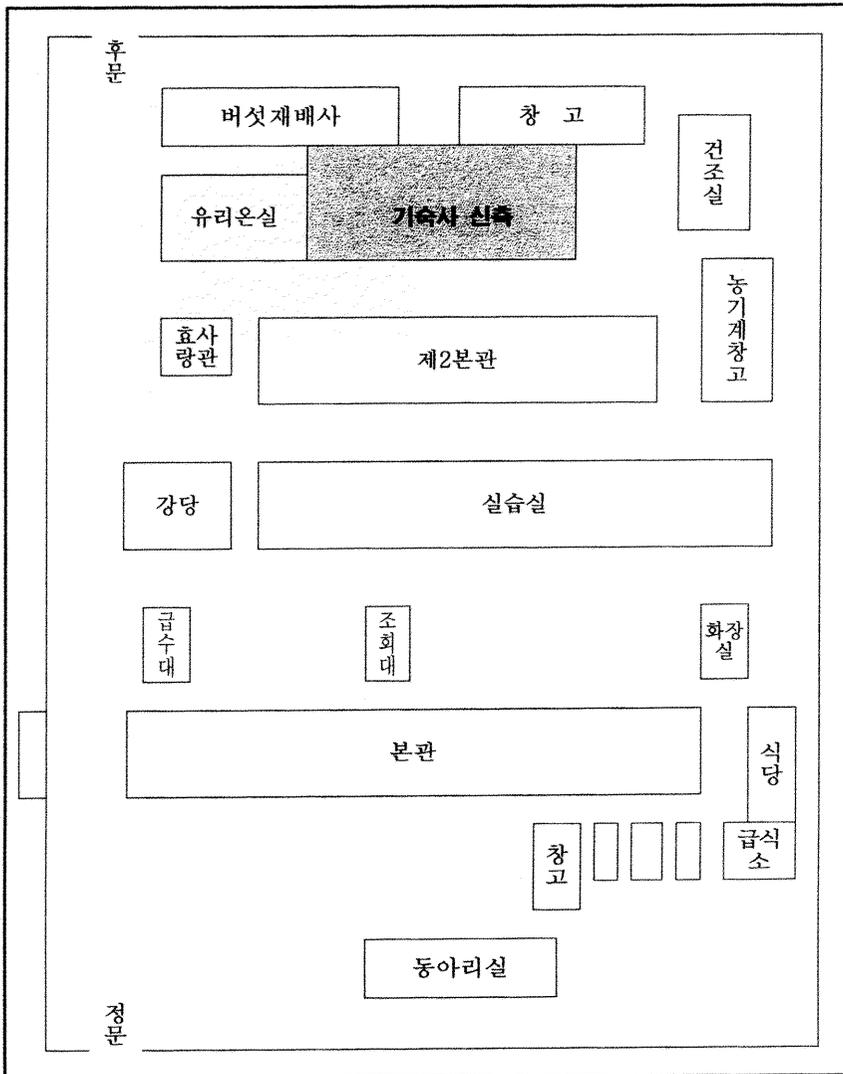
## 「도면 4」 : 유아교육진흥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유아교육 진흥원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253외 7	철근콘크 리트조	2,580	7,999,640	유아교육진흥원설립에 따른 건물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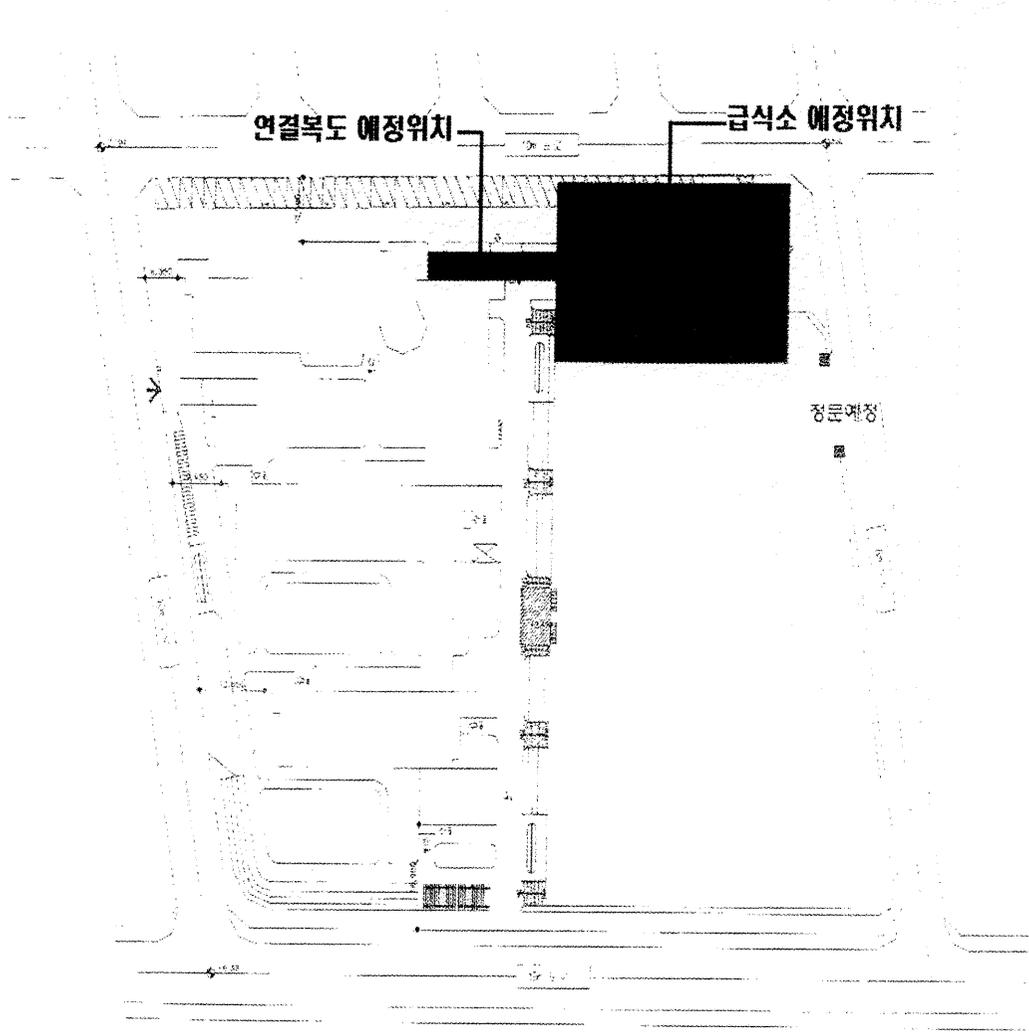
# 「도면 5」 : 제천제일고 건물 취득 변경 배치도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 유
당초	제천시 동현동	15-3	철.콘.스	1,420	2,572,510	- 기숙형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증축 - 당초계획에 비품비 93,000천원 포함
변경		15-3	철.콘.스	2,227	3,345,380	
증감				807	772,870	- 면적(57%), 예산(26%)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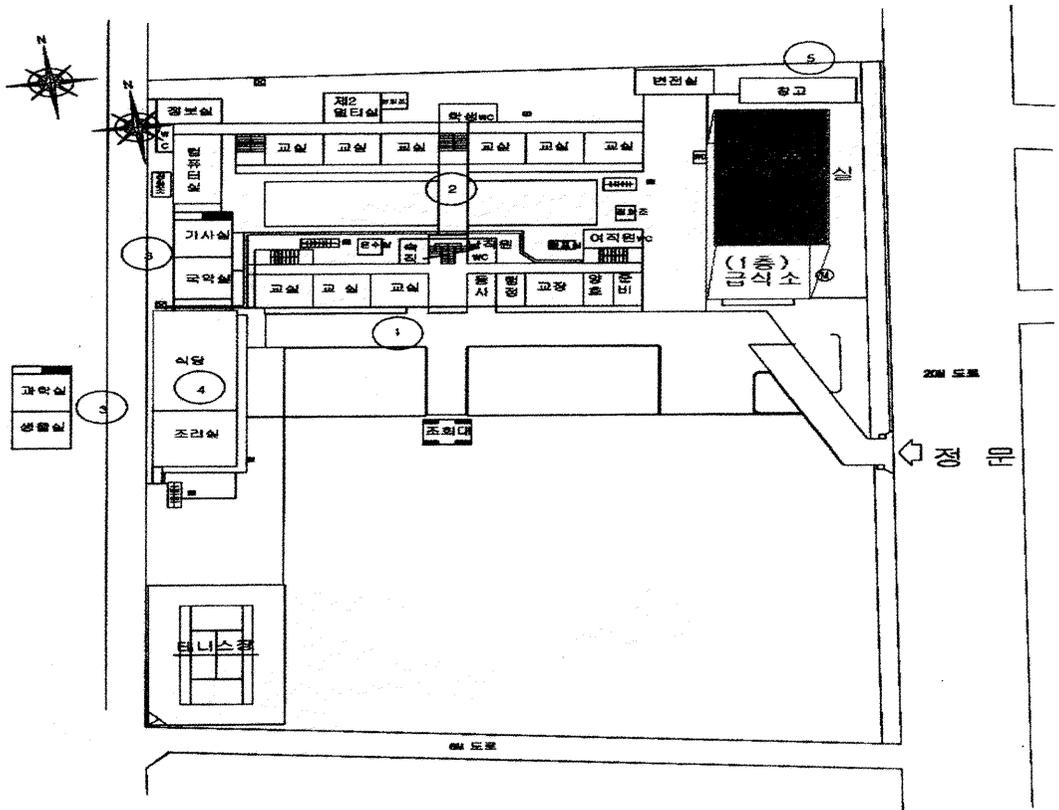
## 「도면 6」 : 경덕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추정금액 (천원)	사 유
급식소 및 연결복도	홍덕구 가경동	1500	철·콘	1,062㎡	2,182,760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급식소 및 연결복도 증축



## 「도면 7」 : 충주여중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급식소	충주시 교현2동	369-1	철골조	675	1,173,200	- 급식소개축(1층) 다목적교실신축(2층) - 충주시보조금미포함 ▪ 435,000천원 보조예정
다목적교실				958	1,015,000	
합계				1,633	2,188,200	



**충주여중 배치도**  
 SCALE : A1: 1/600, A3: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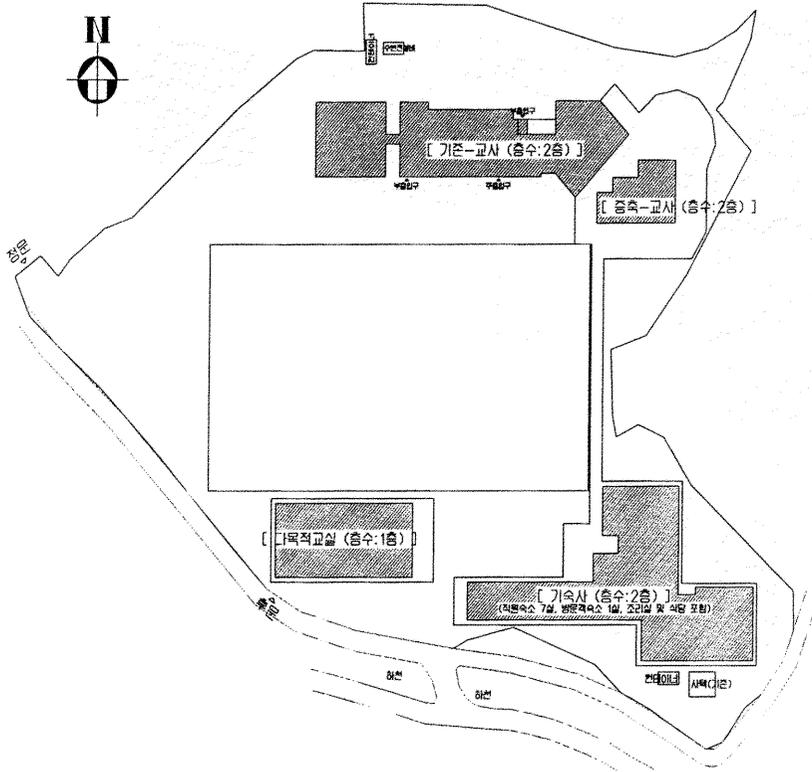
# 「도면 8」 : 원남중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부종	면적 (㎡)	건축면적 (㎡)	사유
기숙형 중학교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653	철콘조	4,250 (3식)	10,945,493	■ 보은기숙형중학교 신축 - 개교예정 : 2011. 3월 - 학급예정규모 : 4학급 - 통폐합예정 : 3개중학교

## [ 시설규모산출용 예상 배치안 ]

[ 축적 (A3)1:900, (A4)1:1200 ]

( [학급수] 4학급, [학생수] 100명, 기숙사 4인1실 적용, Wee Center, 특수학급 1실 포함 )



(별첨 6)

의안번호	제 5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월 일 (제 회)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0. 3. 12.

#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238-5
----------	-------

제출연월일 : 2010. 3. 12.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조 5,504억 3,296만 5천원에서 1,651억 8,082만 7천원 증액된 1조 7,156억 1,379만원 2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18억 327만 1천원, 자체수입 15억 8,483만원, 차입 270억 4,900만원 감액, 전년도이월금 988억 4,172만 6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33억 3,799만 9천원, 평생·직업교육 7억 8,364만 8천원, 교육일반 110억 5,918만원 계상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별책

(별첨 7)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3. 26. 11:00)

## 조례 심사 보고서

□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3월 22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10년 3월 22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제안설명 : 교육국장 이 수 철)

#### 가. 제안이유

-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정하였던 장학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함(현행 조례 부칙 제2항 단서)
-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임용시험 의무 응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6조)

-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안 제7조)
- 장학금 반납의 면제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면제근거 마련(안 제10조 단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임용고시의 응시기회를 연장하여 우수한 초등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우수한 초등교사 확보와 안정적인 교사수급을 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3. 22.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간사	정무	정무
위원	김병우	김병우
	김부웅	김부웅
	서수웅	서수웅
	이상일	이상일

(별첨 8)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0. 3. 26. 11:00)

# 심 사 보 고 서

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15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10년 3월 22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10년 3월 22일)
  -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2010년 3월 25일)

###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10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5,504억 3,296만 5천원에서 1,651억 8,082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7,156억 1,379만원 2천원으로 편성
-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918억 327만 1천원, 자체수입 15억 8,483만원, 차입금 -270억 4,900만원, 전년도이월금 988억 4,172만 6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1,533억 3,799만 9천원, 평생·직업교육 7억 8,364만 8천원, 교육일반 110억 5,918만원 계상

###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 4. 심사보고 주요내용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예산편성 개요

-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5,504억 3,296만 5천원 대비 10.7%인 1,651억 8,082만 7천원이 증액된 1조 7,156억 1,37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1,715,613,792	1,550,432,965	165,180,827	기정예산 대비 10.7% 증

#### □ 세입예산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조 7,156억 1,379만 2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1%인 1조 3,403억 9,154만 6천원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8.2%인 1,407억 4,758만 9천원
  - 자체수입이 3.2%인 545억 2,439만 8천원
  - 차입금이 0.1%인 17억 4,800만원
  -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가 10.4%인 1,782억 225만 9천원임

- 이전수입은 1조 4,811억 3,91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인 918억 327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86.3%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3,403억 9,154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791억 3,719만 1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78.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368억 1,56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762억 468만 2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756억 3,367만 7천원, 학교운동장 조성외 3건의 특별교부금이 5억 7,100만 5천원이 증가된 것임
    - 국고보조금은 35억 7,58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25만 9천원 이 증가됨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407억 4,75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인 126억 6,608만원 증가(전체 세입의 8.2%)
  - 법정이전수입은 1,374억 1,06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인 97억 4,808만원이 증가됨
  - 비법정이전수입은 33억 3,697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96.5%인 29억 1,800만원이 증가된 바, 이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나 금번 추경에 청주시의 학교운동장조성사업외 8건의 29억 7,5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자체수입은 545억 2,43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인 15억 8,48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349억 3,365만 8천원, 행정활동수입은 14억 9,393만 원, 이자수입은 95억 5,03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자산수입은 72억 6,07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10억 6,798만 1천 원 증가(전체 세입의 0.4%)
    - 자산임대수입은 10억 3,73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자산매각대는 62억 2,34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7%인 10억 6,798만 1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토지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10억 2,056만원, 건물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3,386만 8천원, 기타유형자산매각이 기정예산 대비 1,355만 3천원으로 각각 증가된 것임
  - 잡수입은 12억 8,57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6.7%인 5억 1,461만 9천원

증가(전체 세입의 0.1%)

- 제재금수입은 1억 3,62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음
  - 잡수입은 9억 5,52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5%인 3억 2,036만 2천원이 증가된 바, 이는 충북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인 기타잡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억 2,036만 2천원이 증가된 것임
  - 과년도수입은 1억 9,42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에는 없었으나 교원명예퇴직수당 환수금 9,499만 8천원, 임대료 및 연체료수입 9,925만 9천원이 증가됨
- 차입금은 17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인 270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육채 미발행에 의한 감소액임
- 기타는 1,782억 2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5%인 988억 4,172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세입의 10.4%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이월금은 1,782억 22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5%인 988억 4,172만 6천원이 증가(전체 세입의 10.4%)
  -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1,781억 9,56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5%인 988억 3,514만 6천원이 증가된 것임

【세입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장 관 항	목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 율	
이전수입		1,481,139,135	86.3	1,389,335,864	92.9	91,803,271	6.6	
	중앙정부이전수입	1,340,391,546	78.1	1,261,254,355	81.3	79,137,191	6.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36,815,692	77.9	1,260,611,010	81.3	76,204,682	6.0	
	보통교부금	1,336,244,687	77.9	1,260,611,010	81.3	75,633,677	59.7	
	특별교부금	571,005	0.0	0	0.0	571,005	0.0	
	국고보조금	3,575,854	0.2	643,345	0.0	2,932,509	100.0	
	국고보조금	3,575,854	0.2	643,345	0.0	2,932,509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40,747,589	8.2	128,081,509	8.3	12,666,080	9.9	
	법정이전수입	137,410,617	8.0	127,662,537	8.3	9,748,080	7.6	
	지방교육세전입금	112,810,000	6.5	112,810,000	7.2	0	0.0	
	시도세전입금	16,469,000	0.9	12,814,920	0.8	3,654,080	28.5	
	학교용자일반회계부담금	8,131,617	0.5	2,037,617	0.1	6,094,000	299.0	
	비법정이전수입	3,336,971	0.2	418,972	0.0	2,918,000	696.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61,972	0.0	418,972	0.0	△57,000	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975,000	0.2	0	0.0	2,975,000	0.0	
자체수입		54,524,398	3.2	52,939,568	2.8	1,584,830	3.0	
	교수-학습활동수입	34,933,658	2.0	34,931,428	2.3	2,230	0.0	
	기본적교육수입	34,524,788	2.0	34,522,558	2.2	2,230	0.0	
	입학금	178,381	0.0	178,381	0.0	0	0.0	
	수업료	34,344,177	2.0	34,344,177	2.2	0	0.0	
	지난년도수업료	2,230	0.0	0	0.0	2,230	0.0	
	선택적교육수입	408,870	0.1	408,870	0.0	0	0.0	
	기숙사 및 급식	408,870	0.1	408,870	0.0	0	0.0	
	행정활동수입	1,493,930	0.1	1,493,930	0.1	0	0.0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493,930	0.1	1,493,930	0.1	0	0.0	
	사용료수입	1,193,818	0.1	1,193,818	0.1	0	0.0	
	수수료수입	300,112	0.0	300,112	0.0	0	0.0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장	관	항 목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비 율	
		자산수입	7,260,771	0.4	6,192,790	0.4	1,067,981	17.2	
		자산임대수입	1,037,362	0.1	1,037,362	0.1	0	0.0	
		임대료수입	1,037,362	0.1	1,037,362	0.1	0	0.0	
		자산매각대	6,223,409	0.4	5,155,428	0.3	1,067,981	20.7	
		토지매각	6,108,586	0.4	5,088,026	0.3	1,020,560	20.7	
		건물매각	76,216	0.0	42,348	0.0	33,868	0.0	
		기타유형재산매각	38,607	0.0	25,054	0.0	13,553	0.0	
		이자수입	9,550,338	0.6	9,550,338	0.6	0	0.0	
		이자수입	9,550,338	0.6	9,550,338	0.6	0	0.0	
		이자수입	9,550,338	0.6	9,550,338	0.6	0	0.0	
		잡수입	1,285,701	0.1	771,082	0.0	514,619	66.7	
		제재금수입	136,236	0.0	136,236	0.0	0	0.0	
		변상금	4,996	0.0	4,996	0.0	0	0.0	
		위약금	102,613	0.0	102,613	0.0	0	0.0	
		연체료	17,827	0.0	17,827	0.0	0	0.0	
		과태료	10,800	0.0	10,800	0.0	0	0.0	
		잡수입	955,208	0.1	634,846	0.0	320,362	50.5	
		기타잡수입	955,208	0.1	634,846	0.0	320,362	50.6	
		과년도수입	194,257	0.0	0	0.0	194,257	0.0	
		기타잡수입	194,257	0.0	0	0.0	194,257	0.0	
		차입	1,748,000	0.1	28,797,000	1.9	△27,049,000	100.0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1,748,000	0.1	28,797,000	1.9	△27,049,000	100.0	
		지방교육채	1,748,000	0.1	28,797,000	1.9	△27,049,000	100.0	
		금융기관차입금	1,748,000	0.1	28,797,000	1.9	△27,049,000	100.0	
		기타	178,202,259	10.4	79,360,533	5.1	98,841,726	124.5	
		전년도이월금	178,202,259	10.4	79,360,533	5.1	98,841,726	124.5	
		순세계잉여금	178,195,679	10.4	79,360,533	5.1	98,835,146	124.5	
		순세계잉여금	178,195,679		79,360,533		98,835,146		
		보조금사용잔액	6,580	0.0	0	0.0	6,580	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580	0.0	0	0.0	6,580	0.0	
		자차단체보조금사용잔액	0	0.0	0	0.0	0	0.0	
		합 계	1,715,613,792		1,550,432,965		165,180,827		

## □ 세출예산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1조 7,156억 1,379만 2천원으로, 이를 부문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10.5%인 1,533억 3,799만 9천원이 증가된 1조 6,082억 677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93.7%를 차지하고 있음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9.7%인 7억 8,364만 8천원이 증가된 34억 2,444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음
  -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1.9%인 11억 5,918만원이 증가된 1,039억 8,257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와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 및 사기 진작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154억 580만 8천원이 증가된 9,751억 5,385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6.8%를 차지하고 있음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51.0%인 467억 1,707만 6천원이 증가된 1,383억 2,369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교육과정개발운영 3개 세부사업에 56억 4,848만 8천원 증액
    - 수업지원장학활동 2개 세부사업에 1억 3,999만 9천원 증액
    - 연구시범학교운영 3개 세부사업에 2억 7,100만원
    -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2개 세부사업에 4,355만원 증액
    - 유아교육진흥 6개 세부사업에 97억 1,368만 5천원 증액
    - 특수교육진흥 3개 세부사업에 9억 5,855만 7천원 증액
    - 독서교육활성화 3개 세부사업에 2억 526만 3천원 증액
    - 외국어교육 5개 세부사업에 41억 5,887만 4천원 증액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3개 세부사업에 8억 1,714만 2천원 증액
    -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1개 세부사업에 4,333만 5천원 증액
    - 전문계고교육 3개 세부사업에 24억 5,816만 5천원 증액
    -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2개 세부사업에 2억 6,785만원 증액

- 체육교육내실화 3개 세부사업에 131억 1,207만 4천원 증액
  - 특별활동지원 8개 세부사업에 41억 1,196만원 증액
  - 수련및봉사활동 4개 세부사업에 6,615만 3천원 증액
  - 학생생활지도 2개 세부사업에 18억 7,086만원 증액
  - 대안교육운영지원 1개 세부사업에 8억 5,697만 8천원 증액
  - 학생상당활동지원 2개 세부사업에 7억 2,038만 1천원 증액
  - 학력평가 2개 세부사업에 11억 9,354만원 증액
  - 학교평가관리 1개 세부사업에 151만원 증액
  - 학생선발배정 1개 세부사업에 3억 752만원 증액
  -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개 세부사업에 4,920만원 증액됨
- 교육격차해소는 기정예산 대비 41.5%인 224억 1,274만 2천원이 증가된 764억 1,852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저소득층 학비지원 19억 9,762만원 증액
  - 저소득층 급식지원 11억 3,061만원 증액
  -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188억 3,074만 2천원 증액
  - 교육복지투자지원 4억 5,377만원 증액됨
-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55.0%인 107억 4,999만 1천원이 증가된 302억 8,164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보건관리 26억 2,227만 4천원 증액
  - 급식관리 79억 7,493만원 증액
  - 각종체육대회활동 1억 5,388만 7천원 증액됨
-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50억 9,808만 4천원이 증가된 2,568억 3,995만 8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학교운영비지원 40억 6,463만원 증액
  - 사학재정지원 10억 3,345만 4천원 증액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67.7%인 529억 5,429만 8천원이 증가된 1,311억 8,909만 8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및 부대시설 증축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에 111억 8,379만 2천원 증액

- 학교시설증개축, 다목적교실, 장애인편의시설, 학교일반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한 학교일반시설에 127억 6,202만 2천원 증액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90억 848만 4천원 증액됨

○ 평생 직업교육 부분의

-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29.7%인 7억 8,364만 8천원이 증가된 34억 2,444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억 5,043만 1천원 증액
  -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운영 1,518만원 증액
  - 독서문화진흥 6억 1,803만 7천원 증액됨

○ 교육일반 부분의

-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7.5%인 51억 6,354만 4천원이 증가된 347억 635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 교육정책기획관리 2개 세부사업에 4억 1,860만원 증액
  - 교육정책홍보 1개 사업에 4,420만원 증액
  - 감사관리 2개 세부사업에 594만원 증액
  - 기관평가 1개 세부사업에 1억 850만원 증액
  - 교육행정혁신 1개 세부사업에 1,205만 4천원 증액
  - 의정활동지원 2개 세부사업에 1,940만원 증액
  - 교육행정정보화 5개 세부사업에 12억 2,639만 2천원 증액
  -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1개 세부사업에 5,403만원 증액
  -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1개 세부사업에 806만원 증액
  - 비상대비계획및보안 2개 세부사업에 996만 2천원 증액
  - 재무관리 5개 세부사업에 30억 1,558만 6천원 증액
  - 학생수용계획 1개 세부사업에 8,000만원 증액
  -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1개 세부사업에 1억 1,544만원 증액
  - 시설사업관리 1개 세부사업에 433만원 증액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개 세부사업에 4,105만원 증액됨
- 기관운영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17.8%인 43억 1,372만 5천원이 증액된 285억 8,178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교육위원회,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기본운영비 8억 5,474만 6천원과 교육행정기관시설 34억 5,897만 9천원이 증액되었음

○ 성질별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가 8,088억 4,261만 8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47.1%를 차지하고 있음(정규직보수,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 물건비는 750억 5,898만 9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4.4%를 차지하고 있음(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교육위원회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 이전지출은 1,449억 6,109만 5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4%를 차지하고 있음(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출연금)
- 자산취득은 2,095억 9,279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2.2%를 차지하고 있음(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기금적립, 투자교육지원사업비)
- 상환지출은 184억 9,182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1%를 차지하고 있음(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민자사업지급금)
- 전출금등은 4,395억 6,702만 2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5.6%를 차지하고 있음(일반회계전출금, 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 예비비및기타는 190억 9,945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1.1%를 차지하고 있음(예비비, 반환금 및 기타)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분야	부분	정책사업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교육			1,715,613,792	100.0	1,550,432,965	100.0	165,180,827	10.7
		유아및초중등교육	1,608,206,774	93.7	1,454,868,775	93.8	153,337,999	10.5
		인적자원운용	975,153,855	56.8	959,748,047	61.9	15,405,808	1.6
		교수-학습활동지원	138,323,692	8.1	91,606,616	5.9	46,717,076	51.0
		교육격차해소	76,418,522	4.5	54,005,780	3.5	22,412,742	41.5
		보건/급식/체육활동	30,281,649	1.8	19,531,658	1.3	10,749,991	55.0
		학교재정지원관리	256,839,958	15.0	251,741,874	16.2	5,098,084	2.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1,189,098	7.6	78,234,800	5.0	52,954,298	67.7
		평생-직업교육	3,424,442	0.1	2,640,794	0.2	783,648	29.7
		평생교육	3,016,426	0.2	2,232,778	0.1	783,648	35.1
		직업교육	408,016	0.0	408,016	0.0	0	0.0
		교육일반	103,982,576	6.1	92,923,396	6.0	11,059,180	11.9
		교육행정일반	34,706,354	2.0	29,542,810	1.9	5,163,544	17.5
		기관운영관리	28,581,786	1.7	24,268,061	1.6	4,313,725	17.8
		지방채상환및리스크	21,594,983	1.3	21,437,248	1.4	157,735	0.7
		예비비및기타	19,099,453	1.1	17,675,277	1.1	1,424,176	8.1
		합 계	1,715,613,792	100.0	1,550,432,965	100.0	165,180,827	10.7

【세출예산 총괄표(성질별)】

(단위 : 천원)

성 질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15,613,792	100.0	1,550,432,965	100.0	165,180,827	10.7
인건비	808,842,618	47.2	802,110,784	51.7	6,731,834	0.8
물건비	75,058,989	4.4	69,906,371	4.5	5,152,618	7.4
이전지출	144,961,095	8.4	134,874,990	8.7	10,086,105	7.5
자산취득	209,592,792	12.2	116,467,218	7.5	93,125,574	80.0
상환지출	18,491,823	1.1	18,334,088	1.2	157,735	0.9
전출금등	439,567,022	25.6	391,064,237	25.2	48,502,785	12.4
예비비및기타	19,099,453	1.1	17,675,277	1.2	1,424,176	8.1

마. 종합의견

-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 변동분,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재원으로 정부시책사업의 대응투자, 교육과정 개발운영, 영어교육 활성화 기반조성, 전문계고 지원확대, 체육교육 내실화 및 특별활동 지원등을 통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해소, 학생수용시설 및 일반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를 통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건전예산 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총 예산액의 78.1%,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총 예산액의 8.2%,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3.2%,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금이 10.5%로써 자산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대폭 증가되는 등 점점 세입의존도가 낮아

지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의 의존수입이 86.3%를 차지하는 등 세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세입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세입재원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2010년도 학교신설사업 국고부담 지방채를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기지원에 따라 기 승인한 지방채 규모를 감액하여 최소한 것에 대하여는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전년도이월금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공무원 총액인건비 제 시행에 대비한 인건비 조정,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유아교육진흥, 외국어교육, 전문계고교육, 체육교육내실화, 특별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력평가, 학비지원, 급식지원,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보건관리, 급식관리, 학교운영비지원,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교육행정정보화, 재무관리, 교육행정기관시설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학생수용시설확충과 학교시설증개축 등 학생 및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10. 3. 26.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서수웅 서수웅

간사

김병우 김병우

위원

김부웅 김부웅

성영용 성영용

이상일 이상일

정무 정무



(별첨 9)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일 시 : 2010. 3. 23.(화) 10:00

·장 소 : 소위원회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10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의장님이 주재를 해야겠지만 일신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교육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 청원교육청 이봉원 교육장님, 보은교육청 고웅식 교육장님, 옥천교육청 이은자 교육장님, 영동교육청 임영빈 교육장님, 그리고 같이 수행해 주신 각 과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교육장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이봉원 교육장님, 또 임영빈 교육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 중에 도교육청과 6개 직속기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 계획은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일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엄밀하게 파악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님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간에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자리 형편상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망의 봄, 돌아나는 새싹이 온 누리를 울렁이게 하여 따스한 감동을 자아내는 향긋한 오늘입니다.

21세기를 열어 가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학생의 개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선생님이 존경받는 교육풍토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

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매진하시는 김부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또한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한해 우리 충북교육은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 공교육으로 기초학력을 신장하고 미래 대비 창조교육을 위하여 과학교육을 내실화함은 물론 정보화, 국제화 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인재육성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실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학부모, 교직원, 주민들 곁에서 다양한 요구와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신 결과이므로 5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고되는 각 지역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미래 한국사회를 주도할 충북교육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육가족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알찬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신우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 진행순서 및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의 순으로 하겠고요 기관별 일반현황이나 지역교육청간에 서로 비슷한 공통 사항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청별로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모두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청 신우인 교육장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육청, 청원교육청, 보은교육청, 옥천교육청, 영동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 참 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 계획 보

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 신청에 따라서 전체 위원님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전부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위원님 1인당 10분 이내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책임을 맡고 계시면서 학력제고라든지 인성교육, 또 건강문제 등 모든 것을 부모 이상으로 애쓰시는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 뭐 각 교육청마다 대동소이한데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 몇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력제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신데 실제 정말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것 좀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길러놓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 부

모들은 서울로 보내고 어디 대전으로 보내고 다 보내거든요.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서울로 많이 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로 많이 보내고 이러는데 그걸 좀 막아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명문학교 가서 잘 돼가지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제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천만 해도 최우수 학생들 한 10명까지는 거의 다 외지로 다 나가요. 선생님들이 애써도 안돼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지금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많이 제한을 해주셨는데 가장 주체인 그 체육교사들이 사기가 팍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 지도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범범이라면 범범이거든요. 어떤 경로는 한 예를 들면 아이들 버스 빌리고 해 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와서 시험 때나 어디 가서 전지훈련을 가면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해주지 못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데 이거 사실 범범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교육장님들께서 재원을 마련하시든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래 되면 학교체육 전부 다 망가

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 하나 각 학교 교육청마다 1학생 1봉사활동이나 청소년단체 가입 관계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청소년단체 가입률이 한 30%에서 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 외에 학부모나 주위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단체에 1학생 1단체 가입만 활성화된다고 하면 애들 나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개네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하더라도 가서 밥 주는 데 하지말고 주식도 지네들이 한번 해서 설은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물론 선생님들은 반대하시겠죠 지도 선생님들. 일단 단체 갖다 맡겨놓으면 그쪽에서 거기서 다 관리를 해 주니까 괜찮은데, 그 부분은 실제 아이들이 피부에 닿는 청소년단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부모단체 활성화 관계, 앞으로 학부모단체 활성화를 지금 교과부에서 지시를 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안을 해서 지금 어머니회라든지 아버지회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 비법정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같이 다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학부모단체를 활성화하게 되면 학교가 굉장히 편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학교를 아껴주는 방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머리를 모아서 해 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늘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관계 애를 많이 써 주시는데 그 부분도 지역에도의원이나 시의원 같이 협조하셔서 가능한 한 많이 학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는 돈만 달라고 그러냐고 지방단체장들 얘기가 늘 그렇거든요. 그러나 실제 그 지역에서 지방세 가지고 내는 사람이 누구냐. 학부모들이 내는 건데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주시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은 인성교육에서 청소년단체 꼭 좀 활성화 좀, 올해 연초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각 단체의 지도교사들이 없어요. 또 지도교사 하려고 해도 교장선생님이 반대하는 곳도 있고, 그것을 많이 이해시켜서 한 학생이 하나씩 꼭 좀 들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통놀이에 대한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양궁 같은 거 많이 하지만

##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은 국궁도 있어요. 제기차기라든지 널뛰기라든지 비석치기라든지 지금 요새 아이들이 옛날 했던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해왔던 그 부분을 좀 발굴하셔서 아이들이 전통놀이 하면서 옛 선조들이 어떻게 하고 놀았나, 어떻게 인성이나 성장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 하는 것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급식 관계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실제 교장선생님들 식당 주인이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지금 제시돼 있습니다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의 활용과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랄까 혹시 몇 가지 두서 없이 부탁 말씀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들어가겠습니다.

아마 해마다 이맘 때 이런 자리를 마련

하는 것은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라는 그런 데서 차질 없는 업무수행을 하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청주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을 피우는 희망 청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우인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3쪽에 보시면 평생교육기관 현황이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것을 보니까 지난해에는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자 해서 합계가 2,997개소였는데 금년 2010년도에는 합계가 3,293개소로 무려 296개소 약 300개소나 늘어났는데 1년에 청주시에서 평생교육기관이 약 300개가 늘어났다는 것은 평생교육기관간에 출혈 경쟁이 일어나서 앞으로 좋은 현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내비둘 건지, 아니면 대책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학원과 교습소에 관한 것은 아마도 사교육하고 직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와는 반대

현상으로 학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2010년도 1월 1일 현재 조사 내용인데요 학원 시간 제한에 관한 그 발표가 난 후에는 지금 학원은 폐쇄 학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300개가, 작년도는 300개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아마 그만큼 정도는 폐원, 폐쇄시키는 학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학생들이 학원을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지금 걱정하시는 거 같이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 정무 위원

어떤 제재를 한다고 그럴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조금. 그냥 내비두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규제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걸 신고서만 웬만큼의 시설만 갖춰놓고, 허가제로 돼 있기 때문에 별 방법이 없습니다.

● 정무 위원

이거에 대해서 뭔가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그렇게 한번 저희들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법적인 규제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 아마 정부 차원에서 규제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 정무 위원

이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죠?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애로가 많습니다.

● 정무 위원

너도 나도 한다고 늘어나니까.

너는 하지말고 나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님, 작년에 질의한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 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장님께서 첫째도 학력제고, 둘째도 학력, 셋째도 학력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부터 교원평가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앞으로 공부를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교단에 아마 서지 못하게 불명예스럽게 퇴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2월 학업성취도 발표 이후 기대 이하의 성적부진으로 시민이나 학부모들이 공황에 빠져있는 것 같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발표한 결과 학업성취도 결과가 지난 1년 불명예를 떨치고자 온 교육가족 모두가 몸부림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력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하려면은 수업연구발표대회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누차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연구발표대회에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행정가이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장학관님들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사들의 그 안일한 태도, 그 안일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교감이나 장학사를 선발할 때는 그런 수업스타를 우대해 주는 쪽에서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입상하지 못한 교사는 결격사유로 넣어서 제재를 시키는 쪽으로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10쪽에 보니까 수업스타 선발에 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교육청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선대회를 4월에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 교육청 청주 예산은 이 사업에 예

산이 얼마쯤 들어 있나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교육청 신우인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100만원 단위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4월달에 실시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게 이제 도교육청 사업인데 예산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그리 크지 않고요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선대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학교에서 추천 받는 것을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선 대회도 없이도 대회를 하느냐. 뭐가 잘못된 것 같더라구요.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런데 그 예선대회는 지금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천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타 선생님들의 어떤 문제 제기 때문에 아마 예선대회를 실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예선대회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데

그 100만원 단위 예산 가지고 그 많은 교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될 걸로, 수업에 대한 심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래서 심사위원들은요 저희들 장학사 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옛날에 수업스타에 입상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꾸리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심사위원을 많이 확충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테고 또 그 자기 수업 녹화 장비가 많이 구비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녹화를 해서 저희들이 테잎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충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2차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국 소년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금년 제39회 전국소년체전이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3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32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31개 모두 107개의 메달을 따서 전국 4위라는 위력을 달성해 학생들에게는 물론 155만 충북 도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값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청주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1개로 모두 41개의 값진 메달을 땀습니다.

충북에서 딱 메달 107개 대비 38.3%인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교육장님은 이 메달 획득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또 앞으로 금년 39회 전국체전에서 전망은 어떤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 교육장 신우인입니다.

작년도에는 큰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한 개만 더 땀으면 3위 입상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보다는 올 소년체전이 더욱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각 소년체전 전에 일어나는 각종 대회에서 우리 충북 소년 소녀들이 많은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평중 학교에 있는 이해영 학생이 역도에서 3관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왕을 따고 또 지금 청주교육청에서는 목표를 금메달을 12개에서 15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9회 소년체전이 더욱 성적이 향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충북 인구의 약 42%가 청주시 인구라고 볼 때 학업성취도 평가가 되었던 체육대회가 됐든 청주교육청에서 잘해야 우리 충북 도가 사느냐 죽느냐 결과가 이런 나을 것 같아서 청주 교육장님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과 야김없는 지원으로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은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주요업무를 보면서 이거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일품 보은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은 하면 정일품 소나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일품은 정일품보다 신분이나 뭐랄까 벼슬이랄까 좀 낫죠. 정일품 위인데 정일품 보은교육 하면 보은의 특성을 잘 나타내서 정일품송을 생

각하는데 정일품 하나까 정이품보다는 정일품이 아무래도 상위니까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 뜻에서 정일품 보은교육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정이품이라면 보은교육하고 연관이 되는데 정일품은 좀 이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전임자가 한 것 같은데.....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응식

보은 교육장 고응식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품 보은교육은 우리 보은 지역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정이품송보다도 더 높고 고귀한 품위를 갖게 하고 고품질의 교육을 실현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은교육을 이뤄보자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지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에 보은 가면 정이품송 생각을 하지 정일품 생각을 안 하는데 이 표지에 정일품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보은교육하고 정이품송하고 연관이 되었으면, 정일품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응식

연구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청주 교육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은에서도 금메달 하나, 은메달 4개, 5개의 메달을 기록했는데 정말 조그마한 고장에서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사가 금메달 선수를 한 명 육성하는데 평생에 한 사람 나오면 그 체육교사는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금메달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보은 교육장 고웅식입니다.

저희 보은은 롤러스케이팅하고 사격을 주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39회 소년체전에서도 지금 롤러스케이팅에서 지금 1개 이상의 금메달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못하지 않고 작년 수준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학생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보은은 인라인으로 옥천은 양궁, 영동은 역도가 효자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좀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 가지고 남부 3군의 특기 종목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은에 있는 롤러스케이팅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국제규격이 바뀌어서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연습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기 한 2주 전 정도에는 청주에 와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들이 시설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는 거는 일반적인 연습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격이 바뀌기 때문에 경사도라든지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이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좋은 성적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고맙습니다.

● 정무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제 생각이긴 잘됐다 잘못 됐다가 아니라 60쪽에 보편은 특색사업으로 지금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했기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보은하고 괴산중평교육청에서 이제 그 농촌에 학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통합하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색사업으로 적당한 건지 당최 이상하네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보은 교육장 고웅식입니다.

이게 전국에서도 처음 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충북에서도 보은하고 괴산하고 두 군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생각해서 거기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희들도 특색사업이라기 보다는 전국적으로 봐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울만큼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학교가 자꾸 소규모가 돼 가지고 이 학생들을 한 군데 모아서 가능한 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 정무 위원

괴산중평교육청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보은교육청이 다 순탄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무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옥천교육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시·군교육청의 홍일점으로 옥천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은자 교육장님과 옥천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성과 감성의 웅달샘 옥천교육을 추진하는 주요업무 계획을 접하면서 본 위원은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9년까지만 해도 주요업무 특색사업이 구태의연한 것으로 본 위원이 옥천교육청 재직 시 전임자에게서 물려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그 동안 교육장님 여섯 분이 바뀌었는데도 바꾸지 못한 걸 금년 2010년 주요업무의 특색사업이 모두 새롭게 바뀌었음을 보고 옥천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색사업으로 선정한 독서체험, Vivid English 체험, 끼리끼리 전통놀이를 배경으로 선정한 사업내용을 선정한 그 배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옥천 교육장 이은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저희 옥천교육청 특색사업이 변함없이 있는 것을 보고 올해는 그야말로 옥천지역에 맞는 옥천 학생과 학부모와 지역주민에 맞는 특색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한 끝에 저희 학교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저희 교육청 장학사, 또 담당 양 과장을 같이 네 번의 워크숍을 진지하게 거친 후에 우리가 미래를 여는 희망찬 옥천교육이라는 것도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주제부터 큰 타이틀부터 지성과 감성의 웅달샘 교육으로 그걸 바꾸자고 그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네 번 이상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옥천에 가장 중요한 독서가 그야말로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옥천 학생들한테 매우 첫 번째 되는 이런 주제가 아닌가 고민을 해서 작년에 이어서 이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정해봤고요, 그 다음에 남부영어체험센터가 저희에 있습니다. 영동, 보은, 옥천을 6학년, 올해는 5학년까지 영어를 갖다가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도 옆에 있기 때문에 영어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 어떤 학습보다는 생생한 Vivid라는 말은 생생한 그런 체험을 실제 학생들에게 시켜서 영어의 실력이 만족하게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그런 길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양하게 어떠한 노래라든지, 어떤 상황 놀이라든지 그밖에 영어캠프를 활성화하는 예산 지원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끼리끼리 전통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아까 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잊혀져 가는 그런 전통놀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또 일선 주민과 학부모형과 교직원과 학생이 끼리끼리 같이 굴렁쇠도 굴리고 그 다음에 제기도 차고 연도 날리고 공도 같이 차면서 지역사회와 같이 전통놀이를 계승하면서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인성도 같이 겸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세 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정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교육장님 임기가 1년 아니면 2년이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 3월에 발탁되신 청원, 영동 교육장님도 전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용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확고하시다면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시대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고쳐놓고 이렇게 떠나야 그 다음 후임자가 실천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원교육청과 영동교육청은 교육장님께서 업무 맡으신 지가 한 20일 조금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넘었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열심히 파악을 잘 하셨으리라 믿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신 위원님.

예, 서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지역 교육의 비전을 담으신 계획서를 보면서 교육장님들의 철학도 볼 수 있고 그 동안에 직원들의 노고도 다 함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묻기보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서 합의된 대전제로 우리는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을 기르는 충북교육의 지표로, 억지지만 능력과 품성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정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편안하게 우리 얘기를 해보죠.

이게 학생들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교육장님들하고 우리가 이뤘을 때 보면 능력은 좀 부족하다면 동료나 부하직원에게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그죠? 품성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품성은

더군다나 어렸을 때 길러줘야 된다고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역교육청 행정감사 다닐 때마다 애들 품성교육 잘해 주십사 했었는데 혹시 가지 많은 나무 청주교육청 혹시 학교 단위로 흔히 요새 얘기하는 왕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이나 전학을 한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작년 학년도에 있습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서너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는 아마도 학업성취도 평가 관계 때문에 인성교육이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조화롭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큰 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성교육이고 하나는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더 키워줘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큰 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마 모든 교육청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성도 같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인성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순방을 요사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인성이 바탕이 돼야 그것이 아

마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화로움이 가미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는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인성은 국력과도 같다, 예의는 국력이다 그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서수웅 위원

제가 이런 것을 교육장님들 모두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민원 비슷하게 이런 것을 두 건 제가 받았습시다.

교육장님들 모르게 담당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담도 해봤고 또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부모 측에서는 자기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 가해자를 전부 처벌해 달라는 소리고 학교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한테 원인제공의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양쪽 다 서운하지 않게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겠더라.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다니다보면, 이걸 어떻게 교육장님이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수시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서 아주 원인부터 이것을 지도하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청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마 모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 전학을 하려니까 그 전학도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1건은 해결해 줬고,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잘해줘 갖고 한 건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가해자를 전부 처벌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돼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괜히 그 얘기를 안 들은 것만 못해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교육청 관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인성교육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제가 일회성 어떤 행사성 지도 실적보다는 아이들 학급 단위로 친구사랑의 날 같은 것을 해마다 내가 강조했는데 옥천 같은 경우 영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월1회로 늘려내요. 다른 데는 7월 9일하고 10월 24일 이게 아마도 교육청에 거기 있을 거예요. 10월 24일 애플데이 둘이 사과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문제 있는 아이들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전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친구의 날로 운영해 달라 이걸 내가 했는데 이게 아마 매월 한 번 하는 거는 그 달에 생일 들어 있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자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걸 많이 가는 데마다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왕따 당하는 애는 자기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요. 개랑 가까이 지낼 기회를 안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만들어주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는 차원에서 매 학생 생일 때마다 우정의 날로 해서 전체 학급이 개한테 우정을 베푸는 기회를 줘보자 이런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거 아주 작은 얘기였습니다만은 그런 것 작은 발단서부터 품성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 교육계획 보편은 교육장님들의 철학이 또는 성품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아까 홍일점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딱 보면 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지성과 감성의 웅달샘 옥천교육, 웅달샘이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느낌으로 뭔지 알 수 있어요. 지성과 감성이 막 샘솟는, 웅달샘이 마르지 않는 샘을 얘기하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혹시 웅달샘이라는 말을 찾아서 지표로다 넣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중요한 게 인성이고 품성인데 어떻게 하면은 지금 너무 지식위주로 많이 나갈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감성을 많이 중요시할 때 그 웅달샘, 정말로 웅달샘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정화되듯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옥천교육이 유치원부터 모든 지역민들까지 샘솟는 교육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 서수웅 위원

이런 신선한 용어에 관심도 가고 그런 뜻도 좋지만 제 생각은 교육장님이 명문

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뉘앙스를 관내 선생님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여쭙봤고요, 결론적으로 전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즐거운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면 교육장님들 마음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전도 안 됩니다.

교육장님들 행복한 쪽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요새 개콘을 보면 행복전도사 참 재밌더라구요. “무조건 행복한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행복한 교육을 이끌어주시면 그 교육장님들의 행복 마인드가 교장선생님들에게 가고 교장선생님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리드할 때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염두에 두시고 교육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네,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지금 두 분을 남겨 놓고 저까지 셋인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예,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로 갈음을 하고 저는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상급식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6년도부터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을 시작하고 또 확대해와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앞서가는 수준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의 각 교육청 계획에도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또 금년에 하려고 하는 무상급식 지원을 같은 것을 좀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산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계산하기 쉽게 보면은 학생 1인당 한 1,500원 1식 그것을 200일 한다고 하면은 1인당 30만원 정도 들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 25만 우리 도내 학생들로 치면 한 7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도 단위 도지사라든지 또는 기초단체장들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250억, 시에서 250억, 그러면 우리가 한 250억 이 정도 하면 전면 실현도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데다가 우리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 들지 않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도로포장 1키로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이런 비교도 했던데 제가 얼핏 계산하기로는 한 학교 짓는데 250억이 드는데 지금 웬만큼 필요한 학교들은 다 지었다고 본다면 학교 하나만 덜 지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이 현재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지원율과 소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제가 지원율은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액이 급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셋째 자녀 아이들에게는 초등학생은 1,500원, 그리고 중학생은 2,500, 2,300원인가 2,300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급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인데요 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급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액을 무상급식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의 만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급식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을 좀 고려하고 한다고 한다면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보다는 정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이 지원을 확대하면서 다른 것도 어떤 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화롭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초등은 15.7% 정도가 되고요 중등은 9.6% 정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 김병우 위원

예산은 총 어느 정도 됩니까?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산은 계산을.....

● 김병우 위원

이따가.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예, 알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청원 교육장님.

● 청원교육청 교육장 이봉원

청원교육청 이봉원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청원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읍 미만 그러니까 읍 지역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전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읍 지역까지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9,667명 100% 지원하는데 예산이 약 29억원 정도 되고요, 유치원이 665명 약 53%인데 약 1억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요, 중학교는 지금 일부만 지원을 하는데 500원씩 지원을 하는데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립이 제외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해서 미호중학교도 지원을 할까 합니다.

● 김병우 위원

몇 억 정도 액수로 치면 어느 정도 중학교는. 초등은 29억이라고 하셨죠.

● 청원교육청 교육장 이봉원

예, 29억이고 유치원은 1억 3,000만원.

● 김병우 위원

중학교는 아직 안돼 있고요?

● 청원교육청 교육장 이봉원

3억 정도인데요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보은 교육장님.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보은 교육장 고웅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은에서 초등학교는 급식을 100% 실시를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약 26% 정도가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초·중학교 합쳐 가지고 우리 자체 예산이 5억 5,686만 4,000원 되고요 또 보은군에서 친환경 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억 2,785만 7,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 김병우 위원

옥천 교육장님.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액은 작년에는 4억 4,000, 올해는 9억 5,000입니다.

지원율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영동 교육장님.

● 영동교육청 교육장 임영빈

영동 교육장 임영빈입니다.

영동 관내 초·중·고 해서 급식 소요액이 약 30억입니다.

이 중에 지원하는 액수는 약 8억 300만원 정도 되고요, 무상 급식율은 26.3%가 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무상 급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논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해 주시고 또 주요업무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 중에 그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력신장, 학력제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우리 교육의 중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성교육과 더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 물론 관점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력신장을 필요 없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테고 전국적으로나 우리 지역에서도 중요하게 지금 다루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 학력비교를 작년부터 일제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히 이제 도 단위, 뭐 시·군교육청 단위, 각 학교 단위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긴장도 해오고 신경을 써오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작년에 중하위를 기록해서 교육감님이 사제도 하시고 그랬다가 올해 최상위 등급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전국적인 주목도 받고 인터뷰도 채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왕도가 없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데 충족에 어떤 비결이 있었는가 아마 전국적으로 공급해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 부분에 참 뿌듯하다고 이렇게 보고, 심지어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참 불안합니다.

작년에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걱정들을 나눴었는데 작년에 풀썩 했다고 교육감님이 사죄할 때부터 참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강박관념으로 작용을 해서 그 대비하는 과정에 무리한 긴장이나 부담이 따르지 않을까 하고 불안했는데 막상 또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더더욱 불안합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인성교육, 품성교육이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 중에도 그런 고심이 내비쳤고 또 더더구나 더 불안한 것은 성적이 올라간 이면에 학습흥미는 반비례해서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구나 불안하고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학력도 2000년부터 해오는 피사테스트에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최상위 등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핀란드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도 그 비결을 공급해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 그렇게 교육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교육작용

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정부 들어서서 다그치는 그 학력제고, 이것이 비교육적인 현상들을 유발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가 거기에서 최상위 등급을 하다보니까 마치 1등 하는 아이들이 1등 했다고 뿌듯해하는 것을 넘어 강박관념, 스트레스 이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왔던 방식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계속 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계속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들이 금년에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한 학력신장 대책들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교육장님들하고 생각을 나눠 보고 싶습니다.

청주교육청에 눈에 띄는 것이 학력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법에도 보편은 법안실명제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법안을 발상하고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법안 이름에 반영해서 그 법안 제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인의 명예라든지 긍지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에도 보편은 시책실명제 같은 것이 있다고. 그것은 이제 그 시책을 입안한 실무자의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인터넷실명제 또는 가계 이름 같은 데도 실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마다 어떤 장점이라든지 취지가 있을 텐데 다만 경쟁을 조장하는 방법으로써 이름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일제고사를 경쟁강화 학력신장의 대책으로 이렇게 제도화했을 때, 거명을 해서 창피주기(Naming & Shaming)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성적을 공개하면 경쟁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 역작용으로 이름이 거명돼 가지고 불명예로 돼버리는, 수모를 겪어가고 좀 체면을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래서 그것이 아주 많은 부작용을 나가지고 영국에서는 그런 정도 성적공개, 출세우기 이런 것은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해서 없애 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명제가 일단은 시책실명제 일텐데 그것이 교육시책과 관련될 때에는 단지 책임성 강화를 넘어서서 그런 미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명품수업 파워티칭

평장히 참신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수업스타를 강조하시면서 정말 학력신장의 출발은 명품수업, 좋은 수업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어떤 것이 좋은 수업이나, 좋은 교육이나라고 할 때 저는 결과로 나오는 성적 향상시키면 일단 잘 가르쳤다, 좋은 교육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저는 가장 나쁜 교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싫어하게 만드는 교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좀 올랐다고 해도 결국은 공부를 싫어하게 되면 다 그거 헛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학습흥미도 테스트를 성취도 검사 못지 않게 꼭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 한국이 별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성적 너머의 그들로 학습흥미도 이것이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교육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비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교육, 좋은 수업은 정말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공부하는 것을, 호기심과 궁금증을 일구어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는 가운데 성적은 저절로 올라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것이 그야말로 보약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들을 닦달하고 들볶고

뛰어짜고 저는 그런 방법이야말로 가장 무식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방법은 반짝 효과일 뿐이고 모질게 말하자면 그것은 마약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수업을 과연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이번 겨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주목을 받고 한국 빙상을 배우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은 역대 최고의 성적에 있지 않고 정말 그 선수들이 그 동안에 빙상을 즐겼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빙상을 즐기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어느 사이에 세계적인 기록도 내고 메달도 따는 아이들로 부쩍 성장했다, 이것이 저는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도 거기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아를 만든 오서 코치, 행복한 연아를 만든 오서 코치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다.

오서 코치한테 연아가 맡겨질 때 연아는 물론 세계적인 선수로 자라 있었고 또 거기에 뭐 국위선양도 했던 선수이지만

그 아이는 역시 경쟁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기록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아이였는데 오서 코치는 그 연아를 스케이팅을 즐기도록 만들어서 행복한 연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아가 정말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세계적인 신기록을 내는 아이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도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은 보니까 군 모의고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군 단위 교육장에게 모의고사 시행권이 평가권이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이견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게 법적으로 평가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시험을 자꾸 부가하는 것이 아이들의 의욕을 또는 성취동기를 북돋우는 효과적인 방법이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천은 정말로 작년에 아주 곤혹스러우셨다가 올해는 많이 뿌듯하게 보람을 느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결이 뭐냐, 묻는 인터뷰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 비결을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옥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 조손, 한손, 또 결손 가정이 많고 다문화 학생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력에 대한 기초 기본 그런 진단을 해본 결과 정말로 우리가 인성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기본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이것만큼은 해결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학생하고 학부모, 교사 학교가 정말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촌 우리 옥천 지역 학교에 맞는 그러한 교육활동을 저희들이 피기까지는 학부모들의 그런 학력신장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이 매우 높았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같이 발맞춰나간 게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학습부진 학생들이 흔히 우리가 보면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습의 흥미입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들 눈빛을 보면요 굉장히 반짝입니다.

좋아하고, 왜냐하면 즐겁고 행복에 겨운 것을 옆에 사람도 느낍니다.

그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불우한 학생들을 보면 언제든지 의기소침해 있고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 무조건 인성만 한다고 잘해 주는 것보다는 왜 모를까 하고 진단을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진단을 해보니 어떤 아이는 6학년인데도 구구단을 모르고 어떤 아이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1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은 지적인 수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잘못된 이런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학습의 흥미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것을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맞게 맞춤형으로 한번 해보자, 수준별로. 그것을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는 담임교사가 이 아이를 정말 내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식이라면 애가 이런 수준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우선 이 방면에 글을 몰라서 못 읽으면 글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저희들은 진단을 한 결과 거기에 맞게 교과별로 또는 수준별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활동으로 접근을 시작해서 시간은 좀 많이 걸렸지만 그런 방법으로 혼연일체가 돼서 저희들이 지도한 결과,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저희들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이 성적이 그렇게 1등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비결이라고 하면은 제가 우리 옥천군에 있는 학생들을 내가 죽이라고 생각하듯이 우리 교육 관리자 또는 선생님들께서 또는 지역 주민들께서 학부모들께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열정보다는 사랑, 관심을 앞세운 후에 우리가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 김병우 위원

어쨌든 그것이 특별한 비결은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1등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1등을 하려고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아마 그러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 문제 가지고 너무 1등이었다고 이렇게 막 각광을 받고 여당 대표가 오고 하는 것도 아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한겨레신문 같은 데서는 옥천, 양구 쥐어뜯 1등,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옥천과 양구의 특수학급 입학자가 갑자기 늘었다 1년 사이에, 뭐 이런 분석도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억울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그 부분을 염려를 했던 입장입니다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 일제고사를 할 때부터 이런 부작용이 나올 거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꼴찌를 해도 1등을 해도 사실은 그것은 별 그렇게 교육적으로 호들갑을 떨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옥천을 비롯해서 우리 일부 시·군이 180등 가까운 서열이 나타났을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국에서 1등 한 것하고 4점 차이였더라구요.. 평균 4점. 이 평균 4점은 사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부진아 한 아이만 결시를 시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사실 NCLB(No Children Left Behind:아동낙오방지법)라고 그래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서 부진아 없애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부진아 없애기가 아니고 부진아 숨기기가 나타난다. 이것을 보고서 그 제도를 또 재검토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일제고사를 해서 등위를 메기고 1등이네 꼴찌네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라 꼴찌라고 그래서 다 교육을 망가뜨린 게 아니고 1등 했다고 해서 엄청난 비결이 동원됐던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재고 호들갑을 떨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 본연의 본질에 입각해서 어느 것이 교육

적이나, 정말로 아이들을 보약교육처럼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학력을 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쪽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 김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다음 번에는 20분 질문입니다.

(웃음)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12시 30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2009학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교육청별로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해서 공교육의 신뢰를 제고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은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력이 대단히 신장됐고 그것은 며칠전에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 상위권으로 올라선 그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 동안 관심과 사랑 열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얼마전에 언론사에서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충북 하면 떠오르는 게 교육, 이런 풍토를 계속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1등을 유지하려면 더 긴장해야 된다, 더 긴장해야 된다고 해서 혹시 학교가 너무 긴장돼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모가 경색되는 분위기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즐기면서 공부하는 속에서 하다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분위기를 부드럽게 리드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이유가 학생들도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늘어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폭력이 났다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학교 이미지 내지 지역 이미지에 감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꺼내놓고 그래서 우리가 Wee 스쿨 교육청에서는 Wee 센터 거기서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애들은 Wee 스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게 아니겠는가. 또 진로지도를 제대로 해 주는 게 아니겠는가.

지나치게 학교폭력 같은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공동으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가 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는데 지금 녹색성장, 푸른학교 가꾸기, 친환경적인 학교 가꾸기, 그런데 얼마전에 어느 학교에 작년 재작년 가봤더니 60년, 70년 역사를 가진 학교에 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일이더라구. 나무를 한 그루 심어놓으면 20년만 되면 그늘이 될텐데 6,7십년 된 학교에 학생들 한 3,4십명 모여 앉아서 있을 그늘이 없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교장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나무를 자기 취향대로 옮기고 베어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 그루에 200만원, 300만원 소나무 별로 크지도 않은 거 누가 기증했다고 써 붙여 놨더라구. 그래서 내 생각에 나무는 자기

취향대로 옮겨 심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나무가 공공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 잠시 관리자로서 있다가 떠나는 겁니다. 내 안목에, 내 교육철학에 안 맞는다고 나무를 자꾸 베 대니까 학교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뒤늦게 나무심기 해서 학부모들한테 자꾸 기증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묘목을 갖다가 빈터에다가 자꾸 심어서 키워서, 애들한테 키우는 것도 가꾸고 그렇게 해서 푸른 숲을 가꾸면, 몇 년 전에 제가 대구에 가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시장님이 대구시가 전국에서 제일 덥고 춥습니다. 그래 그 방법의 하나로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즌에 가니까 대구시의 여름 온도가 3도가 낮아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도 에어컨 맨날 틀고 하느니 그 좀 숲이, 좀 있으면 아이들이 오후에도 나와서 놀고 이렇게 우리가 방과후 학교 같은 것도 하다보면 그런 자연친화적인 그런 데서 했으면 해서 교육장님들이 가능한이면 교장회의 때 같은 때, 있는 나무 자꾸 옮기다보니까 죽어요. 충주 시내도 그 좋은 숲을 몇 분이 다 베어낸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조금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뉴질랜드 갔더니 개인이 심은 나무라도 8미터 이상이 돼서 자르려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배워서 푸른 숲이 잘 넘실대는 학교 교정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교육장님들 좋은 행정 펴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인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참으로 없네요. 준비된 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보고회가 5대 교육위원 개원한 다음에 네 번째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 또 협조로 업무계획 보고 체계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면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자, 또는 예산편성, 시기까지 밝힌 곳도 있었습니다.

또 흔하게 사용되는 외래어, 신조어 이런 것들이 많이 절제된 흔적도 볼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교육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11개 지역교육청에 거의 업무가 다를 것이 없고 다 비슷한 도교육청 업무계획을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점사업

이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청마다 세 가지, 네 가지씩 준비했는데 한 가지씩만 제가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청주,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질문만 할게요.

제가 작년에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전부 영어 일률로만 전부 돼 있는데 인적자원이 많이 있으니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다른 나라 것도 좀 해보자는 주문을 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청주교육청 신우인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의 자율경영에 의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지금 일본어, 중국어가 지금 중학교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교에도 지금 교육과정 내 방과후 활동에 중국어, 일본어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글로벌 시대니까 다른 나라말도 좀 배울 수 있도록, 인적자원들이 쪽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교육청에 작년에 제가 유아교육 계획이 잘 돼 있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금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년도 단설유치원 추진되는 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청원교육청 교육장 이봉원

청원교육청 이봉원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옥산 유치원 단설화 추진하다가 지금 도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 옥산에 유아원, 유아 아이들 수, 그리고 인구 동향을 봐가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그렇게 하세요.

옥산 그쪽에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의회에서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여론을 잠재워서 양질의 교육을 시킨다는데 좋은 시설에서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보은교육청 정일품 교육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일품 정신이 반영된 계획이 어디 있나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보은교육청 고웅식입니다.

정일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정이품송보다는 상위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큰 개념으로다가 보은교육의 큰 주제로다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는 그 어느 한 종목에 국한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고장에서 3

학년 교재에 보면 우리 고장의 생활 반영에서 9쪽에 보면 지은 감은 보은 해서 보은이라는 말이 거기에 대두가 되고요, 또 장갑초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활용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우리 전통교육, 그리고 인근 학교와 합동교육, 저희들은 소규모 해서 학교규모가 보통 30명, 40명 이렇습니다. 교육과정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러한 소규모를 세 개 내지 네 개씩 학교를 묶어서 통합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은정신 교육으로다가 여기에 예절교육이라든지 다도교육이라든지 또는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마다 정일품 교육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잘 알겠습니다.

옥천, 지성과 감성의 웅달샘 교육, 두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영동, 근본을 이어가는 영동교육, 이 근본을 찾으려면 사람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세 가지 특색사업을 보니까 명품수업, 감고를 사랑, 마음의 거울 등 참 근본을 찾고 이어가는 그런 계획이 잘돼 있어서 그 노력에 칭찬을 보내면서, 또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 **성영용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보은하고 옥천교육청 로고 관계, 총무과하고 협조하셔서, 여기 세군데는 청주, 청원, 영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대조해 보시고 로고 사용하시는 것은 총무과하고 협조하셔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 또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종지)

(14시 0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이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계획 보고는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주교육청 정태상 교육장님, 제천교육청 한상운 교육장님, 진천교육청 박시관 교육장님, 괴산중평교육청 이상용 교육장님, 음성교육청 유종렬 교육장님, 단양교육청 윤영식 교육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지역교육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1일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한상운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개최된 임시회 회기 중에 도교육청과 산하 6개 직속기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0년도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된 자리입니다.

오늘 보고하게 되는 주요업무 계획은 1년간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계획이 총 집결되어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그 내용 및 기관별 현황과 현안 문제 등을 파악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나가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교육위원들과 또 교육장님들 간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의 자리가 되어서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하신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충주교육청 정태상 교육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안녕하세요.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입니다.

마이크가 낮아서 앉아서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김부용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지만 지금 우리 교육계는 교육자치의 위기와 교육비리 척결 등의 한파로 다시 겨울이 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항상 교육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의연하게 대처를 해 주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우리 충북교육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위원님들의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불출마 선언이라는 숭고하고 결연한 의지는 십분 이해를 하면서도 아쉬움이 크기만 합니다.

그러나 교육자치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의연히 비운 위원님들의 숭고한 정신은 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이끌어주셨고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시며 인재양성과 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6개 지역교육청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임기 5개월 여 동안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자리에 계시든 늘 충북교육을 관심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 지역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포부와 다짐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지라도 지역교육이 거듭 발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해안과 덕망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충북교육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우리 정태상 교육장님 위로 말씀을 들으니깐 그래도 마음이 많이 녹아드네요.

오전에 참석했던 다섯 분 교육장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정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계획 보고 진행순서 또 그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금 자리에 앉은 차례대로 충주교육청, 또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중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이런 순으로 하겠고요, 말씀하실 때에 기관별 일반현황 및 모두가 공통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및 특색사업만을 중심으로 해서 10 이내로 말씀을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요 기관별로 모두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청 정태상 교육장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진천교육청, 괴산중평교육청, 음성교육청, 단양교육청 순으로 업무 보고)

▶ 참 조 :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 의장대리 김부웅

예, 고맙습니다.

운영식 우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

교육장님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에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조금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5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교육청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의 신청에 따라서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질의를 모두 하신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10분이면 교육청별로 2분씩인데 1분 질문하고 1분 답변해야 되는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문도 대체로 오전과 중복되는 것과 많을 것 같아 여기 계

신 위원님들을 비롯 두 번 듣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교육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입니다.

작년 2월에 학업성취도 발표 후 우리 충북교육이 하위권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어 그 오명을 씻고자 지난 1년 충북교육 가족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 최상위로 반전되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해야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된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업연구발표대회에 교사들의 참여 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은 교육행정가이신 교육장님들을 포함한 장학관,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사들의 안일한 태도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교감이나 장학사 선발시에 수업스타,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입사한 사람을 우선 해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업스타 선발 및 활용에 대해서 각 교육청별로 대개 예선대회를 4월 아니면 5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오전에 청주교육청에 물어봤더니 몇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시·군교육청에서도 그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하려면 심사위원의 확충과 자기 녹화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으로 충당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굳이 부족하면 2차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의 수업기술은 공교육의 사활이 걸린 막중한 문제로 학생들의 학력은 교사들의 수업기술에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수업연구발표대회의 시·군 지역 예선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충주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영어체험센터가 3월 개관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개관은 안 했죠?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개관은 했고 개관식은 4월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게 우리 충북에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청주 본원, 남부영어체험센터, 북부영어체험센터 해서 우리 영어교육이 제대로 틀을 잡은 것 같은데 교육장님께서 북부

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8쪽을 보니까 초임교사 교직소명 축하식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충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 초임교사 교직 소명식을 개최한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교육청에서도 첫 출발하는 초임 교사에게 교사로서 사명감을 심어주는 소명식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충주 교육장님 다시 한번 여러 교육장님들한테 소개해 주는 겸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교직소명식 그 실시배경은 초임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소명의식을 심어주어서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소명식 때 자기가 앞으로 다짐을 하고 이런 내용을 되살림으로써 헤쳐나가는 그런 일환책으로써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44명을 초임 교사가 4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초청하고 또 그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이 평소에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도 상관이 없고 멘토가 돼 줄만한 분들 선정을 해서 앞으로 교직생활을 하면서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도움을 많이 받도록 이런 제도로써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한 후에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는데 열심히 수업기술 향상이라든가 제반 면에서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도 이런 걸 같이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정무 위원

충주교육청의 하나의 전통적인 뜻이 있는 행사인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천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제천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한상윤 교육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다시 재구성하는 등 업무과약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진천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해왔는데 생략을 하라고 해서 자꾸 빼다보니까 어떤 것을 뺐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천교육청 주요업무 47쪽에 보면 특색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교육청의 특색사업이나 역점

사업, 또는 특화사업이 지역과 연계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지역 단체에서 하는 특색사업과 교육청의 특색사업이 일치된 데가 별로 없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하면 농업축제에 대해서 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걸 학교에서도, 지역교육청에서도 동조하는 뜻에서 밀어주는 뜻에서 같이 받을 맞춰나가야 하는데 뭐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애항심도 키워주고 지역 브랜드화 사업과 연관된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천교육청에서는 다행히 지역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천교육청 교육장 박시관

예,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은 교육공동체가 협조함으로 인해서 교육효과가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까 충주교육청에서 소명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임 교사하고 전입한 교사에 대해서 저희 관내 명승지를 공부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

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걸 다녀와서는 교  
직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근무 자세가 달  
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야지만 교육이 되살  
아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운영  
은 예년에도 했던 것이고 올해 새롭게 한  
것이 몇쌍 몇쌍 솜씨짱인데 이것은 교육  
공동체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러한 분들에  
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쌍은 주로 기  
능직을 중심으로 해서 국화를 기른다든지  
또는 분재를 한다든지 석부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10월에 군하고 협조를 해  
서 한번 큰 잔치를 해보려고 그러합니다. 그  
리고 몇쌍은 그 조리원들 대상으로 해서  
음식경연대회를 하는 거고요, 또 솜씨짱은  
학교에 있는 회계직, 회계직 솜씨를 자랑  
하는, 이래서 군 전체가 군 축제와 더불어  
서 교육의 축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  
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교실 운영인데 작  
년 같은 경우 저희들은 진천중학교에 청  
담회라고 하는 자원상담봉사가 있었습니  
다.

그것이 우수해 가지고 교과부장관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것보다는 그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학교 내에서 폭력사고

가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자원상담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같이 교  
육에 참여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 특색  
사업을 잡아왔습니다.

### ● 정무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나  
군에서 자기 지역 특산물 판촉에 굉장하  
열을 내서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  
느라 야단법석인데 교육청에서는 너 뭐하  
느냐는 식으로 뒷집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괴산중평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교육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소규모 중학교 괴산지역 칠성중학교,  
장연중, 연풍중, 감물중, 목도중을 통합하  
는 기숙형 중학교 추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  
지 추진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 ● 괴산중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중평교육청 이상용입니다.

저희들 먼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들  
은 5개 중학교를 통합을 한다는 게 그렇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하는 거 이상으로 어려  
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 출신으로 지역의 학

##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교를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지만은 5개 학교를 통합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를 통합을 추진을 했는데 연풍중학교는 학생수가 61명으로 그래서 그 학교는 통합 대상 학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칠성은 생협 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2013년까지 인구가 3천여 명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칠성은 칠성 독자적으로 살리겠다 이래서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하는 것은 장연중학교가 16명이고 감물중학교가 22명이고 목도중학교 51명, 세 개 학교를 통합을 해 봐야 9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학교 통합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을 부지가 감물면 오송면 일대에 1만 1,000평을 저희들이 동의를 다 받아냈습니다. 측량까지 전부 마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11월이나 12월 중에 토목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도도 지금 일부 상인회에서 왜냐하면 시장에서 조금만 물품 하나 파는 사람들은 학교와 학생의 교육에 관계 없이 그 분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목도중학교, 목도초등학교 응답자들의 70%의 찬성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그네들이 군의원 나오는 분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저기하기 위해서 반대

한다고 해서 간담회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반대할 수도 있다, 첫 번에 찬성을 했는데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학부모가 우리 대상이니까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나는 통합을 해야 되는 찬성의견을 펴고 반대하면 반대의견을 펴라, 그리고 거기서 투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용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학부모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를 공동구역으로 할 겁니다, 공동 학교로.

그러면 연풍 칠성도 향후 전부 같이 통합형 기숙학교에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개 학교는 곧바로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정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음성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여러 번 유종렬 교육장님의 글을 접하면서 본 위원과 공감대가 통하는 것이 많아 읽을 때마다 쾌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참 교육자로서 소상하게 그려주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음성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쪽에 지역과 함께 하는 사랑 가득 마을 공부방 운영에 있어서 음성교육청 달빛공부방 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달빛공부방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야간에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교육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교육청 교육장 유종렬

음성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제가 가서 부임해 보니까 종교단체, 그 다음에 군부대, 그리고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지역별로 야간에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서 일반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9명이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을 지도하는데 월, 수, 목 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희망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6학년은 교육장실을 밤에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작은 회의실에는 5학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씩 해서 6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양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2쪽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단양 특색사업으로 Pie Room 운영을 초등학교 11개교와 중학교 1개교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입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결혼 가정과 맞벌이 부부 이런 집의 아이들을 저녁식사도 주면서.....

● 정무 위원

Pie란 뜻이 뭐예요?

●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65쪽에 세 번째 Pie Room이라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 첫 자리를 모아가고 지식을 서로 나누는 방, 그렇게 해서 아이들 맞벌이 부부 가정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2시간 듣고, 또 알파벳으로 영어를 쓰게 하고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원어민 영어선생도 같이 2시간씩 해주고 그 다음에 독서지도를 해서 읽고 자기 발표력 신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10분밖에 오버 안 하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부의장님과 앞에 하신  
정무 위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고 저는 바  
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2006년도부터 학  
교급식 운동을 좀 같이 참여를 하면서 많  
이 촉구도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일찌감  
치 관심을 보여서 지금 아마 전국에서도  
무상급식율이 높은 편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교육청이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이것을 한번 바로 급히  
좀 산출을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좀 교육청별로 산출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산을 좀 하셔야 된다면 그 사이  
제가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전면 실행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나름대  
로 한번 산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보겠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학생 1식당 1,500원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200일 급식을 할  
때 1인당 한 30만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25만 정도로 잡는다면 연 750억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물론 주먹구구입니다만  
은 그런 예산 규모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도지사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  
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가를 따져보면서 어느 당 후보는  
아스팔트 1키로만 깔지 않으면 그 돈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던 것이 기억  
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광역  
지자체장도 후보들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기초단체장들도 내세우고 이런다면, 그  
것을 같이 분담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은  
학교 하나 짓는 값으로 가능하지 않겠는  
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도 특히 절  
반 가까이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  
에 결심하기에 따라서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산출이 끝나셨으면 충주교육청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급식율과 관련 예산.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급식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

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것을 보면은 9억 5,000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 무상급식율이 10.5% 정도.....

● 김병우 위원

7.5%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10.5%

● 김병우 위원

초등학교?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초·중

● 김병우 위원

10.5%. 제천은 어떻습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운

김병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농산촌 벽지 학교 급식비 지원이 3,800여 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이 1,564명에 5억 4,024만원이고 한 세대 셋째 자녀 급식비 지원이 403명에 1억 1,309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생 급식비 지원이 흥광유치원 5명 해서 10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산출근거나 그렇게 세세한 액수가 아니라도.....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운

대략 보면은 저희가 6억, 3억 8,000이니까 근 1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우 위원

10억 가까이.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운

예, 10억 정도 나옵니다.

● 김병우 위원

급식율은?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운

급식율은 저희들이 여기 학생들이 2,000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1만 6,500명이니까 전체 학생들하고 정확하게 잘 안 되는데.....

● 김병우 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운

농산촌 때문에 지금 바로 안 나옵니다.

● 김병우 위원

진천 어떻습니까?

● 진천교육청 교육장 박시관

진천교육청 교육장 박시관입니다.

저희 관내는 유치원 거의 100%고요 초등 100%고 중학교는 55% 정도 됩니다. 전체 한 69% 됩니다. 예산은 농산촌 급식비가 1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병우 위원

괴산증평 어떻습니까?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괴산증평 교육장 이상용입니다.

[지역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

저희들은 다른 교육청보다 지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치원은 30% 지원율에 5,000여 만원이 되고 초등학교는 79%에 11억 5,3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43%에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4%에 12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피산은 피산 지자체장하고 100%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금년에 100%가 지원이 될 테고 저희들은 피산증평은 증평이 조금 지원이 다른 분야에도 미약한데 거기도 늘려나가기로. 그래서 제가 늘 거기 가서 이야기할 때도 피산을 비교해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피산은 이미 보장이 됐으니깐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음성은 어떻습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유종렬

음성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저희들은 약 한 5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억 8,3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급식율은 어떻게 됩니까?

● 음성교육청 교육장 유종렬

급식율은 무상급식은 10%라고 그러네요.

● 김병우 위원

단양은 어떻습니까?

●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

네, 단양교육청 운영식 교육장입니다.

저희는 무상 급식이 2억 8,56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급식율은.

●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

학교수는 75%고 학생수는 53% 해당이 됩니다.

● 김병우 위원

학생수 대비 53%.

●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

예

그래서 단양은 학생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군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10억 정도만 하면 유·초·중·고등학교까지 점심을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야기를 하니깐 군청에서 꽤히 응낙을 받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 급식이 교육이다라는 것은 이미 1981년도에 학교급식법에 반영이 되었던 내용이고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니만큼 사실은 급식도 의무급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책임하에 줘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이고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히 선거 시기에 이것이 일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 교육관청에서 반대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빠짐 없는 학력신장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여쭙볼 것을 여쭙볼까 합니다.

건강이, 건강이 아이들의 건강이 밥 먹는 양에 비례한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돌팔이일 겁니다.

비슷하게 아이들의 학력이 아이들을 책상 앞에 묶어두는 시간에 비례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는 상당히 무식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교육은 저는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싫어하게 하는 교육이 제일 나쁜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던 것이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이 MB 정부 들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를 싫어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넋더리를 내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은 학력신장이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을 조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뒹달하고 들볶고 쥐어짜고 이렇게 하면서 학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식기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는 거, 학력을 기르는 것 교육의 과제로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쥐어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성과가 학력신장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학력이겠는가. 이것은 아마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심각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반짝 효과일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있죠. 2000년부터 OECD에서 피사테스트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매년 2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것을 부러워한다거나 본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학력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MB정부는 계속 또 학력신장이 문제다, 과제다, 어떻게 해서든 학력신장을 해야 된다. 줄을 세워서라도 들볶아서라도 점수 올리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세계 추세에 비추어서도 이것은 역행하는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 시책이 그러다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꼴찌로 드러나다 보니까 다시 1등을 하기 위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를 써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마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의 교육시책은 사실은 어떤 세계 흐름을 반영하려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금 교육시책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이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충북교육,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국가발전의 지표를 경제성장, GNP, GDP니 이런 걸로 하지 않고 GNH라고 그러던가요.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고 하니 만큼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어떤 행복추구, 이런 것들을 일반 국가발전의 지향점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로 삼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의 교육지표를 그쪽으로 지향을 한 것은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 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에도 보면, 행복한 학교 만들기, 행복한 교실 만들기 많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또는 뭐 주술을 외듯이 행복해라, 행복해라 한다고 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늘이 너무 행복해서 내일이 기다려지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행복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행복한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방법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경쟁을 무한경쟁을 부추기면서 다투고 들볶는 방향의 교육정책이 계속 되는 한 저는 아이들은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올림픽에 우리 국위선양도 하고 그렇게 한 두각을 드러낸 우리 빙상선수들에게서 그 시사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상화 선수니 모태범 선수니 아주 세계를 놀래킬 정도로 그렇게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결코 국위선양이라든지 메달 색깔에 집착해서 그렇게 한 아이들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 빙상을 즐기는 아이였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

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를 기른 오서 코치를 얘기할 때 행복한 연아를 길러낸 오서 코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서 코치가 연아를 맡을 때 김연아 선수는 사실은 그 어머니가 알파맘의 상징으로 이렇게 불리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코치처럼 또는 정말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르고 해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일단 길렀었지만 김연아는 자기 기록에 장박관념을 가지고 또 자기 경쟁자를 의식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서 코치는 김연아 선수로 하여금 그런 기록이나 뭐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고 스케이팅을 즐기게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행복한 연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세계 신기록은 저절로 주어진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도 아이들이 학습흥미를 일구도록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즐기는 가운데 학력은 저절로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교육과정의 방향이나 지도의 방식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별로 학력신장 대책들을 세운 것을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 수업기술고리잇기, 이

것은 아마도 좋은 수업경험들을 아이들에게 흥미를 일구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수업노하우나 아이템들을 서로 공유하고 전수하고 이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기대가 되고요, 또 학생중심 브랜드 수업 이런 것들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천의 으뜸학력 090프로젝트 이것이 부진아를 없애고 또 보통 이상의 학력자들을 90% 이상 올린다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학력관리책임지도제, 이런 것도 나름대로 고심 어린 시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천 교육장님, 요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제천 쪽에 초·중학교 늦은 시간에 야간자율학습이 반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윤

제천 교육장 한상윤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월 초에 금학년도부터 고입이 부활됨에 따라서 중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는 교장선생님들의 관심과 또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어서 아마도 좀 발전적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협의한 이후에 학생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학생들을 야간에 공부방 제공하듯

이, 아니면 특별 프로그램을 부진학생들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도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논의가 됐는데 일부의 학원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 16일날 교장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이 부분은 교육적 측면에서 판단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종래와 같은 획일적인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하는 방법은 이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에게 맞춤형의 방법으로 해라, 또 이번에 전국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학력신장 우수 학교 12개교도 보면 모두가 다 맞춤형 학생지도를 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에 따라서 학교별로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라고 회의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자율학습을 8시, 9시까지 이렇게 아이들 학교에서 붙잡아 뒀다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한 건가요, 학부모님들이 요구하신 건가요.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생각이나 선생님들의 일방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학부모님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통념상 공부를 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열정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방법을 풀어나가는 면에 있어서는 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학부모님들 중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아이들을 책상 앞에 묶어두는 시간에 학력이 비례할 것이다, 성적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선생님들 중에도 학교 관리자들 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윤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윤

저는 교육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충주에서 교장할 시절에도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전망위적으로 실시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학원연합회의 회장단이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나 지난번 제천 단양 지역에는 220명 학원장 연수회가 있을 때제가 가서도 인사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또 한 면에서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 가야 하고 이제는 교육적인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고 윈윈할 수 있는 면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가는데 함께 기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면에서 교육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사교육 시설들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생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력신장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되어서는, 무리하게 되어서는 정말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효율성에 있습

니다. 우리보다 더 피사테스트에서 계속 앞선 핀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 학습량이 우리 학생들의 3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학력이 높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효율적인 학습을 한다는 얘기인데 학습효율성이 높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무식한 요구나 기대처럼 아이들을 그냥 어떻게든 묶어두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부벌레들이 하는 국가고시, 국가고시에 패스하는 고시생들도 하루 8시간이 고시공부시간이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15시간씩 그렇게 간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시간에 학력이 비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학력신장의 지름길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정말로 행복한 교실, 행복한 교육으로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 도의 교육시책에 잘 반영되었듯이 세계의 흐름에도 맞추어서 정말 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후 시책을 펴나가는 가운데 교육장님들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일 위원

여섯 분 교육장님들께서 소상하게 교육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특히 주요업무 수립을 예년보다 더 확실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 특히 교육청별로 특색사업을 지역에 맞도록 잘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우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했다 하는 점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 그 맞춤형 학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업을 내실화하니가 성적이 향상되었다 하는 좋은 성과가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력이 크게 신장이 됐고 그 결과가 지난번에 그 학업성취도 평가 충북교육청 상위권, 이런 좋은 결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뉘던 것을 거울삼아서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뜨거운 열정으로 지도해 준 결과로 생각하고 선생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정상을 지키는 수성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에 올랐으니까 이것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그 문제에 너무 전전공공하시다보면 우리 교육이 파행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해서, 아까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교육을 좀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교육부에서 교장선생님들도 100% 앞으로 교육감님한테 임명하는 게 아니라 초빙제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교육계가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데 교육장님들까지도 일선에 또 학력 올리라고 이렇게 너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시면 자칫 우리 교육계가 너무 경색돼서 조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장님들이 좀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것은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게 결국 학생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학기초에 너무 강압적으로 학교를 압박하지 마시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폭력과 부적응 학생이 자꾸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생기면 학교의 명예나 교육청의 불명예를 생각해서 자꾸 축소하고 이것을 조금 은폐하려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이것을 쉬쉬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드러내놓고 지도하는, 각 교육청별로 지금 Wee 센터가 설치돼 있죠. 그래 거기 상담교사하고 저기 인력이 많이 증원된 걸로 아는데 그것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학교에서는 Wee 클래스, 또 교육청에서 Wee 센터, 좀 더 나아가서는 청명학교 Wee 스쿨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진로지도라든지 폭력문제가 줄어들 수 있도록 좀 각 별히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월, 4월이 식목철이고 나무나 화단을 가꾸는 계절인데 그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취미에 따라서 나무를 너무 뽑아서 옮기고 베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오래된 나무를 베려다가 동문들하고 크게 싸운 일이 있습니다. 70년 된 역사를 가진 학교에 나무가 없다고 나무심기운동을 이제서 한다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나무를 기증

해라 이려고, 그런 얘기를 듣고 70년 동안 나무를 심었을 텐데 학교에 나무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학교에 있는 나무는 교장선생님 개인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십년 된 나무 이런 것을 함부로 베 치우거나 없애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학교를 증축한다든지 꼭 필요에 따라서 베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학부모를 통해서, 동문회를 통해서 나무심기운동을 했는데 자랑을 해서 가봤더니 200만원, 300만원 줬다는 소나무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팻말을 찍 달아봤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나무라는 게 좀 어려서부터 심어서 키워야지 그 비싼 소나무 갖다가 죽으면 몇백만원 손해나는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자투리 땅 모자라는 땅에 친환경적인 녹색 숲을 만드는 것은 권장하나 기존에 있는 나무 같은 것을 베는 것은 좀 신중히 구성원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교장회의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게 있으면 뭐 우리 시력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여름에는 온도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시장이 대구가 하도 여름에 뜨겁고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나무를 300만 그루를 심었더니 그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1년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내려갔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자투리 땅을 잘 가꾸고 거기 나무를 심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해서 푸른 숲이 어우러진 학교를 만들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다 됐는데 10분간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회의계속)

● 의장대리 김부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 있는데요, 시간을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성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 계획을 쭉 봤지만은 대동소이하고 제가 나름대로 느낀 거 몇 가지만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단양교육청, 충주교육청, 음성교육청 여기는, 다른 데는 앞에 로고가 똑같은데 여기는 틀려요.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다 나가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천교육청이나 진천이나 괴산증평 똑같이 이렇게 왜 있어요, 이 로고, 앞에 로고. 틀리죠?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 첫 번째 학력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뭐 사실 나쁘게 얘기하면 뉘달을 하고 많이 격려도 하시면서 애를 써주시는데 그 중학교 때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지역이나 대개 보면 최상위권 아이들이 전부 충북 도내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다 빠집니다. 그것이 빠지지 않고 타 시·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점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 어떻게 하든.

그 아이들이 충북에 있음으로 해서 충북이 더 빛이 나는 거지 다른 데 가게 되면 열심히 가르쳐놓고 중학교 때 기본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 때 아이들 뺏겨놓으면 그만입니다. 제천의 경우에도 제가 늘

봐도 최상위권 애들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요. 그 점 좀 마음을 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에 단양에서 일어났다가 제천에서 또 일어나고 그것이 확대돼서 타 교육청에도 여파가 미쳤는데 체육교사들 비리가 있다 어쩌다 하지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됐는데 이 체육교사들이 각 학교의 지정종목이니 스포츠 활성화니 학교체육 활성화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아이들을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돈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비를 갖다가 약간 변칙으로 사용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일어났는데 이해는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옆에서 볼 때 굉장히 참 범법행위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체육교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육코치라든지 초등학교에는, 거기 배려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교육장님들끼리 전부 모였을 때 같이 한다든지 또는 예산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인성교육에 관한 부분에 지금 가족봉사원 조직 운영과 1교 1봉사활동에

대한 대상 기관 결연사업이라든지 1학생 1봉사활동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학생이 청소년단체에 한두 개씩 꼭 좀 들어가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진천교육청에서는 1학생 1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테마를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정했는데.

같이 해서 한 학생이 한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활동 함으로 해서, 아이들 억지로 시킬 필요 없어요. 또 봉사활동 수련활동 간다하더라도 밥해 주는 데 가지말고 설은 밥도 먹고 탄 밥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교육장님들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호연지기도 기르고 또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의 심성이 그렇게 키워지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생 전 학생 봉사단체 가입하는 거, 올해 학기초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전통놀이가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지역별로 나름대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드린다면 제기차기도 있고, 널뛰기도 있고, 투호도 있고, 뭐 비석치기라든지 연날리기, 굴렁쇠 굴리기, 어렸을 때 놀이문화, 우리 조상들의 놀이문화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

그 지역별로 전통놀이를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어떨까 한번 제안 겸 또 교육장님들께서 마음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서수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저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의를 해주셨기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여섯 교육장님들의 지역교육청의 세계인 육성을 위한 교육장님들의 어떤 철학이나 포부를 담은 계획서와 다짐까지 아까 인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포부가 담긴 이 계획서를 다짐하신 대로 실천만 잘 하셔서 성공적인 교육을 이뤘다고, 연말에 그런 결과만 얻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요 중복교육의 지표인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기쁨에 있어서 김병우 위원님도 애기했고 이상일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신명나게 할 수 있느냐,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

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 보니까 뛰고 나는 놈도 못 당하는 놈이 있다고 그러대요. 들어보셨어요? 뛰고 나는 놈도 못 당하는 사람. 계속 하는 놈이래요. 그래도 요즘은 계속하는 놈도 못 당하는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승자는 즐기는 놈입니다 즐기는 놈, 즐기는 놈은 못 당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다보면 이렇게 아주 비전이 넘치는 계획을 지금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육장님도 이것을 즐겨서 교육에 헌신하셔야 되고 교육장님의 뜻을 받아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즐겨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다면 학급경영도 선생님들이 학급별로 즐겨서 할 수 있다면 즐거운 학교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겠느냐. 정말 교실이 신나고 행복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능력과 품성을 기를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감히 남의 말을 빌려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 관할 모든 교육가족에게 매일 아주 그냥 분에 넘치는 그런 큰 선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존 고든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큰 보물은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랍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 행복한 모

습이라대요. 교육장님께서 웃는 얼굴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교육을 떠나갈 때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리더십은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데서 출발해서 셀프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데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미 리더가 아닙니다.

내가 따르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장님만 보면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기대하게 되고 하시는 언행을 그냥 복종하게 되는 이런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면 그 셀프리더십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셀프리더십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 셀프리더십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리더십을 네트워크리더십이라고 한답니다.

교육장님들 근무하시는 교육청에 직원들 모두 일선 학교 선생님까지 네트워크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행복한 모습, 그리고 즐거운 모습으로 능력과 품성을 길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청,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질의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아까 김병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는 분이 많은데 시간을 오래 두거나 힘든 가운데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예,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의장인 제가 마무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회가 5대 교육위원회 개원 이래 네 번째 열리는 보고회기 때문에 첫 번째 때에는 상당히 교육장님들과 교육위원님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동료 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로 업무계획 보고 체계가 이젠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책임자, 예산편성, 또 추진시기 등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밝히는 이런 교육청도 있고, 흔하게 사용되던 외래어, 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그 신조어 등이 많이 절제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1개 지역교육청이 거의 다 비슷 비슷하고 다를 게 없는 일반 계획이기 때문에 역점사업이나 특색사업 등 이런 데에서 살펴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충주 Good 세계 일류로 도약하는 충주 교육, 지난해 제가 충주교육청에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전부가 영어뿐인데 여기서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없느냐, 하는 시스템 어떠냐 하고 권장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있으면 간단히 소개를 해 주세요.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저희들은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 **의장대리 김부웅**

간단하게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외국어.

●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없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 **의장대리 김부웅**

지금 동남아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많이들 들어와 있으니깐 그런 자원을 앞으로는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천, 힘찬 미래를 여는 제천교육인데 세 가지 특화사업이 여기 있는데 제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제천만이 가지는 특색.

●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운**

제천교육청 한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천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특별한 것은 시청에서 시설 마련을 해줘서 특히 안전 제천, 행복한 제천을 만든다는 차

원에서 교통공원이라는 것을 지금 설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모두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4,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작년에도 거의 다 들어왔고 올해에도 이미 3,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체험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주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효과가 기대됩니다.

진천교육청은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괴산증평교육청, 미래를 움직일 힘을 기르는 교육청인데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상당히 강조를 했던군 그래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소개 좀 간략히 해 주시죠.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읍소재지인 괴산읍하고 증평읍을 제외하면 소규모 학교입니다.

중학교 20명부터 50명 내외, 초등학교 50명 내 이런 학교인데, 그리고 괴산증평하면 원래 옛날부터 인재가 많이 나던 곳입니다.

그래 괴산이 지금은 인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저기 났지만은 현이 세 군데나 있었고, 또 향교가 세 군데나 있는 군이

그렇게 혼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저희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학교라고 한다면 학생들에게 바르게 실력 있는 학생으로 키워줘야 되는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영어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키우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어민을 활용한 초등 영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산군청, 증평군청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9개교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1,2학년은 주당 1시간, 3학년부터 6학년은 주당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재량활동시간이나 방과후 활동 이런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3억 3,000만원, 피산군에서 2억 한 6,000만원, 그 다음에 증평군에서 7,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3억 3,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음성교육청, 지난 해에 유아 단설유치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게 무산이 돼서 참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금왕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진척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 **음성교육청 교육장 유종렬**

음성 교육장 유종렬입니다.

지난해는 제가 9월 1일자로 부임하자마자 단설유치원 설립 관계를 사전 정비작업을 못한 채 추진을 해 가지고서 저도 참 지금까지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왕읍 51개 리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33.4%가 의견조사에 협조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단설유치원을 꼭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약 90%가 넘게 이렇게 설문조사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이장님들 선한 분하고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서 아주 금년에 금왕단설유치원 설립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이제 속을 안 썩여도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따라잡기 글로벌 인재육성이 있는데 여기 제목을 보면서 저의 작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잡기라는 것보다는 그 분의 훌륭했던 학창 시절 본받기, 이런 걸 한번 권장을 해보고 싶어요. 따라잡기라는 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 **음성교육청 교육장 유종렬**

저희들도 제2의 반기문 하려고 하다가 따라잡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의장대리 김부웅

고맙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단양교육, 행복한 작은 학교 꾸미기, 참 매력 있는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요 혹시 사업추진을 해서 외지 학생이 유입되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단양교육청 교육장 운영식

단양교육청 운영식 교육장입니다.

저희 단양군은 이제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가곡초등학교의 대곡분교장에 한드미 마을에서 32명의 어린이가 정문찬씨라고 해서 그곳 출신입니다. 그 분이 어제 그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3,3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의 교육에 투자를 한 그러한 일이 있고 내일 아침 오후 5시 반서부터 40분간 방송에 나옵니다. CJB에서 나오는데 그 한드미 마을하고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의 산외마을 해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10명을 집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촌의 벽지 분교장이 학생수가 다시 되돌아와서 학교를 살려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곡분교장은 학력도 단양군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농촌 유학생은 정문찬씨가 산외마을에서 하고 열심히 참 밤낮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정분교장에서.....

● 의장대리 김부웅

됐습니다.

지금 성공사례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저런 성공사례가 확산되어야 될 그런 자료기 때문에 제가 알고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육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는 보고하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서 적극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청 등 6개 지역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종료)

○ 출석위원 : 6명

부위원장 김부웅,

위원 김병우, 성영용, 서수웅,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11명

청주교육청 교육장 신우인,

충주교육청 교육장 정태상,

제천교육청 교육장 한상윤,

청원교육청 교육장 이봉원,

보은교육청 교육장 고웅식,

옥천교육청 교육장 이은자,

영동교육청 교육장 임영빈,

진천교육청 교육장 박시관,

괴산증평교육청 교육장 이상용,

음성교육청 교육장 유종렬,

단양교육청 교육장 윤영식.



第23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351

## 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375



#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15시 00분

議事日程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0분 개의)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

오늘 우리 회의에는 학원연합회 회장

이신 박재철 회장님 외 7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 HCN 임가영 기자님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출의건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웅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금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성

영용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위원장 성영용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번 두 개 조례안과 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한 바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충북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 2. 간사선출의건

(15시 03분)

###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 전 위원장 선출방법

(15시 05분)

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교육위원 김병우입니다.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 정무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네, 정무 교육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무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준데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소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3. 의사일정결정의건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 ●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의교습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제안이유를 제안설명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번 조례를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로 유·초·중·고로 제한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랄지 취지랄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본 학원운영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육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마치 없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공존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교육의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하나의 교육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마치 사교육을 공급하는 학원이나 또는 학부형들이라든가 또는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을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없애야겠다 그런 정책도 큰 사회의 국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교육을 감축시켜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필요성은 우리 온 국민이 느끼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교육과 공교육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교육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도출되는 것이 엄청난 우리가 학부형님들의 개인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교육을 일면 무력화해서 그 공교육이 무력화함을 어떤 사회적 큰비용으로 충당하게 되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참다운 학력제고가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자발적인 학습태도보다 어떤 지적 우위를 만드는 그런 어떤 학생들에 대한 학습태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고등교육 이후에 학생들이 학력의 학습의 적응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학원이 12시까지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든가 학습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10시까지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학원현행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 시·도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현행 학원법에 근거하여 시·도 조례에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이 10시 교습제한을 담은 요 조례를 본청에서 발의하셨으니까 하신 만큼 꼭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죠?

● 교육국장 이수철

그거는 확실한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신념이십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네.

● 김병우 위원

교육감님께서도 물론 그러시겠죠?

● 교육국장 이수철

그러시겠죠.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이 조례안이 2007년도에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때 그 당시 대선과 같이 치렀던 첫 주민직선 교육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년 딱 반전입니다. 그렇죠.

1년 반전에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10시 교습제한을 푸니까 바로 우리 도에서 학부모들도 교사들도 학생들도 다 바란다고 그러면서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초·중학교는 11시, 고3은 12시 이렇게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때 그랬던 취지는 뭐였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아마 그 당시에는 서울, 부산,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밤12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우리 본도에서도 학원단체 등 형평성문제 제기나 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중학교에서는 현행대로 23시, 고등학교에서는 24시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저는 1년 반전의 도교육청의 입장하고 지금 도교육청 입장하고 완전히 상반되니까 도대체 본심이 어떤 건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관점이 무언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게 본심입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그 시점은 아마 차이가 있겠고 그런 시간 차이는 얼마 되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변경되게 된 거는 국가에서 교육정책이 크게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 **교육국장 이수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2007년 당시에든 그때는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국가청년위가 10시 이후 심화교습을 제한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서울시의회에서 국가정책하고 반대되는 의결을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청은 서울시위원들하고 입장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학부모들이 바란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그때 당시 국가청소년위하고 비슷하고 한나라당 미래기획위원회 거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또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입장입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꼭 정치적인 어떤 논리성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한 교육청의 담당자로서 우리 교육의 사교육문제만은 우리가 교육정책 또는 교육 밖에서 이

루어지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어떤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어느 부분이 교육적인가를 우리 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부 논의에서 제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학습시간 부족보다는 수면시간 부족이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호소하면서 심화교습시간의 제한을 무조건 풀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푸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하셨어요. 하셨다가 그때 본청 실무자들께서 당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학부모들 원하는 분들이 많으니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선택할 여지를 주자 그러는 게 낫다 이렇게 참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시고 있는데 근데 1년 반만에 다시 그걸 뒤집으니까 정말 우리 청이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건지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하자는 건지 이게 정말로 아주 의심스

럽고 미답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아이들의 심야 학원교습이든 학습이든 그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들볶고 닦달하고 하는 것이 교육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한다면, 제가 1년 반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정말 이 판단이 미답했다고 싶은데 단지 그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금방 1년 반전의 입장하고 다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 김부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옆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 김병우 위원

아니 제가 좀 얘기를 해놓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 이후에 상황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바뀌고 시책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또 다르게 실제로 현재에서도 그 심야교습제한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합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그것이 하는 시·도 또 하지 않는 시·도 평등권의 침해다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판결을 한 것 같은데

요.

거듭 말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 그리고 교육감의 의지라든지 교육관 그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 참모진에서도 정말 그런 교육적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정말 교육적입니다 하고 교육감님께도 진언을 하고 그렇게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 우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렇다면 10시 이후의 심야학습은 효율성도 없고 또 아이들 건강권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원단체는 교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수철**

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위원님, 질문 계속하시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원의 문제는 저는 우리 국민의 총체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병우 위원**

아니요, 아니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교육국장 이수철**

이것은 우리 교육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우리 교육자라면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을 갖고 있는 학부형님이나 사회에서나 모두가 이걸 해결해야 할 하나의 커다란 과제이고, 또 우리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사교육을 줄여주는 것이 정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서 우리 사회가 커다란 적폐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사교육 열풍, 광풍의 주범이 학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교육국장 이수철**

그것은 학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이런 것이 요소가 되는 거죠.

문화적인 입시제도라든가 교육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교육을 일으킨 요인이 되는 거죠.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드린 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10시 이후의 학원뿐 아니라 학교수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 **교육국장 이수철**

저는 지난번에 시사진단에서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시사논단에 가서 그 이야기를.....

● 김병우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요. 빨리 답변만 하세요.

● 교육국장 이수철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하는 자율학습은 12시는 괜찮으나 그래서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고등학교에서 밤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것은 말 그 뜻대로 자율학습입니다. 학원에서 11시까지는 수업입니다.

● 김병우 위원

돈을 냈느냐 안냈느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수철

아니 학생들의 긴장도라든가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에 일찍 보냈다고 고등학생들이 10시 이후에 잠니까?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학교에서 좋은 학습 분위기 이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자율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학원에서는 이건 수업이다 수

업을 받는 것하고 이것은 같은 11시라고 해서 어떤 건장의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내용상으로는 다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수업은 10시까지 학교든 학원이든 10시까지밖에 못하니 그 다음에 학교를 개방해 가지고 자율학습 하는 것은 건강권에도 침해가 없고 학습효율도 개념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꼭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고 또 그것이 더 효과적인 학생도 있겠죠.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시로 학원교습을 제한을 해 놓고 학생들은 그러면 언제 하교를 시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제가 알기에는 학교급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교장선생님들 자율에 맡겼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재량에 의해서 아마 지금 초·중학교에서는 정기수업 끝나면 1,2시간 방과 후활동이 끝난 이후에 아마 학교 귀가

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진 아 학생들은 학원도 못 가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학생들 때문에 우리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에서 더 남겨서 아마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일몰 후에 야간에 초·중학교 개방교실 또는 자율학습, 보충수업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무슨 도교육청의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지침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뭐 하든 말든 그냥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그런 방과후학교 프로젝트가 나름대로 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라든가 또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내놓아서 지정학교라든가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개방교실이나 자율학습은 그야말로 학생들의 선택에 자율에 맡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 교육국장 이수철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 내용하고 조금 벗어나면 한이 없으니까.....

● 김병우 위원

아니 내가 묻는데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지 무슨.....

아니 그래서 지금 강제적으로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시는가요?

● 교육국장 이수철

지금 학년초에 그런 우려성도 학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수철

그렇게 해선 안되죠.

강제적으로 하는 건 학습효과도 없는 거고 일단은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도교육청에서도 시·군 교육청에서도 자율학습을 하라 마라 또는 특히나 그걸 강제 자율학습이 되면 안된다 이런 지시는 내렸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그런 지시를 내릴 저기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학교 자율적으로 아마 잘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초·중학교에서 8시, 9시까지 이렇게 심야자율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나 우려도 안하신다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그것이 상황론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정말 농산촌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건이 미비해서. 그런 학생들을 도농간에 학력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싸잡아서 어느 학교는 밤9시까지 남겨놨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건 저기하고, 어느 학교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저기가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제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1년 반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아이들이 효율적인 학습을 하길 바라고 그것이 학교든 학원이든 자기한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밤10시까지 교습시간 제한을 한다하더라도 학교는 또 일몰 때까지 일과를 마치고 그 후에는 학생

들이 자기 계발을 쓰든지 학원수강에 쓰든지 무슨 개방교실을 이용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교육적인 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율권도 쥐 보고, 지금 우리가 사교육을 받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어떤가 하면 우리 학교 측면에서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집에다가 놔두고 마음이 편한가라는 의식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원을 가고 집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공교육이 학원에 갈 학생들은 우리가 방과후에 끝나고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여건이 안되는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 잡아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아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미래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아이들의 건

강권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0시 심야교습제한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대신에 학교도 아이들을 좀더 가두어두려고 그러지 말고 효과도 없는 그런 심야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자기 선택에 맡겨서 풀어서 학원하고 학교하고 같이 경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10시 교습제한이 교육적 의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본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교육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수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두 분이 김병우 위원님과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사이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10시로 단축하는 것하고 11시로 단축하는 것하고의 어떻게 차이가 어디 있나요? 1시간 차이인데.

● **교육국장 이수철**

아마 지금 학교급별로 고등학생들은 11시로 하고 그 다음에 초·중학생들은 10시로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신체적인 발달단계로 봤을 때 그것이 아마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부웅 위원**

적정선으로 보신다.

사실은 우리 공교육에서 다 이루어졌으면 사교육이 발달될 이유가 없었죠.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이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내려오고 또 자체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공교육을 옆에서 같이 보좌해 주던 사교육기관들이 위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왜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강화되어서 밖으

로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선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교육기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방청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건강문제 또 유해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기대가 됩니다만, 사교육기관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사교육기관이 아닌 개인과의, 정말 사교육이 횡행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앞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전혀 교습시간의 제한이 없는 고액과의 이게 그전에 한번 병폐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성행될 수 있고 또 불법과의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논란을 가지고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걸 가지고 따지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토론이 안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를 잠시 정회해서 우리 다뤄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이걸 다뤄야 할 것이냐를 한번 간담회에서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가 건의합니다.

#### ● 위원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사 정무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님하고 김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염려스러운 것이 타 시·도는 전부 10시로 하는데 우리만 12시로 고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타 시·도에서는 전부 12시로 하는데 우리만 10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문제는 좀더 타 시·도를 하는 걸 지켜봐서 해야겠는데, 지금 타 시·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모두 교습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미 밤10시까지 제한하고 있고 경기도와 경북에서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전과 대구는 다음 회기로 심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 전남은 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기타 부산시 등 7개 시·도에서는 3월중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사전 절차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정무**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10시로 했을 때에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고3을 가진 학부모가 10시까지 하게 하고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아니면 개인교습소나 불법과외 이런 걸로 성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수철**

지금 학교급별로는 초·중학교까지는 10시까지로 지금 조례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고등학교는 1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1시간을 단축하는 것이고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단축되면 개인 불법과외가 성행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경찰청에서 강력한 단속반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과외가 그렇게 크게 성행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간사 정무**

정부의 정책은 잘 이해합니다만 하지

만 우리 실정으로 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경쟁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과외를 시켜야 우리 아이가 뭔가 학력이 올라간다고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야기해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애들을 너무 뭐라고 할까 방황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지금까지 11시나 12시까지 하던 애들이 갑자기 줄임으로써 애들이 그 시간을 잘 적응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애들이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적응을 할는지 그런 대책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국장 이수철**

저희들 본도의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나가는 학생들이 학교급별로 다릅니다만 초등학교가 한 80% 가까이 되고 중학교는 70%, 고등학교가 한 50%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이 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되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단축한다고 해서 그 사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거냐라는 문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부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총체적인

우리의 문화의 어떤 의식구조가 사회의 어떤 기반이 마치 교육 밖의 일들이 더 많이 큰 우리 사교육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이 나갈 때 사교육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마 가정이 이제는 저는 신뢰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교육문제는 학부형이 학교를 믿고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부형들이 지금 교육에 대해서 너무 자식을 못 믿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학원만 갔다 놓으면 다 내 자식이 공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문제도 있고, 이제는 정말 아까 김병우 교육위원님처럼 학생들에게 어떤 자율권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부모도 같이 애들하고 공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기회가 있으면 학부형님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 간사 정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김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추진 상황을 주시해 가면서 우리도 해야지, 우리만 먼저 결정을 했다가는 우리만 오히려 손해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성영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많으실 텐데 사실 순기능과 역기능의 가운데서 이걸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김부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오늘 질의 답변시간과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친 결과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학

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와 사교육비 부담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인 고액과외 및 불법과외가 성행할 수 있는 여지와 자율학습권 침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심의해야 할 필요성과 사회적인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므로 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육국장 이수철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양해말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중에서 야간자율학습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 11시라고 했는데 초·중·고 다 모두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은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성영용

10시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일단 이 부분은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국장 이수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 우리 공교육을 사교육과 동등한 지위로 놓고서 경쟁력 이렇게 비유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마음이 언짢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길로 가야겠다는 말을 늘 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사교육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우리 공교육의 주체가 학교다, 사교육의 주체인 학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나와있습니다.

#### ● 김부웅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 ● 김병우 위원

잠깐,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일단 학원교습 부분은 현행대로 나중에 재론을 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분명히 집행청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심야자율학습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학생들이 개방교실을 이용하는 차원의 자율학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집행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효율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은 피교육자고 나이가 어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권이라는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의지, 우리가 교육이라는 그 자체는 그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고 가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학생들의 의사가 전부 100% 반영이 안됐다고 해서 그것이 자율권의 훼손이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고.

● **김병우 위원**

아니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밤9시까지 억지로 이렇게 아이들을 묶어놓은 건 그건 교육도 아닙니다.

● **교육국장 이수철**

학생들이 즐겁게 자율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강제 자율학습이란 건 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이수철**

학교에서 아마 그런 강제적인 것이라든가 그것은 아마 있어서는 안되겠죠.

● **위원장 성영용**

다른 의견은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청주교육대학교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50분)

●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5항 청주교육대학교학생 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 지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연장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년 연장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3년도 본

조례 제정 당시 충청북도의회에서 교원 수급 전망을 고려해서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지급기한을 한정해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조례 장학금 지급기한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도는 아마 우리도만 해당이 되며 타 시·도는 계속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교대생 중 타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우수자들의 타 시·도 임용시험 응시율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수한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우리 충북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주교육대 장학금 지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5년간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 ● 김부웅 위원

그 다음에 질의입니다.

조례안 2조를 보면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졸업 후 충청북도 도립 초등학교에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청주교대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추천의 주체는 교대총장이고 그 다음에 시행은 교육감이 하는 건데, 그 다음 보면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을 보면 교육감은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교육대학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거는 아까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학생 추천의 주체가 교대총장인지 아니면 교육감인지를 분명히 해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 조례 제정시기가 2003년 12월 26일이고 교육공무원법의 관련된 조문이 신설된 시기가 2005년 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 당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우리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교육감이 추천하고 청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으로 하는 내용을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북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에 국한해서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므로, 우수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더 넓게 개방하자라고 하는 수용의견이 있어서 청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지급대상자를 수정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교대 입학생현황을 보면 타 시·도 고등학교 출신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우리 충청북도의 초등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주교대에 입학한 학생 중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우리 도에 응시하는 것이 장학금 지급목적에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인 2005년도에 제정된 그 법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그거는 여기 의결과정에서 그것도 도입하는 것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부웅 위원

같이 병립이 될 것 같아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여기서 저희들은 그걸 미처 저기를 못했는데 여기서 아마도 수정해 주시면 그것도.....

● 서수웅 위원

수정이 아니라 주체를 바꾸어서.....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시행과정에서의 방법으로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지급하거나.....

● 김부웅 위원

추천주체를 그러니까 명확히 해 주세

요.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조례는 2003년도에 만들어지고 교육법은 2005년도에 설정되어서 그런 모순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면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생도 되고 또 타 도에서 입학한 학생도 총장이 추천해도 교육감이 선정해서 주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장학금의 목적이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 타 시·도에서 오는 것보다는 충청북도 내에서 소화하자는 그 얘기인데 과장님 설명은.

● 교육국장 이수철

그 당시에 아마 이것이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본도 고등학교 학생들만 줄 것이냐 아니면 타 도 학생도 줄 것이냐 했는데, 지금 본도 고등학교에서 교대를 가는 학생수가 20%에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더 교육대학을 오는 학생들을 좀더 좋은 학생들의 유인책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전원 혜택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자해서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교대 특례입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건 교대와 협의해서 교육감이 추천한 우리 도 고등학교 출신들이죠. 추천입학으로 특례입학이나 추천입학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면 교대 측과 협의해서 그 길이 열어지면 이 장학금의 예를 들어서 1순위로 지급할 수 있는.....

● **김부웅 위원**

예, 됐습니다.

조례가 전혀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교육대학교 특례입학은 그건 허용이 안 돼요.

● **김병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원래 법의 취지가 그 거예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가 아직도 전라북도나 일부 도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가 법에 있지만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협의해서 교대에서 의지가 있다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럼 오늘 교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안될 부분이 생겨서 이게 어렵네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예, 맞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수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의견 좀 내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네,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했을 때 그 생각이 남습니다.

그 당시 장학금을 줄 때 우리 충북학생들만 주자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학한 학생들의 출신 도를 보면 우리 충북이 그 당시 30%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충북출신이니까 쥐야 하느냐 그러지 말고 외부사람이라도 와서 공부 잘하고 충북에 남아서 초등교사를 하겠다면 키우자 이렇게 해서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으로 우리 충북교육감이 추천해서 하는 것하고 입학생 중에서 교대총장이 추천해서 주는 장학금하고 양립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검토 좀 해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감 추천입학제도의 길을 방법을 여기서 열어주시면 병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부웅 위원**

우리가 열 수가 없는 거죠, 저쪽이 봤을 땐. 저쪽 총장이 할 일을 우리가 입학을 어떻게 시킵니까? 추천만 하는 거지.

● **김병우 위원**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을 운영하면서 그걸 반영할 수가 있어요.

● **김부웅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심의할 때 상위법이나 하위법 법에 관한 것이 조금 자신감이 없어 늘 고민하는데, 아까 조례심의를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할 때 그전에 이게 만들어질 때는 교

육대학을 여기 충북에 남으려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걸 유인책으로 줘는데 그리고 그때는 교육대학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졸업하고 50%도 임용이 안돼요. 이거 안줘도 충분하다는 이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충북교육에 초등교육에 우수교사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기로 사실은 마음을 모았는데, 지금 규정에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뜻은 주자고 하지만 여기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법적인 문제점을 집행청에서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이렇게 해 주십사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고려해서 다음 회기로 가야 하는지.

● **이상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걸 바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청으로부터 법리적인 해석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 **위원장 성영용**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분 정도면.....

[제238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이상일 위원

한 15분 정도면.

● 위원장 성영용

15분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 교육국장 이수철

한 10분이면 될 겁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상의와 의견수렴을 해서 다른 의견이 없

는 걸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정무,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 출석공무원 : 5명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 부 록

- ▶ 조례심사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0. 4. .

위원장      성영용 成永龍



(별첨 1)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3. 22. (월) 15 : 00	<p>[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장 선출의 건</li><li>2. 간사 선출의 건</li><li>3. 의사일정 결정의 건</li><li>4.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li>5. 청주교육대학교 학생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li></ol>	



第238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I.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81

II.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385

##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435
2. 서면답변서 .....437



#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16시 14분

議事日程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 審査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14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수웅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서수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수웅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수웅**

본 위원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추경예산안이 심도 있게 끝까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데 심부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6시 16분)

● **위원장 서수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소위원회 간사로 김병우 교육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방금 들으신 대로 김병우 위원님이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님

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1)

김병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실음)

● **간사 김병우**

감사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원활히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5일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3. 의사일정결정의건**

(16시 17분)

● **위원장 서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3월 25일 2일간으로 하여,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38회-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김병우,  
위원 김부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2명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의사일정안(별첨 1)

# 豫算·決算小委員會

忠淸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10년 3월 25일 (목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38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審査된 案件

1.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위원장 서수웅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충청북  
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계시  
므로 오늘 심사일정과 진행방법에 대하  
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  
산안과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세  
출예산안을 소관 구분 없이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계서는 회의기록을 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부터 하십니까?

네, 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정무 교육위원입니다.

오늘도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111쪽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등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원에 있어서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지원 사업에서 2010년 신규 교과교실 A형 기자재 구입비를 교당 3억원씩 2개 중·고등학교

에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상학교와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난해에 교과교실제를 시작을 했고 요번에 신규로 A형에 2개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4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4월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학교당 12억원씩 시설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재원 부족으로 해서 거기에 기자재구입비를 요번에 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 위원

기자재 한 학교에 3억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A형은 전 교과가.....

● 정무 위원

구체적으로 그 기자재가 뭘 구입하는 것인지.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예를 들자면 전자칠판 하나가 한 87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2,30개씩 구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

기에다가 그거 이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PC라든가 또 아니면 실물화상기라든가 보조칠판이라든가 아니면 그 교과외 참고자료, 학습자료 이런 게 3억원 들어갑니다.

● 정무 위원

앞으로 교과교실제가 전면 다 운영된다고 볼 때 기자재나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현재 3억원 가지고 예산상으로 보면 많습디만 학교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무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다음 예산안 177쪽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자녀 탁아방 시설보수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교직원 자녀 탁아방 운영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계상한 시설보수비와 당초예산의 리모델링비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에 반영한 시설보수비 3,800만원은 우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설치된 교직원자녀 탁아방을 1층 교실에 배치하고 기존 유치원교실을 2층으로 이전해서 사용함에 따라서 2층에 기존 유치원교실 내에 화장실, 소방시설인 비상탈출구 설치와 노후된 현관 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5,000만원은 유휴 교실을 유치원교실로 개조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공사비, 실내건축공사비, 가구제작비, 난방공사비 등을 5,000만원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3,800만원의 시설보수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 정무 위원

교직원자녀 탁아방이 우암초등학교에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 곳에 분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청주, 청원과 북부권 진천, 괴산, 음성, 충주까지 포함하는 출퇴근 교직원 자녀들을 시범 운영해 보고 더 필요하다면 남부권에도 앞으로 효과를 더 검증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무 위원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탁아방 시설이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예, 알겠습니다.

● **정무 위원**

다음 예산안 211, 212쪽 중등교육과 소관업무입니다.

중등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있어 사업 내용을 보면 교과부 지정 선도학교 5개교 중 사립이 4개교, 국립이 1개교로 공립고등학교는 빠졌는데 어찌 공립고등학교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211쪽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선도학교 지정현황은 교원대부고 즉 국립고등학교 하나, 공립고등학교 상당고등학교 하나,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4개입니다. 총 6개교인데요.

● **정무 위원**

여기는 5개교로 되어 있는데.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도학교는 2009년 당초 4개교에서 2개교가 추가되었는데 공립고등학교는 당초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정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립고등학교보다는 공립고등학교가 숫자가 많으니까 공립고등학교를 넣었으면 하는데 사립학교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이거는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에 대한 지원강화인데 공립고등학교는 이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를 고르다 보니까 사립고등학교의 희망을 받고 해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리고 특색 있는 선도학교 운영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씩 해서 8개교가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2,000만원씩 5개교, 400만원씩 20개교를 계상하였는데 지원금이 전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책정하였는지?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2010년 우리 교육청이 교과부 선도학교로 6개교가 지정이 되었고 또 자체적으로 20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정 선도학교는 특교금하고 지방비 대응투자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도 지정 선도학교는 지방

비만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책정해서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무 위원

한 학교는 2,000만원이고 한 학교는 400만원이니까 차이가 많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231, 232쪽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문상담 인턴교사를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청주는 3명 충주는 2명해서 14명, 초·중·고 학교에 107명 모두 121명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상담 인턴교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또 교육청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학교선정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요게 전국 일자리 창출 7,000개 중에 475개가 우리 도에 배당이 돼서 전문상담교사 12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상담 인턴교사의 자격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그래서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관련 자격증 예를 들면 청소년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세 번째는 일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또 그래도 없으면 4년제 대학 졸업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 배치 전문상담 인턴교사는 우선 Wee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위기학생 상담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필요할 시엔 학교방문 상담활동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배치 전문상담 인턴교사는 도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Wee 클래스 설치 학교에 배치 상담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데 시·군교육청에 배치하는 인턴교사는 인건비가 108만원이고 또 학교에 배치하는 인턴교사 인건비가 117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째 차이가 나는지?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요거는 시·군교육청하고 학교 배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군교육청은 기관 부담금 4대 보험 요것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학교는 인건비에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무 위원

이왕이면 같은 인턴교사니까 금액도 같이 조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예, 그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보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안 287쪽 체육보건급식과 소관업무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사업에서 청원 각리중학교 휴게시설 배구 사업비로 6억 5,35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만드는 휴게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각리중학교는 신설학교로써 배구육성 학교입니다. 배구육성학교로써 지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배구부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구부가 그 자체의 초등학교에서 올라온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외지에서 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시설입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을 포함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 **정무 위원**

여기에 휴게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충

청북도의 지정종목 육성학교가 많잖아요. 몇 백 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의 체육하는 지정종목 학교의 휴게 시설을 해 준다면 앞으로 다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해주고 이게 해주는 건 좋은데 왜 청원 각리만 해 주냐 청주시내도 있고 뭐 각 시·군마다 다 중점학교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야기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각 지역별로 운동부가 초·중·고가 연계되어서 이렇게 진학이 되면 그 지역선수들이 진학을 해서 집에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지만 배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정종목을 운영한다고 해서 다 휴게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학교에서 요구를 해왔을 때 이렇게 검토를 해서.....

● **정무 위원**

아직도 체육관시설이 잘 안돼서 지정종목을 육성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런 학교가 있는데 휴게실까지,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휴게실까지 해준다고 하는 건 좋은 것인데 생각은, 우선 체육관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 그런 학교부터 해결을 해 놓고 다음 차원에서 휴게실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이수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각리중학교가 지금 특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수들이 어디 가서 특별하게 관리할 실이 없어요. 학생들을 너무 많이 학생수를 증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수들을 특별하게 관리할 공간이 없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이 그냥 휴게실이지 선수들 체력단련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무 위원**

말이 휴게시설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숙소로 보시면 됩니다.

● **교육국장 이수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무 위원**

휴게시설이라고 안했으면 체육시설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휴게시설이라니까 체육관도 없는 학교에서 이걸

보면 이상하게.....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은 인라인롤러경기장 개축비로 7억 8,37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은의 인라인경기장이 개장연도가 6,7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도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그 개축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보은 인라인롤러경기장은 2005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전국규모의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대회 규정이 바뀌고 경기장 규격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은에서 롤러선수들이 해마다 좋은 성적을 내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경기장 규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제규격으로 개조를 해서 학생들의 훈련 및 대회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 **정무 위원**

보은읍 들어가는데 옛날에 학림초등학교인가 폐지된 거기죠?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

● **정무 위원**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롤러스케이트

장 경기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연 얼마나 돼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보은에서 육성하는 학교가 4개 학교가 됩니다. 동광, 보은중, 보은여중, 보은자영고 해서 선수들이.....

● 정무 위원

거기서 대회 경기 같은 것 시합이 있는가요?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가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해서 한 30여회를 거기서 대회를 치렀었습니다

● 정무 위원

한 5년 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다시 재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보은이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을 했고요. 지금도 선수들이.....

● 정무 위원

가보니까 학교마다 경기장이 다 있더라고요, 간이롤러경기장이 연습하께. 학생만 해도 읍에서 몇 키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 이용하는 빈도가 높지도 않은데 시설만 자꾸 투자하나 이 얘기에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지금은 규격이 국제규격이 아니고 대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축을 해서.....

● 정무 위원

안맞는다고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규격이 안맞습니다.

● 정무 위원

규격이 미달이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네, 경기장 규격도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암에 있는 롤러장도 전부 그런 겁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경기를 하려면 규격이 맞지 않으니깐 안맞으니깐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그 얘기이죠?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보은 관리과장님이 여기 있는데.....

● 보은교육청 관리과장 김규완

보은 관리과장 김규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인라인롤러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에 개장을 했습니다만 2005년, 2006년도 개장했을 때는 충북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그리고 타 시·도에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연간 한 만 5,000명 정도가 거의 이용했습니다만 2008년도에 규격이 바닥규격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안오고요. 충북선수들

만 오고 그리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했습니다만 2008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도내 경기도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본청 시설사업에서 본 교육위원회 보수공사로 대회의장 1실 및 사무실 4개실 리모델링비로 8억 30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벌써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뭐랄까 저희들 쫓겨나는 기분이 듭니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 본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담당 김옥진

총무담당사무관 김옥진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본회의장은 한 200명 정도 수용하는 계단형 세미나실로 보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무실은 지금 본청 사무실이 상당히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기록실 같은 기록담당 같은 곳은 창고 같은 문서고 옆에 두고 있는데 과밀하거나 열악한 그런 부서를 옮겨서 배치를 할까 합니다.

● 정무 위원

끝나면 나가거든 하지 우리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공사를 언제 하는 거예요?

● 총무과 총무담당 김옥진

일단 하반기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넘어가서 그전에는 하는 게 아니고요.

● 정무 위원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편성하면서도 많이 망설였는데 요번에 이걸 넣으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무실 같은 걸 재배치할 때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서 요번에 넣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1, 442쪽 시설과 소관업무입니다.

학교 일반시설 보수 및 개선에 있어서 충주교육청 세성초 병설유치원, 수회초 병설유치원, 야동초 병설유치원 바닥교체비를 각각 2실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그 바닥교체 추가분을 별도로 각각 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합쳐서 해 버리지 왜 이렇게 별도로 계

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이 편성 그렇게 했으면 편할 텐데 바닥교체가 저희들이 층이 틀린 경우에 말하자면 1층 같은 경우엔 허브 공간이 있어 가지고 흠을 메우고 슬라브콘크리트를 치고 바닥을 새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사비가 대략 1층 같은 경우는 2층, 3층, 4층보다 27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걸 별도로 표기한 건데 그걸 분해해서 이렇게 편집용으로 내놓기가 조금 뭐해서 편의상 그렇게 틀리게 단가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 정무 위원

그러니까 바닥교체는 바닥교체인데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 시설과장 박민수

예, 바닥교체인데 1층 부분에 해당되는 실은 흠을 메워서 성토를 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추가로 실당 한 270이 더 들어갑니다. 그걸 표시한 겁니다.

● 정무 위원

예산안을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있고 바닥교체비 있고 그 또 밑에 바닥 교체추가분 있고 그러니까.....

● 시설과장 박민수

그걸 붙여서 한 건데요. 그걸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단가가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또 다른 실하고 틀리게 보여서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 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508쪽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업무입니다.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있어서 사이버가정학습활용안내서 제작비로 당초예산에 500만원 5,000원씩 1,000부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사이버가정학습활용안내서 제작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사이버가정학습 성능이 1.0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2.0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선된 사이버가정학습은 전에는 다운로드방식이었는데 전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됐기 때문에 학생과 그리고 교사 또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새로운 홍보자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학생 약14만명, 교사는 한 만 4,000명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학부모는 대략 1년 평균 8만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안내 및 홍보비 130원씩 계상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홍보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정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할 게 몇 개 있는데 이만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뒤에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앞에 인사는 정무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쪽에 잡수입 9억 5,52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잡수입의

내역은 어떤 것이고 당초예산에 이걸 예측을 못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12쪽.

● 재무과장 김길흠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3억 2,036만 2,000원은 교육사랑카드에서 복지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인데 2월말 경에 이게 수입이 잡힙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매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35쪽 광역자치단체전입금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비 6,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왜 이게 감액됐습니까?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현재 도서관 자료 확충비인데 매년 그게 3억 1,500만원정도가 지원됐던 사안입니다.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해서 2억 5,200이 전입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6,300만원은 세입에서 감했고 세출은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있어서 그 기대효과 및 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이게 정부방침이 창의적인 게 금년도부터 강화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금년도에는 전체 학생수의 약 10%정도 이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시범교육청이 10%에 가장 적합한 데가 청원교육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원교육청에다가 지금 우리가 시범교육청을 두어서 운영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올해 시범으로 해서 매뉴얼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에 도입하게 됩니다.

● 성영용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구만요.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좋은 기대가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국제교육 문화협력 지원에서 이게 꼭

늘어야 할 이유가 뭐가요? 교육청 네트워크를 통한 워크숍을 하는 건데 꼭 이게 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들이 국제교육 문화교류가 유네스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해서 국제이해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의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유네스코 측에서 저희들한테 이걸 요청한 사업이고요.

그 밑에 한일교사교류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우리측이 유네스코 주관으로 해서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에서 저희들을 방문하는데, 금년도에 일본방문진 중에서 30명이 3일간 충북에 체류하면서 충북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쓰는 워크숍비를 금년에는 특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늘 하던 건데 그거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왜 추경예산에 하는지.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이게 유네스코 측에서 저희들 본예산 이후에 금년 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을 받아오던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감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161쪽 초등교원연수에 있어서 자격연수경비가 인상된 근거가 뭐죠?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2010학년도에 자격연수대상자가 교장 공모제 인력풀 구축을 위해서 결원 대비 100%에서 150%로 이렇게 증가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치원장 2명 그리고 초등교장 1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그 연수경비 증원된 16명의 연수경비로 추경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 **성영용 위원**

50%가 늘었다고 그러면 지금 한 5,000만원정도 더 해야 될텐데 지금 5,000이 아니라 50억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안되어 있잖아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자격연수경비가 1인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과 2명의 16명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지침으로 50% 늘게 되어 있잖아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인원선정이 50%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16명이 더 증원되어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연수경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연수대상자를 그것만 이렇게.....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예, 증가된.

● **성영용 위원**

증가분.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예.

● **성영용 위원**

다음 167쪽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사업 중에서 R-러닝구축 및 활용에서 Robot구입비 1억 3,600만원 네트워크구축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컨설팅지원단 운영의 구성과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obot구입비는 유아교육용 Robot으로 교사도우미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유아의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과학의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서 유발하기 위해서 교과부 신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치원의 10%를 선정해서 한 대당 400만원씩 총 34개원에 이렇게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구축비는 5 내지 10개원의 유치원이 참여하는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점유치원 3개원에 5,000만원씩 지원해서 통학차량, 급식비, 종일직 인건비 그리고 공용 교재구입 이런 심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3개원을 공모해 가지고 5,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교과부 신규 정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은 유치원 현장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 유치원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취약 부분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운영 전반, 교직원 인사관리 그리고 재정관리, 시설설비, 부모관리, 민원사례 등 6개 분야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15명 내외의 각계 전문가 그리고 일반직공무원, 원장, 원감, 교수 등으로 컨설팅단원을 구성해서 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설정했습니다.

#### ● 성영용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Robot공부하는데 400만원짜리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도 나오고 배분계획도 지금 3개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말고 네트워크구축비가 5,000만원 아니에요, 한 개원당. 5,000만원씩 어디다 줄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다가 해 줄 거예요.

####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그건 3개 거점유치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3개 유치원은 공모를 통해서 주변 유치원이 5 내지 10개원이 한 데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유치원을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성영용 위원

거점유치원 하게 되면 이게 주위에 있는 걸 하게 된다면 청주밖에 안되고 충주나 제천이나 타 시·도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뭐 충주, 제천도 가능합니다.

#### ● 성영용 위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이건 교과부의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 ● 성영용 위원

정책사업이라도 돈을 쓸모 있게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지 있는 거 무조건 쓰겠다는 얘기로 저희가

듣기에 그렇게 돼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공모과정에서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렇게 공모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른 것도 거점으로 해 가지고 해도 한 학교면 한 학교에서만 운영되지 타 학교가 잘 운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원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더 물론 예산에 반영해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관계에 얼마만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투자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어린이들 그거 하는데 400만원짜리 Robot이라는 건 성인용으로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Robot인데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5쪽에 시·도 부교육감 정책협의회 자료가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안심알리미 SMS 문자서비스는 요즘 여러 가지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들의 성폭행 내지 유괴사건들이 사회

적인 관심사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초등학교에 72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는 자녀의 위치정보를 학부모의 휴대폰에 SMS 전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경고음을 발생시키면서 알리는 그런 자녀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총사업비를 추경에 이렇게 설정하게 된 것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금 현황과 아울러서 교과부에서 3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전년도에도 시행되었던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SMS 문자서비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의 대상교 및 대상교 선정방법이나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비율이 높은 학교 그리고 최근에 학교 아동대상 범죄가 많이 발생된 지역이나 그런 열악한 위험성이 높은

개연성 높은 그런 학교, 또 맞벌이가정이나 저소득층가정이 많은 학교 이런 학교들을 중심으로 대상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서비스 가능업체를 선정 한 후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녀의 등 학교 사항 및 주요 이동정보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경비가 1차 추경에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전에 했던 학교지원 외에 이번에 별도로 새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운영방법 및 처리방법.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직무연수가 단체교육연수원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그런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청소년단체의 지도교사를 중심으로 한 직무연수를 많이 시켜서 학교폭력을 줄여보자고 하는 그리고 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를 한 40명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5일간 한 30시간정도를 하면 교사들이 학생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난번 5,600만원 예산을 각 지역으로 분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별도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로인데 지금 청소년단체가 몇 개예요? 잘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지금 13개.

● **성영용 위원**

13개인데 사실 요거 한 단체에 한 3명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그렇죠.

● **성영용 위원**

제 생각엔 이런 부분에 우리 인성교육을 위해 앞으로 예산신청을 많이 해서 청소년단체 교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물어보는 겁

니다.

앞으로 좀 많이 하셔서 정말 교육이 학력도 있지만 인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지도할 선생님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우리 본청의 임무인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생활지도를 좀더 수준을 높이고 질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지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권역별로 교수님들 또 상담이라든가 청소년심리학 또 교육학을 하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컨설팅을 위촉해서 좀더 질 높은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청소년단체가 본 도에 13개 단체가 활약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더욱 질 높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다음에 좀 많이 해 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225쪽 인성교육에 관한 그 부분인데 학교폭력 책임교사 심화 소양교육 예산에서 교육경비를 1인당 5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방법 위탁교육인가

자체교육인가 말씀해 주시고, 자체교육일 경우는 교육경비 소요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위탁교육일 경우에는 운영비 및 강사료를 여기 왜 계상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폭력에 대한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사안처리의 어려움으로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 함양하고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책임 교사들의 노고를 치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선진 생활지도 방법을 안내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수교 워크숍에 필요한 그런 경비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이 선생님들에게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2박3일 정도의 일정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식비나 강사료 이런 것들을 해서 2,000만원인데, 참고로 책임교사 유공교원은 한 40명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인솔자 한 5명정도 해서 그래서 예산이 40명에서.....

● **성영용 위원**

됐습니다.

실제 내역을 자세하게 하지 못해서 그냥 용품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네,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것 열 번 얘기해도 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넘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돈 좀 많이 투자해주세요. 학교폭력 상당히 심하잖아요, 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리 얘기하시면 이런 거 안문잖아요.

다음 256쪽에 학원 및 교습소관리에서 특근매식비가 13일로 되어 있고 나가서 하는 건 20일로 되어 있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비 같은 건 20일로 계상했고 나가서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주지만 특근매식비 주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교과부 특별지원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런 기준이 나와있어요? 교통비는 얼마 20일치하고 특근은 13일만 나가게, 나가서 특근야식비 줄 게 더 나가는 건 안줘도 돼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 많이 해서 같이 맞춰줘야지 나가는 날은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덜 나가면 안주더라도.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계상된 인원이 3명이거든요.

● **성영용 위원**

3명인 건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같이 나가는 날에는 주고 안 나가는 날은 상한선을 20일 했으면 20일에 대한 예산을 해놨다가 나중에 안 쓰게 되면 불용처리 하더라도.....

● **교육국장 이수철**

교육국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현재 출장비하고 매식비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나가서 할 때는 출장비로 나가기 때문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자체 남아서 특근할 때에는 매식비가 별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학원 점검하러 나가는 건데 특근하는 건데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업무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래요. 앞으로 그걸 맞춰달라는 제 얘기예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266쪽 자료열람실 운영사업에서 RFID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4,262만 7,000원을 계상해 봤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요 내용은 중앙도서관에서 별도 단독 수립한 것이라 허락해 주시면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성영용 위원**

예.

● **중앙도서관 열람과장 이영선**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RFID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4,262만 7,000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중앙도서관 평생교육담당 안승현**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 평생교육담당 안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RFID시스템 구축을 4억 4,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RFID시스템 구축은 정부에서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적용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현재는 한 135개 기관이 가동 중에 있으며 충북의 경우에도 지자체 산하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4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충주의 충주학생회관이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도서관만 충북 중앙도서관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렸고요.

저희가 1년에 한 3만권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서는 계속 감축 중에 있어서 요번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RFID시스템은 비접촉식 무선인식기술 관련 장비로써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다양한 태그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비접촉방식으로 리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가 반납이 가능하고 자료점검이 또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의 홈페이지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156개 기관에 6억 8,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156개교면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추후 계획이 또 있는지?

지금 초·중·고 합해서 471개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2008년과 2009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학교 2010년에는 나머지 학교 156개교에 관련된 학교만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하면 완전히 다 끝나나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그렇습니다, 495개교.

● **성영용 위원**

그럼 이 홈페이지하고 우리 본청 홈페이지하고 연계관계는 어떻게 돼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본청에다가 전체적인 서버를 개설해 놓고 본청에서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를 다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면 156개교만 하면 다 끝나다 이거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네.

● **성영용 위원**

310쪽입니다.

학생선수 학습지도비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운영대상이나 대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선진형 학교운동부운영 사업의 일환으로써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부별로 다섯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운동선수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멘토링이랄지 또 기본적인 영어, 한문 이런 과목을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이 끝나고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로써 운동부 운영을 선진화하는데 하는.....

● **성영용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공부 못하면 앞으로 운동도 안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런 열의를 갖고 계신 부분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런 건 좋은데 저도 이게 적지 않을까 걱정돼요.

또 하나 그 위에 체육영재 조기발굴

은 사실 스카웃 비용입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여러 가지 체육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 성영용 위원

두 종목밖에 안되고 500만원씩 두 종목인데 어떤 종목으로 하실 건지?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요거는 기본종목으로 육상이나 수영요런 기본 종목으로 이렇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성영용 위원

시범적으로 하신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

● 성영용 위원

그러면 타 지역의 어떤 체재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분석 같은 건 여기에 안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넣어서 체전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전력분석비라고 해서 항목에 넣었습니다. 1,000만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력분석.

● 성영용 위원

아, 전력분석.

그럼 이거 가지고 돼요? 돈을 안주니까 체육선생님들이 변칙 운영하다가 다 범법자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산을 좀더 내년에는 많이 세우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지난번 교육장님회의 할 때도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체육교가 지정종목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갈 경우 개들을 위해서 자기봉급 털어서 못 사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의 변칙으로 운영해서 자장면 사주고 다른 거 사주면서 일 처리하는데,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한테 손 내밀어야 되고 그걸 잘못 내밀었다가 나중에 야단맞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체육교사들이 마음놓고 체전에도 아이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경비 같은 건 어느 정도 확실한 부분은 지원해 주시고 그래야지 어떻게 방법 강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교육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려봤습니다만 본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 **성영용 위원**

32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어서 고급 관리자과정 교육인원수가 증가 됐다는 데 어디가 증가된 거예요?

● **총무과 총무담당 김옥진**

총무담당 김옥진입니다.

서기관급 중앙교육훈련을 당초에 1명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명이었던 인원을 2010년도부터는 2명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래요.

대상에 보면 교육위원회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인데 교육위원회에서 가나요? 아니면 교육감소속.

● **총무과 총무담당 김옥진**

대부분 총무과로 명령을 내놓고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8월말로 끝나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가기 쉽겠네요.

● **총무과 총무담당 김옥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훈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성 위원님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죠.

● **성영용 위원**

그러시죠.

● **위원장 서수웅**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성영용 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잠깐요.

이어서 성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겠는데요. 새로 질의를 시작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성영용 위원**

356쪽입니다.

감액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감액조치인데 물론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했는데 안주면 불만을 살요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초과근무수당은 정액으로다 10시간 계상해냈고요. 초과근무하는 것을 교원은 30시간, 전문직하고 일반직은 40시간을 계상해 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근무시간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야근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한 10%정도는 줄여도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매년 집행액도 보고 그래서 이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감축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일선에서 불만이 많은 말이에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지금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초과근무를 한 다음 예산이 없어서 미 지원될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다 지원은 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감액해 놓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모든 학교가 다 근무하는 건.....

● **성영용 위원**

모든 학교보다도 학교는 차라리 덜해요. 학교도 소수인원이고 교무나 일부 어떤 말은 업무량이 많은 부서 그리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 같은 경우 이렇게 해 놓고서,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 20일 계상해서 18일 이상을 거의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돈은 없는데 봉급 털어 가지고 해 주실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했는데요. 공무원들은 또 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연가가 있어요. 그래서 매월 1일씩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10%정도 감을 해도 무난합니다.

● **성영용 위원**

괜찮겠어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괜찮습니다.

● **성영용 위원**

너무 줄인 것 같아 가지고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다음 357쪽입니다.

특수교육 기간제교사 71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71명까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본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전년도에 전일제강사로 운영을 했습니다. 특수교육 전문성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전일제강사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추가 편성 운영하는 걸로 추경에 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줄인 거도 아니네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기존에 54명에서 57명으로 3명이 늘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특수교육법에 학급당 인원이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씩 해서 한 학급을 편성하도록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이 배정 57명이 되어서 특수학교에 14명 그래서 71명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1명에 대한 것을 기간제교사로 급여를 제공해야지 안정된 그리고 자격이 있는 그런 교사를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 **성영용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71명이 꼭 필요한가 이 얘기만 해 주세요.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그거는 정원을 교과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제교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 답을 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64쪽 단위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조정한 거는 사유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전년도 9월 1일 기준으로다가 했었는데 요번에 3월 1일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해서 추가로 기본운영비를 감안했어요.

또 각급 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유치원 종일반이라든가 학급보조 늘어나는 부분을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포함시켰고, 신설학교 개교 당시에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사유가 발생한 것을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계상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제가 보기엔 선심성 같아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선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안입니다.

● **성영용 위원**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제가 판단하기론 2010년도 신설교가 지금 4개교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건 없고 각 지역교육청으로다 분배식으로다 썼단 말입니다, 내역이.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 내역을 워낙 많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그렇게 나온 건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다 기본경비로다 학생수로 조정된 게 얼마, 또 사업내용으로다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서류상으로 보게 되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선심성 같아서.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선심성은 절대 아닙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학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40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재해대비 순회점검여비가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 나갈 때. 그렇죠?

● **재무과장 김길흠**

네.

● **성영용 위원**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여비가 연 120만원이면 하루 얼마 계산됐죠, 1년에 120만원이면.

근데 하루 나가는데 6만 5,000원 주면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요?

● **재무과장 김길흠**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재해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1박2일로 계상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1박2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 **재무과장 김길흠**

1박2일 단가가 6만 5,000원입니다.

● **성영용 위원**

충북 도내에 1박2일 할 때가 어디 있어요?

● **재무과장 김길흠**

제천, 단양.

● **성영용 위원**

제천, 단양하면 저도 아침에 와서 일 보고서 저녁에 들어가는데.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만 5,000원의 단가는 저희들 예산편

성상 관외출장 갔을 때 예산편성 단가고 실질 집행은 실제 소요경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형평성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07쪽입니다.

공유재산매입 사업에 임해수련원 직원관사 매입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내역을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거주실태라든지 향후 운영계획을.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제가 거기 있다가 와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정규직원들은 여기서 발령을 받아서 가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한 것은 전부 다 계약직입니다.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채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신 분들이 기존의 숙소에서 나누어서 전부 다 기숙을 하고 있는데 살림을 하는 분들이 세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방 배정을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세 분이 살림을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서 3동을 요구했지만 1동정도만 확보를 해서 순환근무가 또 될 테니까 그래서 1동정도만 확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원장을 제외한 정규직이 얼마예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14명정도.

● **성영용 위원**

14명이면 지금 현재 3명이라도 1억 2,000만원 가지고 1동 꾸려 가지고 세 사람이 어떻게 살림하고.....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아니, 기존 숙소가 되어 있으니까요.

● **성영용 위원**

기존 숙소가 지금 몇 개예요?

● **재무과장 김길흠**

현재 6동이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6동, 1동만 더하면 큰 무리가 없다.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예, 그 정도만 하면 너무 남아도 안 되니까요.

● **성영용 위원**

그 정도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제천교육청 관사매입비 관계인데 지

금 관사도 없고 관사는 1억 4,800만원 인가 거기 다 팔아먹고 당장 있을 때도 없어 가지고 교육과장 숙소에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어디 집 얻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디 예비비라도 해서.....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예산을 도의회에다 제출한 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성영용 위원

그렇다면 한 7월이나 8월달 돼서 계약하고 어디 오십시오 하고 집 비워놓은 데 있는 것 아니잖아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지금 4월달 도의회가 심의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미리 제천서는 관사구입을 미리 추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성영용 위원

관사 구입을 추진해도?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추진해도 4월달 되면 예산이 확정되니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객지 와서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해서 그래요.

다음은 490쪽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시설사업에 교육과학연구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에 6,998

만 3,000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쓸 건지.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흡수식 냉온수기가 '9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10년이 지나서 상당히 부식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이걸 6,000이나 한 7,000에서 부분 보수하려고 했는데 보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용량도 문제가 되고 수리 한계가 심해서 예산적인 차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진단해 보고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를 전체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흡수식이라는 건 어떤 식의 냉온수기예요?

● 시설과장 박민수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열을 이용해 가지고 물로 보일러를 때서 냉방 온방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어쨌든 냉온수기 찬물 뜨거운 물 먹는 건데 한 7,000만원씩 이렇게 들어

서 해야 될 부분인지, 또 이 효용가치가 얼마만치 있는지 거기 냉온수기를 먹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는지 굉장히 너무 고가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 시설과장 박민수

냉온수기가 아니고 냉난방 보일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보일러예요?

● 시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냉온수기 이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성영용 위원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대수선 설계비가 790만원 했는데 무슨 설계비예요?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요거는 학생수영장 건데요. 학생수영장이 지금 2004년도에 개장을 하고 나서 그동안 쪽 보수를 못해 왔었는데 최근 안전점검을 해 보니까 수영장 천장하고 천장틀이 상당히 부식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수영장이다 보니까 천장틀을 수선하기 위한 조사비입니다.

● 성영용 위원

수리를 대비해서 설계비 계상했다 이거죠.

● 시설과장 박민수

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임해수련원에 외부환경개선비로 1억 4,55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걸 외부환경 어디를 할 건가요?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대천임해수련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뒤편에 4차선 왕복도로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미관을 치장하고자 약 4,700만원으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야외공연장 지붕이 유용하게 쓰는 데에 비해서 지붕면적이 좁아 가지고 약간 좀 증설을 하고 수련동하고 비막이 연결통로 그걸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 성영용 위원

거기 확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 시설과장 박민수

지금 야외공연장에 위에 지붕이 씌워

져 있습니다. 씌워져 있는데 그걸 약간 연장하는 겁니다.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비막이 통로입니다.

● **성영용 위원**

방음벽을 하게 되면 저쪽 도로 쪽으로 하게 되나요?

● **시설과장 박민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 쪽에 한 25m정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성영용 위원**

495쪽입니다.  
단양교육청 공동사택 보수인데 어느 공동사택이에요?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입니다.  
상진리에 있는 공동숙소입니다.

● **성영용 위원**

신축연도가 언제예요?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98년도에 신축됐습니다.

● **성영용 위원**

'98년도, 근데 어디를 수리해야 돼요?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이번에 신축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손을 안대 가지고 창문이나 욕실의 타일이나 집안이 상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기 때문에 단열재가 부족해서

난방비가 단독 세대로써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열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542쪽 학생야영수련사업에서 연립형 텐트천막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960만원 그러니까 480만원씩 2개하고 이번 추경에 3,84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입니다.

저희 현재 1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6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300명정도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당초예산에 2동을 계상하고 금회에 8동을 설치하면 200명 그래서 총 300명이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성영용 위원**

당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집어넣지 예산이 적어 가지고 본청에서 안해 준 건가요? 요구를 했는데 안해 준 거예요?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연차적으로 조금씩 확보하려고 해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본청에서 잘 안해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아닙니다.

● 성영용 위원

이런 거 구입해서 수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이걸 꼭 추경예산에 조금씩 집어넣어 가지고 짚끔짚끔하게 되면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차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조근상

그래서 앞으로 전체 300명분을 다하면 앞으로는 천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될 것 같습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대답 그대로 하면 본청에 엮매일까 봐 말을 자꾸 비켜 가시는데, 625쪽입니다.

삼양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리모델링비 6,520만원의 세부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산안 625쪽입니다.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올해 3월 1일자로 장야초등학교가 분리가 됐습니다. 일부 학급이 감소된 관계로 기본교실의 활용을 위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한 그

런 교실을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성영용 위원

그 사업에 필요한 건데 6,250만원씩 들어가요?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

남는 교실이 지금 17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용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실개축을 위해서.....

● 성영용 위원

요청에 의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

네.

● 성영용 위원

다음은 단양의 가곡중학교 시멘트 관급차재 917만원이 있는데.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입니다.

그 사업은 2008년, '09년도까지 가곡초·중학교 병설로 만들면서 가곡초등학교 신축예산인데요. 조달청에서 2009년도 2월달에 준공됐는데 그때 청구가 들어와서 집행이 됐으면 별도로 예산을 안세워도 되는데 그때 조달청에서 2009년도 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벌써 결산에서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성영용 위원**

시멘트 값만 못 줬다는 얘기에요?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관급자재인데 그걸 조달청에서 늦게 주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여태 외상값 독촉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관공서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이런 건 본청에서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면. 줄 것 못 줘서 여태까지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요런 사안은 당초에 그 학교 시설비에다 계상된 건데 정산이 조달청하고 단양교육청하고 사이에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된 건데, 저희들이 지원은 처음에 사업비로 다 나간 건데 그쪽 정산관계가 소홀해져 갖고 발생된 그런 사안입니다.

● **성영용 위원**

줬는데 정산관계 잘못됐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그리고서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안으로다 계상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9쪽입니다.

기관 소규모 시설사업에서 피산증평교육청 선풍기 구입비로 해서 교육청 6개소, 피산도서관 7개소, 증평도서관 11개소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선풍기 가지고 요새 냉방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건가요?

● **피산증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피산증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점검하다 보니까 바로 봄철 지나면 에어컨을 틀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될 시기에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고, 또 다중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풍기 트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냉방기와 선풍기를 같이 혼용해서 쓰면 에너지 절약도 예산절감도 될 거다 이런 판단에서 다중 이용시설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타 교육청의 관리과장님들은 이런 부분에 생각을 안해 주신 것 같아요. 냉방기 늘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를 돌리게 되면 냉방효과가 15%가 더 증가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괴산증평교육청처럼 벤치마킹할 건 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수선비 중 설계비를 571만 8,000원으로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괴산증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개별사업에 대해서 부대비를 세우게 되면 표현을 따로 따로 해야 되지만 전체 사업을 묶어서 이렇게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 성영용 위원

사업 전체를?

● 괴산증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예.

● 성영용 위원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 괴산증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대회의실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숙직실을 수압 조정하는 것하고 체력단련실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그 다음에 전자블럭 바닥에 있는 것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 설계비입니다.

● 성영용 위원

설계비이면 대수선도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향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수선하는데.

● 괴산증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은 1억 6,500만원에 대한 겁니다.

● 성영용 위원

그 예산 통과되면 본청에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계상되어 있는 걸 집행하기 위한 그 설계비를 표시한 겁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678쪽.

● 성영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수웅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1시간 동안 질의를 저인망식으로 해줬습니다. 질의시간이 길었습니다만 동료위원

님들의 질의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10분 내지 15분 이내로 끝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예산을 검토하다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0쪽에 보면 학교정책과의 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임차료가 1억이 있고 그 밑에 집기구입비가 2,290여만원 있죠.

전에 2,417만 6,000원이 통과되고 이게 지난번에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와의 형평으로 봐서 2,417만원 가지고는 사무실을 얻을 수도 없고 집기도 못하니까.....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그때도 임차료를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액수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온 거죠?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예.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특수교육과정 운영 네 번째 보면 전일제강사 인건비 3월에서 5월 해 가지고 2억 7,121만 2,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는 교과부 정원을 주지 못한 특수학급 내지 특수학교에 전일제강사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기간제교사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강사 예산을 삭감하고 기간제교사 인건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예산입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도 아까 정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대충 이해가 갔지만 198쪽에 학력증진 및 평가관리 거기에서 숫자하고 횡수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학업성취도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일 위원**

예, 198쪽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공립초등학교는 맨 밑에 77명 그 다음에 횡수도 그게 밑에 가서는 2회 그리고 액수하고 인원수가 본예산 때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가서.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당초 82개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비를 105명에 대해서 교과부와 지방비의 5대 5로 대응투자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수요조사와 기 지원사업 여부,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총 인턴교사를 105명으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지원학교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과부와 지방비의 5대 5 대응투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리고 199쪽 맨 끝에 보면 학습부진 학생지도 수당 지원교 1개 학교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선정방법이라든지 대상학교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됐죠?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아니, 됐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신설학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측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옥천의 장야초등학교가 신설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작년 학교만 생각을 하고서 편성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삼양서 분리된 장야초, 알겠습니다.

272쪽 정보통신보안 그 제목에 273쪽 밑에 보면 정보보안컨설팅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컨설팅사업은 우리 교육청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해킹, 개인정보 보안 현황 진단 등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절차 및 내부규정을 국제표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제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일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정보유출이 잘 안되고 보안이 잘되는 겁니까?

가끔 어디 국가의 중요기관도 해킹됐다 그러고 정보가 유출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1억 5,000만원 해서 보안을 하면 정보가 잘 보안이 되는 겁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물론 액수도 크거니와 그것을 함으로 해서 기관 자체적으로 외부해킹에 대한 위험관리나 그거에 따른 대책 수립, 사후관리 등에 좀더 체계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하여튼 해킹하려고 하는 쪽이 더 뛰어난 머리보다 하려고 그러니까 보완하는 차원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착오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12쪽에 학생체육대회 운영 거기 보면 학생야구대회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나번에 스포츠클럽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민간이전에

대한 지원단체내역을 하나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원방법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서면답변서(별첨 2)

(끝에 실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각 종목별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민간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각 단체에서 리틀야구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서의 비용입니다.

● 이상일 위원

지원금의 일부를 저희가 이전해 주는 거죠?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아까 그거는 이따 시간 되시는 대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420쪽에 학교시설 증개축 맨 아래쪽에 청원교육청 옥산초등학교

소로분교장에 대해서 교실 증·개축비가 2억 3,662만 6,000원이 계상됐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교실을 두 칸, 한 칸당 9,690만원 들여서 두 칸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학생 장기수용계획이 좀 조사가 됐는지 지금 청원군은 잘 모겠습니다만 대개 군 소재지 초등학교에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데 분교장에까지 이렇게 두 개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증축이 아니고 위험 건물로 저희가 판정을 하고 진단을 하고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개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수용계획을 조사했습니다. 했는데 4학년 23명인데 향후 2015년까지 아이들이 27명, 26명 쪽 늘어서 그 인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지 차원에서 위험한 건물의 개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동안 폐교되는 학교로 생각해서 시설 증·개축을 못해 주다가 너무 낡아서 붕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뜯고 새로 지어주는 겁니까?

● 시설과장 박민수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물론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20여명이 있으니까 개축을 안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다가 보면 몇 년 지나서 그 아이들 한 열댓 명정도로 돼서 분교를 본교로 버스를 임차해서 옮겨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이 처리방법이 어떨지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축을 해 놓고도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또 학부모들이 버스를 한 대 사주면 본교로 통학을 하겠다 그게 낫겠다 이래 놓으면 그때 가서 한 2억 3,000 예산 들여 가지고 한 5,6년 하다가 폐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하셔서 집행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과장 박민수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려고요?

●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옥산초 소로분교는 그 근방에 공단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 다음에 506쪽에 과학전시관운영 거기 보면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그래 가지고 심사수당, 출장비, 협의회비 이렇게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현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누구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건지, 지금 답변하실래요?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그동안 현대화사업을 준비해 온 모든 과정을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본청의 교육국장님 그리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추진위원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10명 이내, 그래서 본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의 전문가로 구성하시겠다 이런 얘기죠?

●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42쪽에 지역단위 행정활동 지원 거기 보니까 옥천교육청에 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요게 400만원 그 다음에 단

양교육청에 보고서가 1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유독 옥천과 단양만 계상이 되고 다른 데는 안하는 사업을 여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는 하는데 이번에 빠진 걸 추가로 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가 작년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보고서 제작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인데요. 기존 예산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 **이상일 위원**

아니 그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이걸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하는 건지.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청이 다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인쇄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 기존 교육청은 자체 인쇄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한 겁니다.

● **이상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1개 교육청 중에 옥

친하고 단양만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편차가 많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궁금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5분 이내에 가능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병우**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간명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시간이 많이 아껴질 것 같습니다.

37쪽에 기초자치단체전입금들이 주로 운동장 조성이라든가 방과후학교 지원이라든가 다목적교실 개축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입이 되고 있는데, 9개 교육청이 자치단체의 전입금을 유치했는데 충주, 보은은 실적이 없어요. 그 내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방과후활동 지원비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출시키는 경우가 있고 학교로다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이 안된 데는 학교로다가 직접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안한 겁니다.

● **간사 김병우**

없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119쪽에 학생 영어교육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초·중등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초·중등에 30명을 증원하는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70명분이 반영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편성기준이랄까 이것이 인건비라든지 연차수당이라든지 5대 보험기관 부담금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당초예산하고 편성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학교정책과장 홍순규입니다.

우선 죄송한 게 거기에 자세한 산출기초가 없어 갖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이 증원이 되는데 초등학교가 3명이고 중등 27명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혼돈하게 된 것이 저희들 요번에 30명 증원하는 것은 본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특교하고 지방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 이중에서 인건비, 퇴직금 보전수당만이고 그 외에 연차수당하고 5대 보험기관부담금은 순수지방비인데 본예산에서 이게 여기 잘못 계상되는 바람에 50%만 됐습니다. 50%만 돼 갖고서 연차수당하고 5대 보험기관부담금에 대해 본예산에서 50%밖에 반영 안된 부분을 요번에 반영하고, 30명 증원된 거에 대해서는 또 증액시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표현이 안되어서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니까 그게 개인별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네, 알겠습니다.

178쪽 학급 보조봉사자 훈련 중에 세대간지혜나눔사업 지원예산 중일반 운영 유치원 지원비가 봉사활동비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원당 240만원씩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예산에는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금회는 200만원씩입니다. 당초예산은 12개월분이고 금회 예산은 5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10개월분 반영해서 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관련예산 그 보험료는 당초예산에서는 1인당 만원씩 해서 169명분이 들어 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그 앞에 보니까 94명분인 것 같아요.

요것이 673만 5,000원이면 94명분이 673만 5,000원이면 1인당 단가가 굉장히 보험료가 당초예산하고 다른 것 같은데.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178쪽에 3세대 하모니 공립 75, 사립 19명해서 요게 된 거는 오타로 되겠습니다.

179쪽에 공립 132명, 사립 36명해서 총 168명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 178쪽에 인원수가 오타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단가가 달라진 거는 2009년도에는 1인 1만원씩 했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실손 의료보험상품 표준화 방안에 의해서 1인당

보험료가 약 2만 5,000원씩 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본예산에 5개월분만 이렇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데 168명이 되면 종일반 100%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 **간사 김병우**

그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활동비도 보니까 요거는 169명분으로 해서.

●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오타가 되어 있고 168명분에 대한 8개월분 월 40만원씩 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7쪽에 관악연주회 및 청소년축제 운영에 고등학교 2개교에 1억 5,000씩 그리고 중학교는 1개교에 5,000씩 이게 창단비입니까?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반 창단은 고등학교 2교, 중학교 1교인데 새로 생긴 양청고등학교하고

옥천상고인데, 옥천여중에 관악반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음악적인 그런 특기를 살려서 진학할 학교도 없고 또 관악반으로 졸업한 그런 학생들은 상급학교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옥천지역의 어떤 요구도 있고 학생들의 어떤 특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두 학교 양청고하고 옥천상고에 관악반을 새로 신설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는 같은 재단산하 일신여중입니다. 기존에 일신여고에 관악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와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필요한 악기구입에 대한 예산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고등학교 쪽은 창단해야 되기 때문에 악기구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그렇습니다.

● **간사 김병우**

일신여중은 지금 현재 악기 있는 곳이라 좀.....

●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고등학교에 주로 여러 가지 연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적게 들 겁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246쪽에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지원 예산 중에 라의 취업기능강화사업 운영비 지원이 부분이 3억 9,546만원 설정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금으로 9개 학교에 1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과 다른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기능 강화사업과 전문계고 특성화운영 지원 사업은 사업주체나 대상학교나 선정기준과 사업목적이 분명히 다른 사업입니다.

● 간사 김병우

다릅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네.

● 간사 김병우

지금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는 몇 개교입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9개교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럼 모든 특성화고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여기에 지금 계상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상된 3억 9,546만원은 아직 학교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이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예산이 8억인데 5 대 5 대응투자로 해서 저희가 4억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니까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전부 9개라면서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지금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는 9개이고요, 지금 계상된 지금 계획을 세운 사업은 취업기능강화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문계고 대상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니까 모든 특성화 전문고에 거의 다 지원비가 내려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특성화고 9개인데 지원대상교가 9개이니까.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지정된 학교에는 다 내려갑니다.

● 간사 김병우

거기에 숫자가 같다 보니까 똑같아서, 모든 학교에 다 지정이 되고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전문계 3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9개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 **간사 김병우**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9개교요.

● **간사 김병우**

아, 이거는 전문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시 지정할 거란 말이죠?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어떻게 수치가 여기도 9개 여기도 9개다 보니까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래서 저도 여쭙봤습니다.

297쪽에 보건교사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1억 8,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요게 금액만 되어 있지 교육시기라든지 위탁기관이라든지 방법 같은 것이 안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직무연수비는 150명에 대한

직무연수비용입니다. 그래서 직무연수는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교육과정 부분 수정고시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경비가 1억 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연수.....

● **간사 김병우**

연수를 어디다 의뢰해서 하시는 겁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단체교육연수원입니다.

120시간 직무연수로써 150명분의 연수경비가 4,500만원, 연수여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면 방학 때 하는 겁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예, 방학중에 하는 겁니다. 8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가 5억 200만원 되어 있는데 요게 전체 학생 대비 몇 %정도인가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8.5%가 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러면 8.5%를 산출근거로 삼은 이 유가 있나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요것은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 분담금으로 해서 항바이러스제 구입비용이 5억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 **간사 김병우**

액수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학생수 대비율로 내려온 건가요?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기준이 전체 학생수 대비 8.5%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췄다.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거기에 맞췄습니다.

● **간사 김병우**

언제 이걸 할 겁니까?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구입요?

● **간사 김병우**

그러니까 요 바이러스의 구입을 언제 해서.....

●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요것은 전염병이 만연이 됐을 때에 그 시기에 맞춰서 예비적인 그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379쪽 학생 수용시설 확충 예산관련 항목 중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상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보니까 421쪽에 교실개축비가 일반 교실에 실당 9,66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특수학급 증축비로 1억 1,90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특수교실이니까 일반교실보다는 특수시설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더 비싸겠죠.

어떤 시설들이 더 들어갑니까?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그 단가는 보통교실이고 9,660만원 다 같습니다. 다 같은 거구요 설계비, 소방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여상촌 초는 기초비가 좀더 1,2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억 1,900을 계상한 겁니다.

● **간사 김병우**

무슨 특수시설이 더 들어가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예, 일반 보통실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요새 학교 교실건축비 이것이 그전부터 비교되기를 교도소 짓는 것보다 더 금액이 적다 이런 비교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학교시설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앞

서고 우수하다고 이렇게 볼만큼 시설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 건축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 시설과장 박민수

시설과장 박민수입니다.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실기준해서 실당 9,660만원 이걸 굳이 평으로 환산하면 평당 350만원정도 됩니다. 350만원을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좀 모순이 있겠지만 일반 아파트 건축비가 지금 거의 400에서 500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건축단가가 일반 다른 사회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높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하고 견주어 봐도 약간 평균이하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실단가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부대공사, 기초 환기부분이라든가 특수교실 같은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고 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444쪽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시설 중에 444쪽에 덕벌초등학교 교문설치비로 2,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니까 교문철거비로 79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철거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그런데 또 어디인가 보니까 교실철거비용도 790정도예요. 이게 790이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 건지 대충 추산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청주교육청시설과장 손문희입니다.

학교 교문 주변에 화단, 옹벽, 경사로 포함한 부분을 철거를 하는 사항으로 교실단가하고 엇비슷하게 판단하고 반영을 한 겁니다.

● 간사 김병우

대충 추산을 한 건가요?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네.

● 간사 김병우

그런데 설치하는데 2,500만원 드는데 뜯어내는데 790만원 들어요.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철거하고 철거 폐자재 폐기물 처리비하고 해서 그런 비용이 산출됐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445쪽에 산성초등학교 전기용량증설비가 굉장히 비싸네요. 이거 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입니다.

당초 예를 들어서 기본용량이 250키로로써 일반교실의 전기용량이었는데 다목적교실에서 냉난방설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부족한 100키로 전기용량이 필

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용량증설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리고 9,630만원.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변전시설이 변형을 가져와야 하니까 단가가 높습니다.

● **간사 김병우**

단가가 높은데 그 내역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446쪽에서 447쪽까지 보니까 초·중학교들의 지붕방수 관련예산이 사천초 같은 경우에는 765만원에 4실, 진흥초등학교는 785만원에 4실, 또 465쪽 보니까 금천중은 599만원에 7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입니다.

학교별로다 적합한 방수공법을 고려하다 보니까 사천초는 우레탄 방수로다 계상한 금액이 되고요, 진흥초는 쉬트방수, 금천중은 노출쉬트방수로 이렇게 해서 학교여건에 따른 방수공법의 차이에 따른 단가 계상에 의해서 3개교가 금액이 상이하게 계상됐습니다.

● **간사 김병우**

방식에 따른 단가 차이다,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떤 방식을 쓰는 겁니까?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방수 부분적인 여건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그 학교의 실정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단 말씀이죠?

● **청주교육청 시설과장 손문희**

그러다 보니까 상이한 계상이 됐습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516쪽에 단재교육연수원에 단재얼 찾기 국제교류 여비가 5명분 925만원 되어 있는데 요건 지난번에 본예산에 일본교류분을 걱정하면서 단재유적지 답사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걸 반영한 건가요?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예.

● **간사 김병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진과정에서 단재예술문화제전 추진위에서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적지 답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학생탐방단하고 같이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 마철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병우

576쪽에 유아교육지원 관련한 소규모 유치원 교육활동 공동운영비 예산이 옥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씩 그리고 다른 교육청은 20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77쪽에는 유치원 실외놀이기구로 1,500만원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00만원이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왜 그렇습니까?

●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

옥천교육청 관리과장 김홍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청은 농산촌 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중심유치원을 공동 운영하는 그러한 소규모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개 유치원보다도 2개의 유치원을 묶어서 그러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적정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 간사 김병우

그리고 괴산중평교육청의 실외놀이구구는 다른 군의 2,000만원보다 왜 500만원을 적게 책정했는지요?

● 괴산중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괴산중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도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금액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자라는 경우에는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병우

다른 교육청보다 500만원 적게 줘 가지고.

● 괴산중평교육청 관리과장 김성곤

당초예산에 1,500을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간사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656쪽에 제일 밑에 폐교건물 정밀안전진단 단양교육청 요것이 1,69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입니다.

폐교되는 데는 덕문곡 폐교인데요 2월 달에 안전점검 했을 때에 육안으로 봤을 때 건물에 금이 가고, 정밀하게 하

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덕문곡 폐교는 대부분에 있습니다. 대부분이고 어떤 상황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 **간사 김병우**

어느 학교요?

● **단양교육청 관리과장 유재선**

덕문곡 폐교입니다.

● **간사 김병우**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2시 27분 속개)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상당히 지루한 시간 흘러간 것 같은데 저도 한 30분정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해 주신다면.

● **위원장 서수웅**

한 3분의 1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옛그제 교육계 원로분들하고 제가 회식자리에 갔었습니다. 소주가 몇 순배 돌아갔죠. 그런데 저한테 순서가 오길래 아 저는 예산심의가 있어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양을 했더니 한 분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부의장, 행정감사든 예산심의든 김부웅하고 김병우만 입 다물면 조용히 잘 끝난데요. 왜 자꾸 집행청 속을 썩여주나 하고 질책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3년 반동안 16번의 예산심의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주민의 입장에서 교육비가 알뜰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겠다는 그런 소명 의식으로 잘 심의드렸음을 저는 시인합니다.

해서 그동안 많이 괴롭혀드렸더니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수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2시 39분 속개)

● 위원장 서수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  
안대로 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1조  
7,156억 1,379만 2,000원으로 하여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  
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또한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  
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서수웅, 간사 김병우,  
위원 김부웅, 성영용, 이상일, 정무.

○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국장 이수철, 기획관리국장 연희지, 학교정책과장 홍순규,  
초등교육과장 윤병준, 중등교육과장 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 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 조한성, 기획관리과장 박노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  
재무과장 김길흠, 시설과장 박민수.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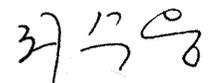
- ▶ 서면답변서(별첨 2)

※ 별책부록

- ▶ 2010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본회의 별책 1)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  
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10. 4. .

위원장 서수웅 

(별첨 1)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238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2010. 3. 22. (월) 조례심의 종료 후	<p>[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장 선출의 건</li><li>2. 간사 선출의 건</li><li>3. 의사일정 결정의 건</li></ol>	
2010. 3. 25. (목) 10:00	<p>[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li></ol>	



# 서면질의 · 답변서

세부사업 : 학생체육대회운영

예산안 페이지 : 312

## 질의요지

### ○ 학생체육대회 보조금 지원단체 및 지원 사유

## 답변내용

- 우리교육청은 그간의 부진을 씻고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4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으며, 이는 충북 체육발전 도약을 위한 각 계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각종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동아리 축구대회 개최, 학교스포츠클럽경기 대회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보조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 학생체육경기대회 종목 및 지원(주관)단체

#### 학생야구대회

- 전국 우수고교 야구대회 : 충청북도교육청, HCN 충북방송
- 충청권 리틀 야구대회 : 충북야구협회, 청주CBS

#### 고3 스포츠클럽대회(축구, 농구)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타임즈

